포럼 자료집

제3차 호남학 연구포럼

우리가 가꾸는 지역학 풍경

2024. 8. 20(화) 13:30

전주대학교 예술관 1층 리사이트홀

주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주관 호남학연구진흥협의회

제3차 호남학 연구포럼

우리가 가꾸는 지역학 풍경 일정표

일정	주요내용	
13:30~14:00	등록	
14:00~14:25	개회	사회 조미은(한국학호남진흥원) 개회사 **홍영기**(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환영사 **박진배**(전주대학교 총장) 축 사 **이현웅**(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 **협의회 경과보고**
14:25~15:10	주제발표1	사회 김만호(전남연구원) ◆ **전북 지역사 교육이 걸어온 길** **권익산**(원광여자중학교) ◆ **지역학 교육프로그램의 실제와 과제** **노성태**(남도역사연구원) ◆ **전남교육청 '전남 의(義)' 정신교육** **서남원**(전남교육청)
15:10~15:20	휴식	장내정리
15:20~16:00	주제발표2	◆ **대학(학부)의 호남학 교육** **이정선**(조선대학교) ◆ **근대성 성찰과 지역학 교육** **김창규**(전남대학교)
16:00~16:45	주제발표3	◆ **전북시민대학과 지역학의 융합** **이희경**(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시민력을 기르는 광주학 만들기** **곽유미**(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 **남도학의 현재와 미래 : 지역학과 시민교육** **최혜은**(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16:45~17:00	휴식	장내정리
17:00~18:00	종합토론	좌장 변주승(전주대학교) ◆ **지역학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홍성덕**(전주대학교) **박정민**(전북대학교) **한정훈**(목포대학교) **김명랑**(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개회사

올 여름에는 유난스러운 장마와 폭염으로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처서가 며칠 남지 않아 조금만 감내하면 이 무더위도 물러갈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호남학 연구진흥 협의회가 주관하는 제3회 <우리가 가꾸는 지역학 풍경>이란 주제의 연구포럼을 개최합니다. 사해일우(四海一宇)의 세계라고 하나, 지역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작업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지역학 연구는 지역우선주의에 의해 객관성이 일부 부족한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학을 연구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역학 교육의 경우, 단계별 학습 모델을 개발하여 즐겁고 재미있는 지역학 교육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천해오신 활동가 선생님들과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전라도의 수부(首府)인 역사도시 전주의 전주대학교에서 지역학을 성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권익산 선생님을 비롯한 노성태 서남원 이정선 김창규 이희경 곽유미 최혜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좌장과 토론을 맡아주신 변주승 선생님을 비롯한 홍성덕 박정민 한정훈 김명랑 선생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역학의 다양하고 참신한 교육 방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훌륭한 학술교류의 공간을 지원해주신 전주대학교 박준배 총장님, 지역학 발전을 위한 축사를 해주신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현웅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역학 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참석자 모든 분께 고마운 말씀을 올리며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0일

한국학호남진흥원장 **홍영기**

환영사

우리 전주대학교에서 뜻깊은 제3차 호남학 연구포럼을 개최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호남학 진흥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한국학호남진흥원 홍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 포럼에 옥고(玉稿)를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주대학교는 지역과 함께 창의적 실용인재를 육성하고, 실용적 연구역량을 증진하며, 교육가치창출 1위 대학, 미래를 대비하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지역의 혁신가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학의 교육과 이해가 필수기초 사항임을 인식하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구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역학은 지리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회·문화·역사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과 자부심을 향상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하여 대학생, 일반시민의 참여가 지역학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여년 전부터 인구쇼크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말을 방송매체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수도권에 비해 여러 면에서 부족한 지역의 현실 속에서 지역의 역동성이 필요한 오늘날, 지역학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학 교육의 현재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내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포럼을 준비하는 데 노고를 해주신 실무진을 비롯하여 오늘 발표와 토론, 좌장을 맡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전주대학교 총장 **박 진 배**

축사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현웅입니다.

오늘 제3차 호남학 연구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학 교육의 나아갈 방향성을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행사를 이끌어주신 한국학호남진흥원 홍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의 고난을 극복하며 학문과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호남의 독자적인 전통과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우리의 뿌리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 곳곳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학 교육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학 교육으로 지역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호남의 가치와 정체성을 조명하는 지역학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 활성화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호남학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시민 모두가 역사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나누는 여러분의 지혜와 통찰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현웅**

CONTENTS

주제발표1

전북 지역사 교육이 걸어온 길 ····· 13
지역학 교육프로그램의 실제와 과제 ····· 25
전남교육청 '전남 의(義)' 정신교육 ····· 41

주제발표2

대학(학부)의 호남학 교육 ····· 53
근대성 성찰과 지역학 교육 ····· 85

주제발표3

전북시민대학과 지역학의 융합 ····· 103
시민력을 기르는 광주학 만들기 ····· 115
남도학의 현재와 미래 : 지역학과 시민교육 ····· 129

종합토론

지역학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149

기관소개

광주문화재단 ····· 171
전남연구원 ····· 179
광주연구원 ····· 185
전남문화재연구소 ····· 191
한국호남학진흥원 ····· 197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207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 215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 ····· 223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 229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 237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 247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257
남도민속학회 ····· 265
역사문화학회 ····· 269
호남사학회 ·····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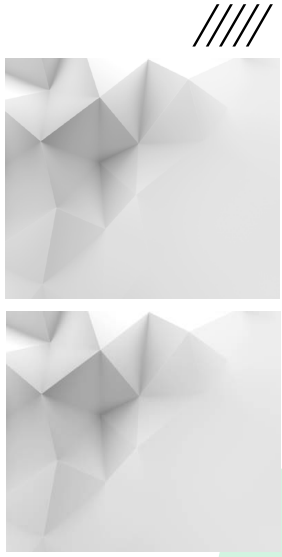
주제발표 1

전북 지역사 교육이 걸어온 길

권 익 산 원광여자중학교

전북 지역사 교육이 걸어 온 길

-역사보조교재 사업을 중심으로-



권익산(원광여자중학교)

2000년 이전 : 향토사

- 지역사 개념 확립 이전의 향토사 연구
- 개별 교사 수준에서 연구 및 수업 활용
- 연구 범위 – 시군 단위가 대부분
- 역사 답사의 유행 - 승용차의 보급과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 의무발령제 폐지 이후 10년간 역사교사 신규 임용이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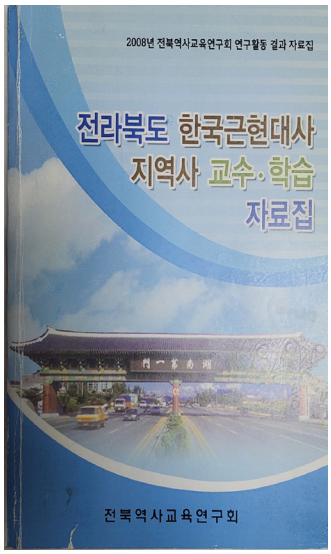
2000년대 : 교사들의 조직적 · 자발적 활동

- 전봉준 역사캠프 교사모임이 정읍동학혁명계승사업회와 공동 운영
- 1999년부터 매년 여름방학에 1박 2일간 역사캠프 운영
  - 100명 내외의 학생들 참여

전봉준 역사캠프

역사교과 연구회

- 수업 자료 개발 – 교사들이 공동으로 지역사 수업 자료 제작
- 한국근현대사 과목 신설로 근현대 자료에 대한 수요



2010년대 : 전북교육청의 역사보조교재 개발

교재명	개발연도	보급부수
동학농민혁명	2013	중2, 고1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2014	중2, 고1
전라북도 근현대 인물이야기	2015	중2, 고1
중학교 주제로 보는 역사	2018	중2
고등학교 주제로 보는 한국사	2018	고1
전라북도 사람들이 만들어 온 우리역사	2021	10,756
전라북도 역사 체험의 길	2023	1,684

2010년대 : 전북교육청의 역사보조교재 개발

- 사건, 인물 중심의 보조교재 개발
-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현장 교사가 공동 집필
- 초등용, 중등용 동시 개발
- 학생들의 눈높이와 수업 활용도를 고려한 서술
- 집필 과정에서 교사들의 지역사에 대한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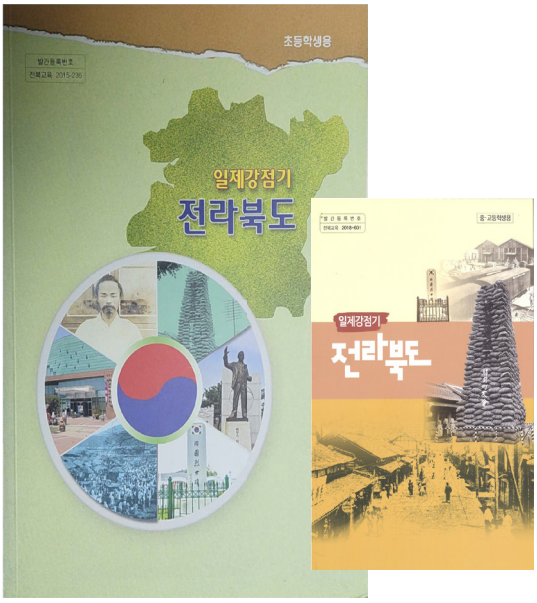
전북 교육청 개발 역사보조교재

2013년

2014년

2015년

초등학생용과 중고생용 동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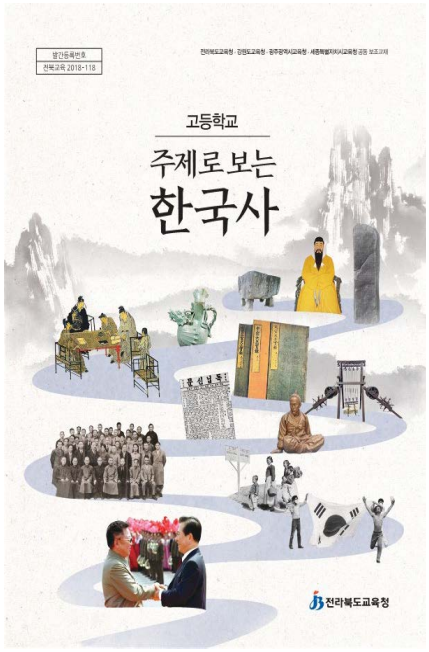


4개 교육청 공동 역사보조교재 개발

- 목적 : 국정 역사 교과서를 보완하고 다양한 교수 · 학습 활동 지원
- 필진 : 시대별 전공 교수 13명, 역사 교사 22명
- 개발기간 : 2016년 1월~2018년 8월
- 과정 : 1회 학술회의, 10회 집필자 워크숍, 100여 회의 팀별 회의
- 참여 교육청 : 강원, 광주, 세종, 전북교육청

교재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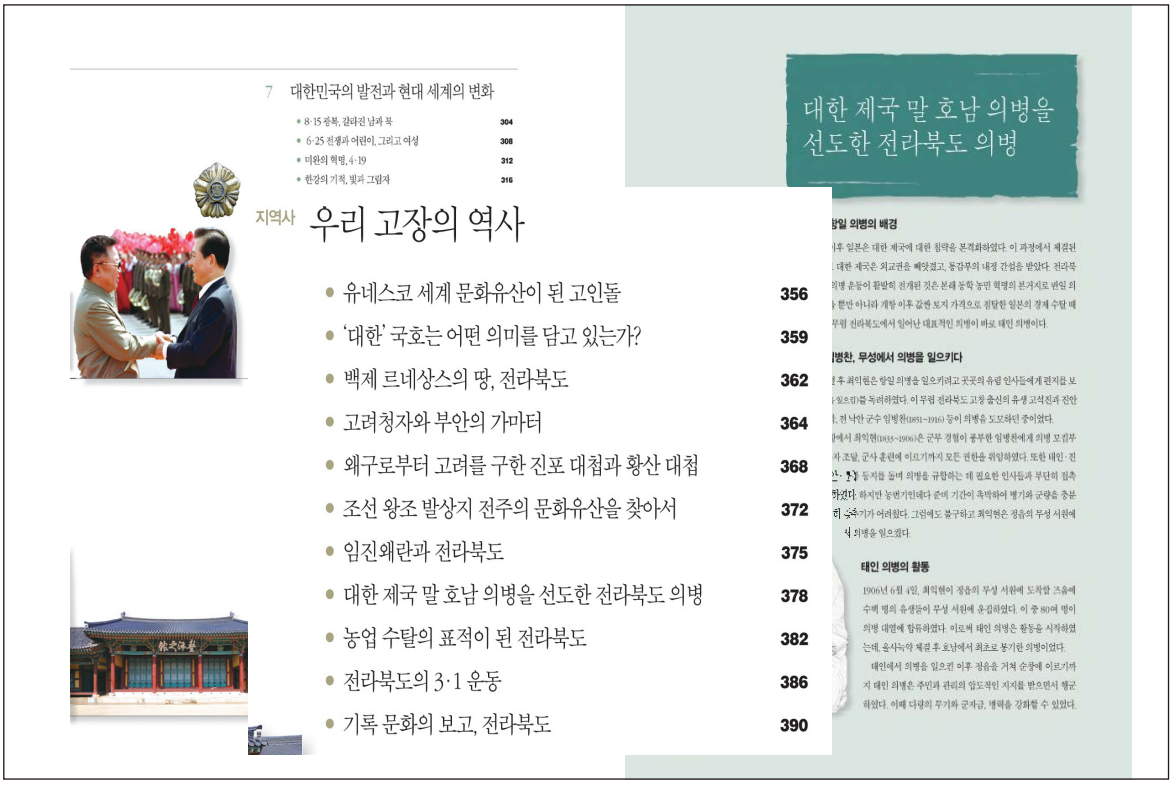
- 국정 역사 교과서를 보완하고 다양한 교수 · 학습 활동 지원
- 민주주의, 인권, 평화, 다원적 관점 등 보편적 가치 반영
-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의 맥락에서 한국사의 성격과 변화 이해
- 사실의 나열이 아닌 주제나 토픽을 중심으로
- 지역의 관점에서 한국사의 변화를 이해 – **지역사 포함**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가, 장현식

지역사 **전라북도의 인물 이야기**

1 새로운 불국토를 꿈꾼 백제 중흥의 왕, 무왕 222
2 백제와 고구려 유민에게 새 희망을 전한 진표 224
3 전주에 도읍을 정한 후백제 왕, 견훤 226
4 고려의 대문장가, 김구 228
5 "조선왕조실록" 보존의 주인공, 오희길·안의·손홍록 230
6 시대를 앞서 간 개혁가, 정여립 232
7 새로운 국가를 구상한 유형원 234
8 조선의 명필, 이삼만 236
9 판소리를 집대성한 신재효 238
10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가, 장현식 240
11 민족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삶을 산 김병로 242
12 4·19 혁명의 도화선, 김주열 244
13 혼불 같은 삶을 살며 "혼불"을 남긴 최명희 246



7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 8·15 광복, 갈라진 남과 북 304
- 6·25 전쟁과 어린이, 그리고 여성 308
- 미완의 혁명, 4·19 312
- 한강의 기적, 빛과 그림자 316

지역사 **우리 고장의 역사**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된 고인돌 356
- '대한' 국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359
- 백제 르네상스의 땅, 전라북도 362
- 고려청자와 부안의 가마터 364
- 왜구로부터 고려를 구한 진포 대첩과 황산 대첩 368
- 조선 왕조 발상지 전주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372
- 임진왜란과 전라북도 375
- 대한 제국 말 호남 의병을 선도한 전라북도 의병 378
- 농업 수탈의 표적이 된 전라북도 382
- 전라북도의 3·1 운동 386
- 기록 문화의 보고, 전라북도 390

대한 제국 말 호남 의병을 선도한 전라북도 의병

태인 의병의 활동

2020년대 : 교사들이 만든 역사 보조교재

변화된 모습

- 교사들이 집필 – 중등용은 중 • 고 교사가, 초등은 초등 교사가
- 시대별로 주제 중심의 서술
- 체험 활동과 결합할 수 있는 교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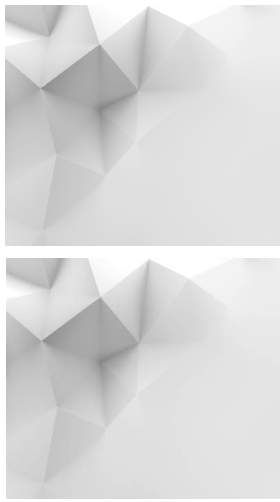
앞으로는

- 교사 : 중소 시군 단위에 정주하는 교사가 줄어듦 –> 지역사 연구 역량의 약화
- 학생 : 지역 정체성 약화
- 교육과정 : 고교학점제 실시로 고등학교 역사 수업 감소

그럼에도

- 지역사 교재 개발과 교육 역량 전수
- 전라도천년사의 성과를 학교로
- 지역사가 아니라 지역을 고민

오늘도
행복하세요



MEMO

주제발표 1

지역학 교육프로그램의 실제와 과제

노 성 태 남도역사연구원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와 과제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_

노성태(남도역사연구원)

1. 광주 역사 정체성은 '정의로움'

문화는, 문화유산은 시대를 흘러오면서 남긴 인간들 삶의 총체적 흔적이다. 문화는 특정 지역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독창성을 띄게 되지만, 서로의 교류를 통해 보편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지역의 특정 문화란 자기들만의 역사 정체성을 갖고 존재하게 마련이다.

광주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시대정신을 몸을 던져 실천한 흔치 않은 지역이다. 임란과 한말 의병, 동학농민혁명, 일제하 광주학생독립운동, 해방 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및 촛불 집회 당시 보여준 '행동하는 양심'이 그 증거다. 이는 광주를 '정의로움'의 고장, '의향'으로 불리게 한 문화 원형이 되었고, 금남로를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라 불리게 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광주가 '정의로움'으로 고장이라는 역사 정체성을 갖을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의 역할이 대단했다. 광주 3·1운동 당시 재판을 받은 104명 중 수피아여학교 윤형숙 등 53명이 학생이었고, 10년 후에 광주에서 광주고보·여고보, 농업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발발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독립운동이 된다. 뿐만 아니다. 해방 후 광주고생들이 교문을 돌파하면서 광주 4·19혁명이 시작되었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최후까지 도청을 지키다 사망한 문재학·안종필·박성룡도, 헌혈 후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진 박금희 등도 고등학생이었다.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경찰에 최루탄을 맞고 숨진 연세대학생 이한열은 광주 동성중, 진흥고를 졸업한 광주의 아들이었다.

올바르게 살아 온 광주인들의 삶, 특히 학생들의 삶은 오늘을 사는 광주인들의 자랑이고 자긍심이다. 그리고 그 자긍심의 흔적은 수피아 여고 교정의 3·1기념탑,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금남로, 5·18국립묘역, 옛 전남도청, 충장사, 포충사, 김태원의 병장 동상, 4·19혁명 역사관 등 광주 곳곳에 묻어 있다. 그 현장을 체험하고 의미를 따져보는 일은 중요하다. 올바르게 살아간 선배들을 기리고, 기억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정신을 실천하고 계승하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이다.

"역사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없고 결국 뿌리가 뽑힌채로 고향을 등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태어나고 자란 김해 봉하마을로 낙향, 김해 봉하마을의 지킴이가 된다.

오늘을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 이는 어른들만의 일이 아닌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알아야 할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 그중 하나가 나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해 줄, 지킴이가 될 지역의 역사이고 지역의 문화다.

광주시교육청의 지역학 교육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비교적 높다. '광주 정신 체험 프로그램' 등 수많은 지역학 프로그램의 실천이 그 증거다. 본고에서는 최근 실시된, 실시되고 있는 몇가지 사례만 소개하려고 한다.

2.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1-'역사 교과서 보조교재'

2018년 박근혜 정부가 관철하려던 국정 역사 교과서에 맞서 교수 13명, 교사 22명 등 35명이 참여하여 집필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가 간행되었다. 원래는 국정교과서에 대응한 대안교과서를 집필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정권 퇴진으로 국정교과서 추진이 철회되면서 기존 교과서를 보완하는 개념이 강화된 보조교재 형태로 만들어져, 일선 학교에 배포되었다.

광주를 비롯 전북·세종시·강원도 등 4개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여 제작된 '역사 교과서 보조교재'는 기존의 역사 교과서와는 달리 지역의 역사를 대폭 담고 있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이는 중앙사 위주의 역사를 극복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광주의 경우, 중학교 보조교재에는 '고려말 관음포 대첩의 영웅, 정지' 등 광주 도로명의 주인공이 된 지역 인물이 중심이 된 20명이 소개되어 있고, 고등학교 보조교재에는 '2,000년 전 타임캡슐, 신창동 유적' 등 주요 주제나 사건 15개나 서술되어 있다. 중학교의 경우 40쪽, 고등학교의 경우 30쪽 정도의 분량이니, 이전 교과서에 비한다면 대단한 지면 할애가 아닐 수 없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2회에 걸쳐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에게 보조교재를 배포하였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 시간 확보 및 정규 교과서 진도의 어려움, 역사 교사들의 협조 부족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주제로 보는 역사』와 『주제로 보는 한국사』는 교과서 형식을 띤 보조교재였지만, 최초로 지역의 인물과 사건을 대폭 서술한 교과서 보조교재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교재에 실린 지역의 인물과 사건 등은 여전히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지역의 역사자원이 아닐 수 없다.

(가) 중학교 『주제로 보는 역사』에 서술된 '남도 인물'

중학교 『주제로 보는 역사』에는 「지역사, 도로명에 얽힌 광주의 인물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다음 20분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다.

1. 고려말 관음포 대첩의 영웅, 정지
2. 무진군을 광주목으로 회복시킨 이선제

3. 목숨을 걸고 의로움을 실천한 관리, 박상
4. 가사문학을 일군 '회방연'의 주인공, 송순
5. 호남에서 유일하게 종묘에 배향된 김인후
6. 군량미로 왜군 격퇴를 뒷받침한 박광옥
7. 퇴계 이황과 8년 논쟁의 주인공, 대학자 기대승
8. 두 아들과 함께 순국한 의병장, 고경명
9. 억울하게 스러진 전국 의병총사령관, 김덕령
10. 신분제의 벽을 깨고 일등 공신이 된 정충신
11. 부자(父子)의병장, 양진여와 양상기
12. 일제가 '거괴'로 지목한 의병장, 김태원
13. 다섯가지를 포기한 무등산의 성자, 최흥종
14. 평생 병자와 여성을 섬긴 선교사, 서서평
15. 순수 문학의 터를 닦은 시인, 박용철
16.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숨은 주인공, 장재성
17. 한·중 우호 인물로 우뚝 선 독립운동가, 정율성
18. 판소리로 조선 민중의 한을 달랜 명창, 임방울
19. 예향의 터를 일군 남종화의 대가, 허백련
20. 5·18 민주화운동의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나) 고등학교, 『주제로 보는 한국사』에 서술된 '남도 역사'

고등학교 『주제로 보는 한국사』에는 「우리고장의 역사」라는 부제를 달고 다음 15개의 사건이나 주제를 소개하고 있다.

1. 고인돌 왕국, 남도
2. 2000년 전 타임캡슐, 신창동 유적
3. 성거사터 5층석탑의 비밀
4. 고려말 왜구의 격퇴와 정지 장군
5. 최고급 분청사기 생산지, 충효동 가마
6. 기대승과 이황의 '사단칠정' 논쟁
7. 임진왜란과 호남의병
8. 대한제국기 최대 의병항쟁지, 어등산
9. 서양촌으로 불린 양림동
10. 광주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
11. 광주학생독립운동
12. 정율성 5남매의 독립운동
13. 금남로에서 꽃핀 민주주의
14. 사라진 풍경, 경양방죽과 태봉산
15. 예술의 고장 남도

(다) 국정교과서에 맞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나왔다

광주 등 4개 시도가 참여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출간은 당시 언론의 주 관심사였다. "국정교과서 맞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나왔다"라는 제목을 달고 연합뉴스에 실린 당시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전북 등 4개 교육청 2년반 만에 완성...2학기부터 활용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지역의 역사 담아"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박근혜 정권의 중·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맞선 대안 교과서 성격을 띤 '역사교과서 보조교재'가 20일 제작 완료됐다.

전북도교육청 주도로 세종, 광주, 강원 등 4개 교육청이 공동 제작에 착수한 지 2년 6개월만이다. 보조교재는 중학교 용의 '주제로 보는 역사'와 고등학교 용의 '주제로 보는 한국사' 등 2권이다. 각각 263쪽과 395쪽 분량으로, 한국사를 공부하는 중2와 고1 학생의 보조교재로 사용된다. 교수 13명, 교사 22명 등 모두 35명이 참여해 원고 집필과 검토, 수정, 심의 등의 과정을 밟았다.

이들 책은 애초 국정교과서에 대응한 대안 교과서의 성격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퇴진으로 국정교과서 추진이 철회되면서 기존 교과서를 보완하는 개념이 강화됐다.

기존 교과서가 역사적 사건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편년체 형태를 띠는 데 반해 인권, 평화와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역사 해석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역사책에서 배제됐던 지역의 주요 역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의 관점에서 역사를 들여다본 것도 다른 점이다. 역사에 대한 사고력을 높이고 흥미롭게 공부하도록 책을 구성한 것도 큰 차이다.

오는 2학기부터 일선 중·고교에서 수업에 활용된다. 전북교육청은 추가로 초등학생용 역사 보조교재를 편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 교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단편적으로 기억하기보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당시의 시대적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와 구성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세계 시민으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북의 주민으로서 당당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8.7.20.)

3.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2-'광주정신 체험 프로그램'

광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 중 대표는 2021년도부터 광주중학교 전체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광주정신 체험 프로그램'이다.

'광주정신 체험 프로그램'은 장휘국 교육감 시절인 2021년 시작, 오늘 이정선 교육감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인들과 광주의 학생들이 실천해 온 시대정신, 즉 항일·독립·민주화운동이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디딤돌이 되었다"면서,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광주인들이 실천한 시대정신의 현장을 탐방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다. '광주정신 체험 프로그램'의 목표는 '당당한 광주인', '건전한 민주 시민'의 육성이었다.

2021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92개 중학교 학생 중 100%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현직 역사교사가 중심이 된 운영위원회가 도움을 주었다. 운영위원회는 협의를 통해 광주정신이 깃든 체험 현장 '금남로와 옛 전남도청' 등 11군데를 선정하였고, 11곳에서 사용할 학생들의 활동 학습지 '리플렛'을 제작하였으며, 우천이나 학교 사정 등으로 교실을 찾아갈 경우를 대비, 11개의 PPT 강의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퇴직 교원과 문화해설사를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하였다. 체험 시간은 3시간이다.

'광주정신 체험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각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11곳 중 학급 학생들이 가고 싶은 현장을 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담당자는 타 학교와의 중복을 피해 날자를 정해준다. 그리고 정해진 날자와 시간에 학급당 차 한 대와 강사 한 분이 학교에 도착, 학생들을 태우고 광주 정신의 현장에서 현장을 체험하게 한 뒤, 리플렛을 작성하게 하고, 결과를 발표하게 한다. 그리고 우수 리플렛을 작성하고 발표한 학생은 교육청 시상도 한다.

(가) 광주정신은 '정의로움'과 '당당함'

학생들에 나눠주는 교재 리플렛 2쪽은 광주인들이 실천한 시대정신인 「광주정신은 '정의로움'」이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광주 정신은 '정의로움'

역사 속에서 축적된 광주인만의 정체성, 문화적 특성, 혹은 기질은 무엇일까요? 광주인들의 정체성과 기질을 '광주다움', 즉 '광주정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의로움'과 당당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주인들의 DNA가 된 정의로움과 당당함은 가슴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발로 뛰어 실천으로 옮겨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광주인들이 타 지역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지닌 '정의로움'과 '당당함'의 DNA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축적되었을까요?

조선 중종 때 인물이었던 서구 출신 박상은 중종의 두 번째 부인인 윤씨가 죽자 새 중전을 뽑지 말고 반정공신들에 의해 부당하게 쫓겨난 신씨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상소인 '신비복위소'를 올려 정의로움을 몸소 실천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3대첩인 한산대첩은 전라도 수군이, 행주대첩은 전라도 관군이, 제1·2차 진주성 전투는 전라도 의병들이 중심이었습니다. 1909년 전체 의병 전투 횟수의 47.2%, 참여 의병수의 60.0%가 호남 땅에서 호남인에 의해 전개됩니다.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 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운동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광주는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시대정신의 실천지였습니다. 금남로는 4·19혁명과 5·18민주항쟁, 6월 항쟁 당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복판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금남로를 '한국 민주의의 성지'라 부릅니다.

광주정신인 '정의로움'과 '당당함'은 이런 역사가 축적되고 보태지고 계승되면서, 오늘 광주인들의 정체성이 되고 DNA가 되었던 것입니다.

광주 학생 여러분!

역사 속에서 광주인들이 만들어 낸 '정의로움'과 '당당함'은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이며, '자긍'입니다. 정의롭고 당당했던 선배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더 멋진 광주인, 더 당당한 민주 시민이 됩시다.

(나) '광주 정신' 체험 장소 11곳

광주 정신인 '정의로움'과 '당당함'이 묻어 있는 현장은 아주 많다. 그 중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가장 효과가 큰 장소 11곳을 선정하였다. 11곳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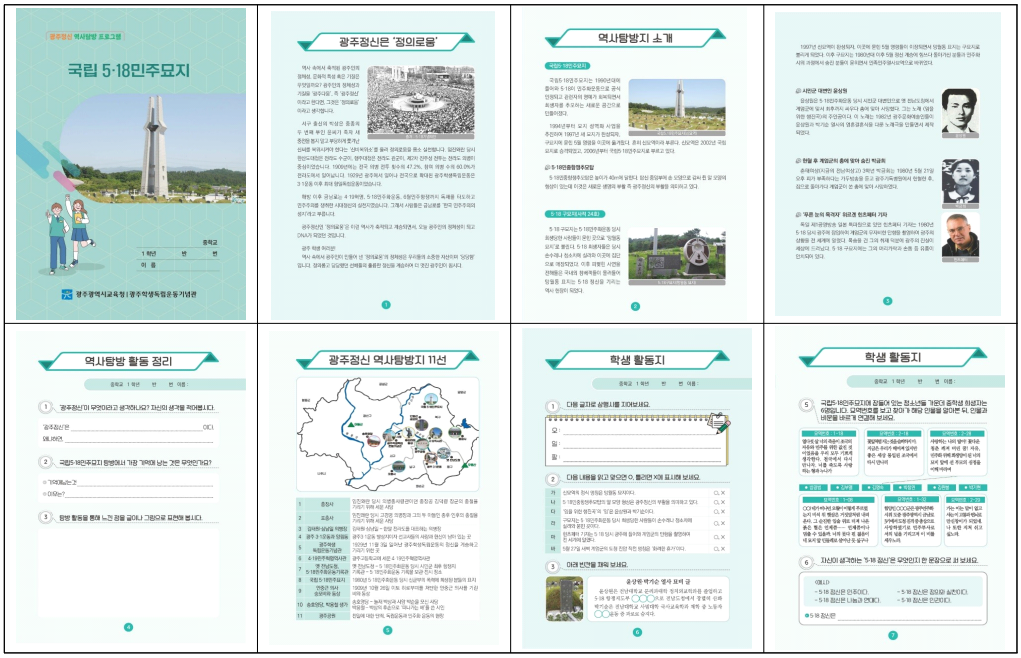
순번	장 소	내 용	위 치
1	충장사	임진왜란 의병 총사령관을 지낸 김덕령을 모신 사당	북구 금곡동
2	포충사	임진왜란 의병장인 고경명과 두 아들(종후, 인후)을 모신 사당	남구 원산동

3	김태원 동상과 심남일 순절비	한말 남도 8대 의병장	서구 농성동, 광주공원 안
4	양림동과 3·1운동	양림동의 광주 3·1운동의 모의지	남구 양림동
5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학생독립운동기념탑, 기념관	서구 화정동
6	4·19혁명 역사관	광주 4·19 혁명의 출발지 광주고	동구 계림동
7	옛 전남도청과 5·18기록관	5·18민주화운동의 주 활동지 및 기록관	동구 광산동
8	국립 5·18민주묘지	5·18 민주 영령이 잠든 묘역	북구 운정동
9	안중근 의사 숭모비	안중근 숭모비 및 동상	북구 운암동
10	송호영당	광주 정신의 출발, 눌재 박상을 모신 사당	광산구 소촌동
11	광주공원	4·19 기념시비, 5·18표지석, 심남일 순절비 등	남구 구동

(다) '광주정신 체험 장소' 11곳(지도)

(라) 리플렛 샘플

광주 정신이 깃든 11곳의 학생 학습지 중 '국립 5·18민주묘지'의 리플렛은 다음과 같다.



(마) 탐방 관련 사진

4.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3-‘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가) 프로그램 운영

2023년부터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 2024년도는 두 번째 해다. 전체 학생이 대상이 아닌 4, 5, 6학년 중 학급 단위로 신청을 받아 50개 학급을 선정한다.

2023년도의 경우 지역사를 연구하는 남도역사연구원이 위탁을 받아 탐방지를 선정하고, 학생 활동지인 리플렛 및 PPT 강의안을 만들었으며, 강사는 퇴직 역사 교원을 재교육하여 충당하였다.

2024년도는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한다.

프르그램 운영은 중1 학생이 진행하는 ‘광주정신 체험프로그램’과 유사하다. 버스 1대와 강사 한분이 신청한 학교 학급에 도착, 차에 학생들을 태워 현장으로 간다. 강사와 함께하는 현장체험은 3시간이며, 현장 체험 이후 적정한 장소에서 리플렛을 작성하고 발표하게 한다. 날씨 등으로 부득히하게 현장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교실에서 PPT 수업 및 리플렛 작성, 발표 등으로 대신한다.

역사·문화 둘레길 탐방지는 245빌딩 및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충장사, 벽진서원, 칠석동 고싸움 전수관, 양림동 역사문화 마을, 광주공원, 마한유적체험관, 월봉서원 등 10곳이다.

선정된 10곳은 광주 서부의 생활(3-2), 광주 동부의 생활(3-1), 광주의 생활(4-1)에 소개된 역사 문화 탐방지 중에서 선정하였다.

(나) 탐방지 소개

선정된 ‘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10곳의 탐방지와, 탐방지 설명은 다음과 같다.

순번	탐방지	탐방지 소개
1	전일빌딩2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일빌딩245: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흔적이 발견된 곳
2	벽진서원	-임진왜란 당시 군량미를 모아 왜군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준 회재 박광옥을 모신 서원
3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던 칠석동 고싸움놀이를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전수관
4	광주공원과 광주향교	-광주공원: 성거사지 5층석탑을 비롯한 문화유산이 있는곳 -광주향교: 조선 초기에 세워진 중등 교육기관
5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서양인 선교사들이 들어와 기독교를 전파한 곳이자 광주 3·1운동이 시작된 역사문화마을
6	국립광주박물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모아 전시한 곳

7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전남 지역의 자연 환경과 생활 모습이 담긴 민속 자료와 광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8	충장사	-임진왜란 당시 의병총사령관이던 충장공 김덕령 장군을 모신 사당
9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	-신창동 유적과 유물을 재현하여 2,000년 전 마한 사람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곳
10	월봉서원	-광주를 대표하는 유학자로 퇴계 이황과 학문 논쟁을 벌였던 고봉 기대승을 모신 서원

(다) 학생 활동지, 리플렛 제작

학생 활동지인 리플렛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정신 체험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한데, 눈높이만 초등학교 4~6학년 수준에 맞추고 있다. 리플렛 1쪽에는 '광주는 문화유산의 보물창고'라는 다음 글을 담았다.

광주는 문화유산의 '보물창고'

오랜 역사를 지닌 광주는 150여만 명이 살고 있는 호남 최대의 도시입니다. 광주라는 공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삶을 통해 수많은 문화유산을 만들어냈고, 그 문화유산이 오늘날까지 남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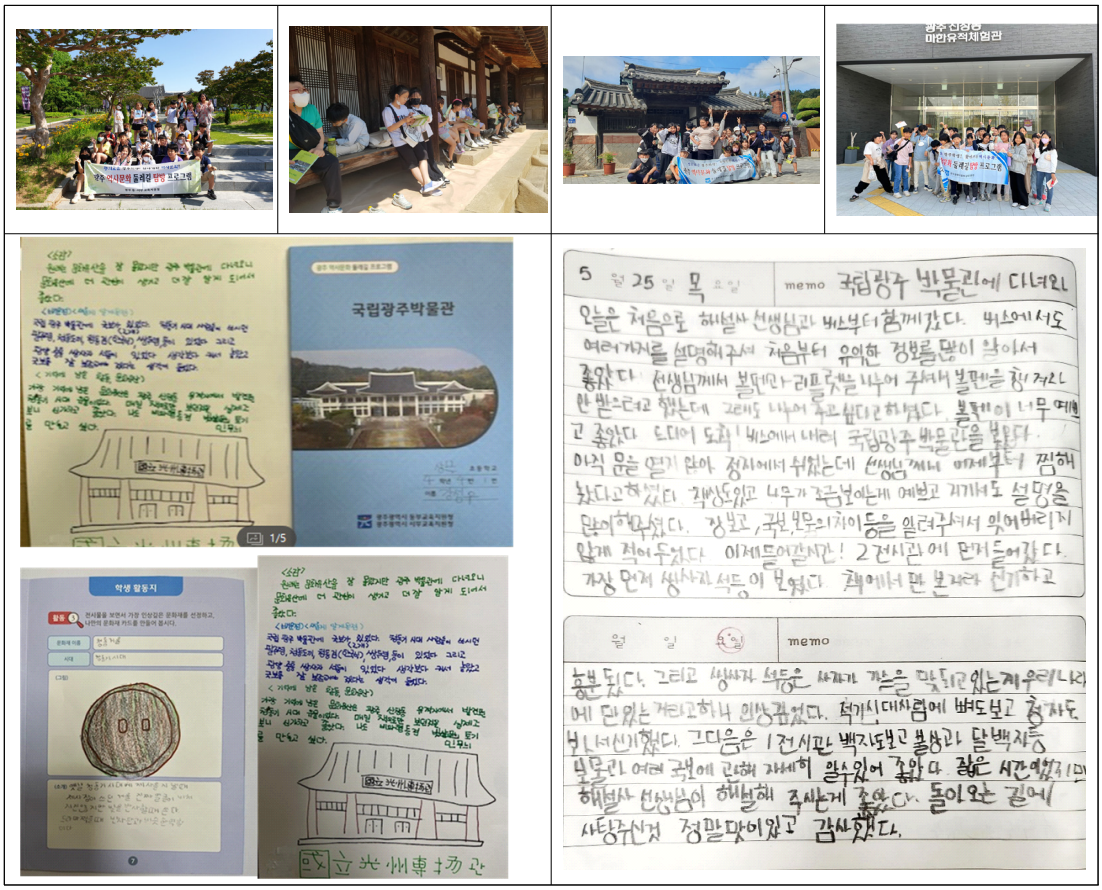
광주에 살았던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은 매우 많습니다. 동구에는 옛 전남도청을 비롯한 근·현대 유산이 남아 있고, 서구에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남긴 용두동 고인돌이 있습니다. 남구에는 포충사를 비롯하여 광주향교와 성거사지 5층 석탑이 있으며, 북구에는 증심사와 광주충효동요지, 국립5·18민주묘지, 그리고 국보로 지정된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이 있습니다. 광산구에는 2,000년 전 마한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신창동 유적도 있습니다.

광주는 기대승, 고경명, 김덕령, 정율성, 서서평 등 훌륭한 인물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광주 곳곳의 '길' 이름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주 학생 여러분!

광주는 문화유산의 보물창고이며 수많은 인물을 배출한 역사 도시입니다. 조상들의 문화유산은 오늘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이요, 자원입니다. 현장을 찾아보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역사 인물을 만나보고 무엇을 기리며 계승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멋진 광주인이 됩시다.

(라) 활동 관련 사진



5.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4-‘광주 효성 청소년 문화재단’ 프로그램

민간 단체인 광주 효성 청소년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지역사 프로그램도 있다. 광주 효성 청소년 문화재단(이사장, 박인혜)은 1996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광주지역 청소년의 인격도야 문화향상 및 청소년 운동의 지원·육성이 목표다. 현재 광주 효성 청소년 문화재단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장학금 지원, 청소년 멘토링, 독서토론회, 백범 문화재단 지원·민학회 지원·향토사 발간 지원 등 사회공헌 사업을 해오고 있다.

광주 효성 청소년 문화재단은 지난 2023년부터 남도역사연구원과 함께 항일·독립·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교 선배들의 얼을 이어받고 그 뜻을 기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도에 실시한 ‘광주학생독립운동길 탐방 및 발표대회’와 2024년 실시된 ‘광주 3·1운동길 탐방 및 발표대회’가 그것이다.

(가) 광주학생독립운동길 탐방 및 발표대회

광주학생독립운동길 탐방은 2023년 6월 14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중심 학교인 광주고보(현 광주일고) 후배들인 광주일고 학생 32명이 참여하였다.

탐방 코스는 다음과 같다.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일고)-장석천 옛 집터-수기옥정 우편국(옛 조흥은행 사거리)-옛 광주역(동부소방서)-토교(동문다리)-광주지방법원 터-장재성 빵집 및 김기권문방구점 터-충장로-전남도립병원(현 전남대학교)-부동교-광주공원(명치절 행사 현장)-학교

탐방 후 다음의 주제로 글쓰기가 이어졌고, 7월 12일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 '제2회 박선홍 학술상' 시상식 때 입상한 5명의 학생이 발표를 하였다. 당시 학생들이 쓴 글쓰기 주제는 다음과 같다.

*글쓰기 주제
-광주학생 독립 운동의 핵심 인물, 장재성
-광주학생 독립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인물, 장석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원동력, 성진회와 광주고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도화선, 이경채 사건과 맹휴 투쟁
-광주일고 야구는 왜 강할까?
-광주학생독립운동 현장 탐방을 마치고

(나) 광주 3·1운동길 탐방 및 발표대회

광주 3·1운동길 탐방은 2024년 6월 14일 광주 3·1운동의 중심 학교인 수피아여학교(현 수피아여중·고등학교) 후배들인 수피아여고 학생 30명이 참여하였다.

탐방 코스는 다음과 같다.

수피아여고 - 3·1운동길 - 3·1운동 공원 - 작은장터(부동교) - 서문통 - 광주 우편국(충장우체국) - 광주경찰서(충장서림) - 수피아여고

탐방 후 다음의 주제로 글쓰기가 이어졌고, 7월 15일 광주수피아여고 1학년 대강당에서 1학년 전체 학생 앞에서 입상한 6명의 학생이 발표를 하였다. 당시 학생들이 쓴 글쓰기 주제는 다음과 같다.

*글쓰기 주제
-광주 3·1운동은 왜 시장에서 시작되었을까?
-제2의 유관순으로 불린, 윤형숙 열사
-광주 3·1운동의 리더, 박애순 교사
-수피아홀 지하실에서 치마를 잘라 만든 태극기
-수피아여고 3·1운동 기념탑과 각오
-광주 3·1운동의 현장을 다녀와서

(다) 발간 자료집

(라) 관련 사진

6.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의 과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의 역사 정체성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긍심이요 자산이다. 그럼에도 오늘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하다. 교과서부터 중앙사 중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식 교육과정에서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소화해 낼 수 있는 단위 학교의 총체적 역량이 부족한 것도 그 한 이유다. 물론 교육청과 지원청의 지역학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부족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 대한 역사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지역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도 갖을 수 없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갖는 학생으로 키워내기 위한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몇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하나, 지역학에 대한 교육관계자(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및 교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둘, 지역학 교육을 위한 초·중등 과정의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광주의 경우 초등은 '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프로그램을, 중학교는 '광주정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다. 광주 초등의 '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프로그램의 확산은 과제다.

셋, 지역학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낼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현직교사뿐 아닌 지역의 문화해설사나 퇴임 역사 교사의 재교육을 통한 역량 축적이 필요하다.

넷, 민간 단체의 지원 및 지역학을 연구하는 단체나 연구소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광주의 경우 '광주 효성 청소년 문화재단'과 지역학을 연구하는 '남도역사연구원'이 협력하여 광주일고·광주수피아여고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선배들이 걸었던 항일·독립의 길'을 걷고 '발표회'를 한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은 참고할 만하다.

주제발표 1

전남교육청 '전남 의(義)' 정신교육

서 남 원 전남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2024. 「전남 의[義]: 민주 · 평화 · 인권」 교육 계획

Ⅰ 추진 근거

□ 추진 근거

○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2019. 10. 17.)

○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2020. 12. 31.)

○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2021. 2. 18.)

○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2021. 4. 8.)

○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 제1항

○ 「전라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조례」(2019. 6. 13.)

○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2021. 2. 18.)

○ 「전라남도교육청 5 · 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2017. 9. 28.)

○ 「전라남도교육청 10 · 19 평화 인권 교육 조례」(2021. 10. 28.)

Ⅱ 2023년 주요 추진 성과

□ 「전남 의[義]」 교육 실천을 위한 기반 확대

○ 전남 청소년 항일유적탐방(7월, 60명)

○ 전남 청소년 역사탐구대회(9월, 60팀)

○ 역사교육자료 개발 지원(2종, 전남의 향교, 전남의 동학농민운동)

○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22청), 찾아가는 역사 바로 알기 교육(42교)

○ 남도민주평화길(구례, 보성, 해남, 무안, 영광) 체험학습자료집 개발 · 보급

○ 계기교육 및 독도·나라사랑교육 지원(국경일 및 기념일, 무궁화 숲 가꾸기 등)

□ 평화 ·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생략

□ 공감과 참여의 평화 · 인권교육

- ○ 4 · 3 평화 · 인권교육 교원 직무연수(4월, 21명)
- ○ 5 · 18 민주화운동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 ○ 5 · 18 민주화운동 수업자료 보급(시청각 자료 1종, 학습보조자료 2종)
- ○ 여수 · 순천 10 · 19 및 제주 4 · 3 평화 · 인권교육 현장체험(10월, 제주 교원 22명)
- ○ 제5기 전남학생의회와 함께하는 평화 · 인권 역사 탐방(12월, 50명)

Ⅲ 추진 방향

비 전	건강한 역사관을 갖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양성	
목 표	민주 · 평화 ·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역사교육 실현	
중점 과제	전남의 의(義) 역사 바로 알기	■ 학생 체험 중심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단위 학교 전남 의(義) 교육 강화
	평화·통일 시대 의(義)로운 학생 육성	■ 평화·통일 교육 내실화 ■ 동아시아 갈등 해결을 위한 독도 교육 강화
	앎을 실천하는 의(義)로운 민주 인권 교육	■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 평화·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 강화 및 지역 기반 역사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지역 기반 역사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Ⅳ 세부 추진 내용

1 전남의 의(義) 역사 바로 알기

1-1. 학생 체험 중심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제14회 전남 청소년 역사탐구대회 (도교육청)**

- 목적
  - 역사 탐구활동을 통해 역사에 대한 종합적 사고력 증대
  - 역사 자료 수집・분석・비판・종합・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 신장
- 대상: 중・고등학생
- 기간: 2024. 7 ~ 9월 (예선 및 본선 진행)
- 주제: 전남지역의 의병활동과 의병장들, 전남지역 근로정신대 실상과 해결방안, 독도와 한일관계 등
- 작품 형식: 연구(조사)보고서 또는 영상자료
- 주최/주관: 전라남도교육청/전남 청소년 역사탐구대회 추진위원회

■ **전남 청소년 역사유적탐방 (도교육청)**

- 목적
  - 항일역사유적 탐방을 통한 義鄕 호남의 역사적 전통 계승
  - 항일 독립운동사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
- 대상: 고등학생 60여 명
- 기간: 2024. 7 ~ 8월 중
- 추진 내용: 전남과 국내 연계 항일투사들의 역사 유적지를 찾아 순례길 기행 진행

■ **학교로 찾아가는 역사 바로 알기 교육 (도교육청)**

- 목적: 이순신 리더십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통한 역사교육 중요성 확인
- 대상: 초・중학교 20교
- 기간: 2024. 6 ~ 12월 중
- 방법: 희망 학교별 학급 단위 수업 진행, 학급당 1~2시간
- 강사단: (사) 광주·전남 재향군인회

■ **특색 전남 의(義)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청, 학교)**

- 목적: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
- 대상: 22개 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및 학생
- 기간: 2024. 4 ~ 12월 중
- 방법: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고려한 전남 의(義) 체험프로그램 운영

예시) 여수교육지원청 '나비반도체험길' 역사 체험프로그램
순천교육지원청 '너나들이 역사 체험 원클릭 시스템'
구례교육지원청 전입 교원 대상 '구례 맥(脈) 배움 여행'
화순교육지원청 '청소년 문화해설사 과정'
목포여자고등학교 '나도 우리 고장 해설사가 될 수 있다' 활동
목상고등학교 '학교 출신 독립운동가 탐구/DJ 정신 계승 프로젝트'
순천복성고등학교 '목포-순천 청소년 문화해설사 교류 프로그램'

- (학교자율사업선택제) 전남 의(義)교육과정 운영

1-2. 단위 학교 전남 의(義) 교육 강화

■ **학교(교육지원청) 지역사 교육활동 강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 근거: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 목적: 지역사 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자존감 및 애향 의식 발현
- 주요 내용
  - 역사 및 사회과 교과 연계 지역사 주제 수업 권장(지역 의병, 독립운동가 발굴 및 학습)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한 역사 기념일 계기교육 운영
  - 학생자치회 및 학급 자치를 통한 학생독립운동 기념주간 운영

■ **학교 독립운동사 교육활동 강화 (학교)**

- 근거: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 목적: 독립운동사 교육을 통한 올바른 역사의식과 정체성 함양
- 주요 내용
  - 학교 역사수업 강화(3.1운동,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임시정부 활동, 광주학생운동 등)
  - 학생 참여형 역사수업 강화(일제 제국주의 침탈행위의 모의재판, 위안부 피해에 보상에 관한 모의재판, 3.1운동 재연 등)
  - 지역의 항일투쟁유적지 및 인물에 대한 탐방 및 탐구 교육활동 추진 등
  - 지역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함께하는 역사 계기교육 실천 등

■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및 관련 교육활동 추진 (교육지원청, 학교)**

- 근거: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
- 목적: 일제 잔재 청산 관련 교육활동으로 나라사랑 및 평화의 가치 함양
  - 독도교육주간(10월)과 연계하여 '학교 내 일제 잔재 조사, 청산 계획 수립, 실적평가'를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교육활동 운영
- 학생자치회 주도 학교 내 친일 잔재 유·무형 발굴 및 청산작업 실천
- 학생회 주도 친일 잔재 청산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교가 가사 개정 등)
- 학생회 주도의 내 고장 친일 잔재 유·무형 발굴 및 청산활동 실천

■ **기념일을 활용한 계기 교육 (학교)**

- 목적: 계기 교육을 통한 정체성 함양 및 관련 전남의 의(義) 관련 인물 이해
- 방법: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기념행사 및 계기 교육 진행
- 주요 기념일

월	일	활동 주제	적용
3월	1일	3·1절	역사
	22일	서해수호의 날	역사
4월	3일	4.3 희생자 추념일	민주·인권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역사
	19일	4·19혁명 기념일	민주·인권
	28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역사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역사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민주·인권
6월	1일	의병의 날	역사
	6일	현충일	평화·통일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일	민주·인권
	25일	6·25 전쟁일	평화·통일
7월	17일	제헌절	역사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인권·평화
	15일	광복절	평화·통일
10월	3일	개천절	역사
	9일	한글날	역사
	25일	독도의 날	평화·통일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	

2 평화·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의(義)로운 학생 육성: 생략

2-1. 평화·통일 교육 내실화

2-2.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갈등이해

3 앎을 나누고 실천하는 의(義)로운 민주 인권 교육

3-1.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연계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확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 ▸ 교과별 5·18 관련 수업 실시 권장 (학교)
- ▸ 주제별 수업을 통한 교과 연계 5·18민주교육 전개
- ▸ '5·18 민주화운동 활동지(초 4~6학년, 중2, 고2학년용)' 보급 (도교육청)
- ▸ 전남 '또 다른 기억, 전남의 5·18 이야기' 활동지 보급
- ▸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계기교육 (학교)
  - 5·18민주화운동 골든벨, 음악회, 문집제작, 미술작품 만들기 등
  - 5·18 영상 시청, 시화, 일러스트 그리기, 연극제, 독후감쓰기 등 운영 및 참여
  - 외부 전문 5·18 교육 프로그램 참여
- ▸ 5·18 민주화운동 유적지 답사 운영 (학교 및 교육지원청 운영)
  - 전문 단체 제작 자료 활용 탐방 프로그램 진행
  - '남도민주평화길' 활용 수업
  - 오월학교 연계 5·18 유적지답사 (총 6길)

■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주간(5. 7.~5. 17.) 운영** (학교)

- ▸ 학생자치회 주관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념 행사 실시 권장
  예시)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탑 제작, 주먹밥 이웃과 나눔 행사
- ▸ 지역 청소년 연합 동아리 운영 및 유관기관(단체) 행사 참여 등
- ▸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간 기념물 제작 및 게시
- ▸ 5·18 민주화운동 온라인 추모관 5·18 기념재단 사이버참배, 5·18 기념공원 방문 등

■ **5·18 민주화운동 교육 자료 배포 (도교육청)**

▸「또 다른 기억, 전남의 5·18 이야기」 활동지

- 희망 중·고등학교 보급 예정(예산 범위내 희망 부수 보급)
- 신청: 4월 중순까지 자료집계 시스템 신청 / 4월말 학교 보급 예정

▸ 5·18 보드게임 배포

- 목적: 5·18 민주화운동 계기수업 후속활동 지원
- 대상: 희망 중·고등학교 36교 (5개 1셋트) 4월 중순 보급 예정

▸ 5·18 민주화운동 학습보조자료 배부 (교육지원청)

- 대상: 희망 초등학교
- 배부 책자: 5·18 민주화운동(2종 - 초등 3·4학년용, 초등 5·6학년용)
- 발행: 5·18 기념재단

▸ 5·18 기념재단 교육자료 신청 (학교)

- 인쇄물 자료-5·18 민주화운동 활동지(5종)
- 초등학교용 3종, 중학교용 -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 고등학교용 -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월이야기

3-2. 평화 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여순 10·19 평화·인권교육주간 운영 (학교)**

▸ 10월 셋째 주(10. 14.~10. 18.)를 활용하여 학교별 자체적 실시

▸ 운영: 교과·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수업자료: 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정보모두-수업예시안

▸ (학교자율사업선택제) 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

- 학교별 통일·평화·인권교육 선택과제 운영, 현장답사, 통일동아리 운영 등

■ **여순 10·19 평화·인권 체험학습 운영 (학생교육원)**

▸ 중학생 평화인권역사체험캠프(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 전남 평화통일희망학교 현장 체험 학습(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 제주교육청과 연계한 '여순 10·19 평화 공감 현장체험' (도교육청)

■ **여순 10·19 바로 알기 골든벨 (도교육청)**

▸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대상 골든벨 행사 진행을 통해 여순 10·19 이해 확산

4 교원 역량 강화 및 지역 기반 역사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4-1.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도교육청)**

▸ 역사교과교육연구회, 독도교육실천연구회, 5·18민주화운동 운영

■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도교육청, 교육연수원)**

▸ 역사교육 관련 연수 운영

- 목적: 역사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내용

*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주관 「전남 義 교원 직무연수」 실시

* 15~60시간 이상 「전남 義」 역사 관련 강의 1시간 이상 배치

▸ 독도교육 교원연수 강화: 집합연수, 원격 연수

▸ 평화·통일, 평화·인권교육 연수 운영

▸ 10·19 평화·인권교육 연수(전남 및 타시도 교원)

* 대상: 유·초·중·고 교원, 전문직원

* 내용: 평화·인권 현장체험 연수

■ **지역사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도교육청)**

▸ 목적

- 전남 역사교육 자료의 체계적 개발을 통한 지역사 교육의 교두보 마련
- 자신과 타인을 잇는 역사적 사건 이해를 통한 통찰력 있는 민주시민 양성

▸ 추진 내용

- 전남 지역사 관련 역사교육 자료 (2종): 전남 義人열전, 전남의 노동운동
- 남도민주평화길 체험 교재(5개 지역): 곡성, 장흥, 완도, 진도, 신안

▸ 자료 배부: 각급학교 보급 (10월 예정)

4-2. 지역 기반 역사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 역사 전문가가 함께하는 네트워크 구축·운영 (도교육청)**

▸ 전남 의(義) 교육 활성화 역량강화 연찬회 및 협의회 운영

- 대상: 22개 지역청 업무담당자, 지원청 추천 지역사 전문가・교원 등
- 주관: 교육자치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우리 마을 역사 알기** (교육지원청)

▸ 마을학교 연계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구례 온마을 맥(脈)잇기 프로젝트’ 운영
- 고흥온마을학교 ‘내고장알기 역사체험프로그램’

▸ 마을학교 및 지자체 연계 지역사 이야기 책 개발 보급: 나주, 곡성

■ **문화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지역사 교육** (교육지원청)

▸ 목적: 전남의 역사와 전통 계승 및 지역 역사의 고찰을 통한 공감각적인 민주시민 양성
▸ 대상: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등
▸ 기간: 2024. 3 ~ 12월 중
▸ 추진 방법: 시・군 문화원과 연계 운영
▸ 추진 내용
- 시・군 문화원의 지역 역사 및 문화 교육
- 각 지역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 전개
- 선현들의 유적지(충・효・열) 현장 체험 등

Ⅴ 기대효과

▷ 평화・인권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감수성 제고

▷ 다양한 평화・인권 프로그램을 통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

▷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교원의 인권 평화 교육 전문성 강화

MEMO

제3차
호남학
연구포럼

우리가 가꾸는 지역학 풍경

주제발표 2

대학(학부)의 호남학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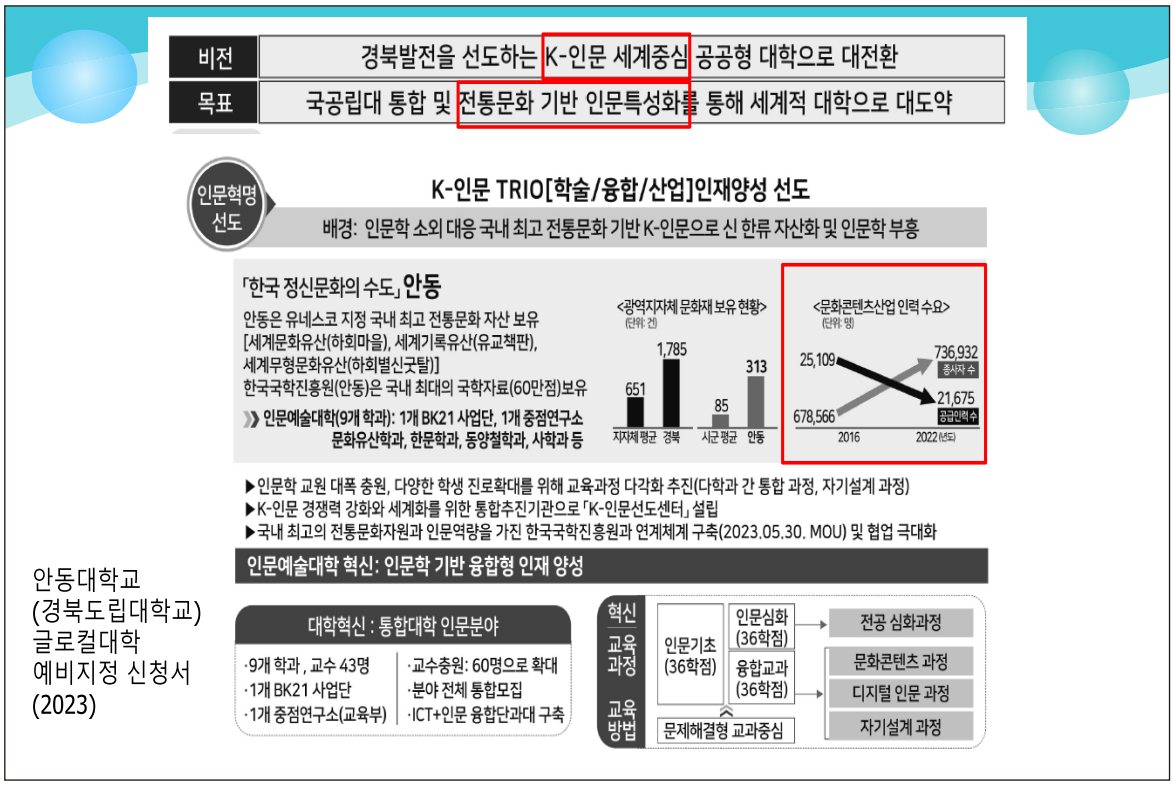
이 정 선 조선대학교

대학(학부)의 호남학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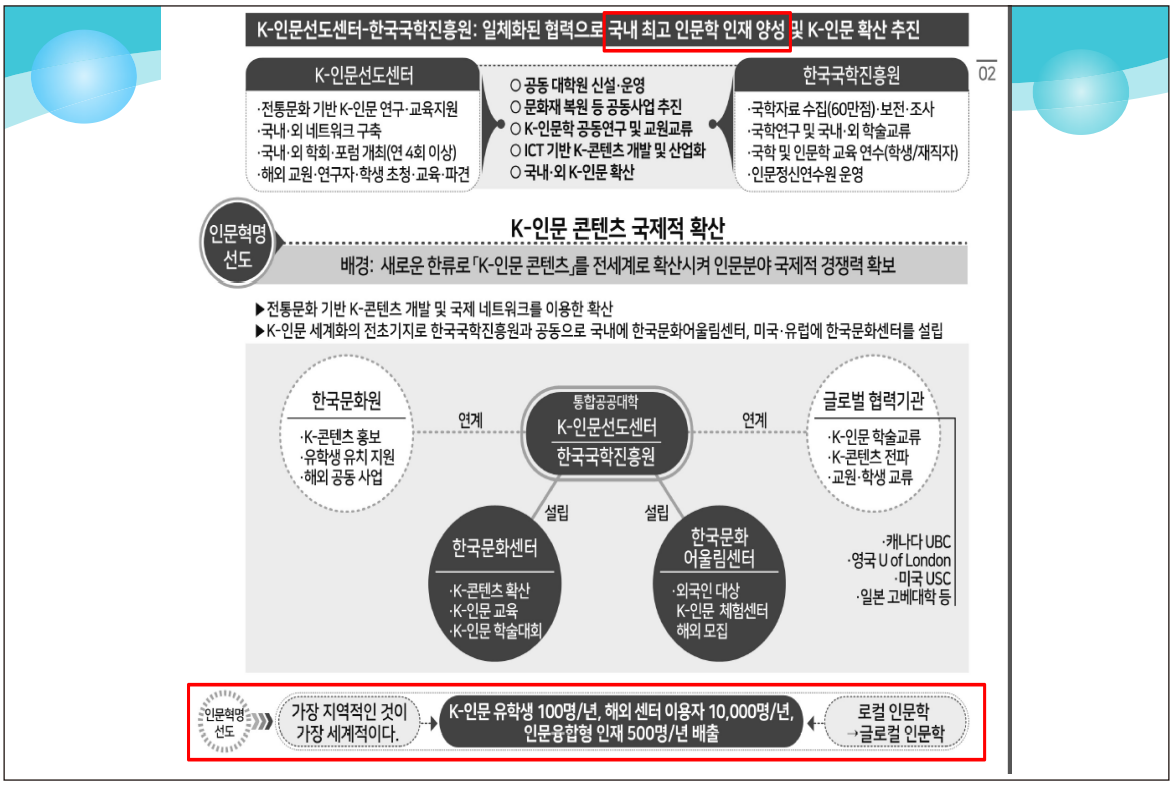
- 인문 사회 계열 전공 교육을 중심으로 -

이정선(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2024.8.20. 제3차 호남학 연구포럼



안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서 (2023)



문제의식

- 대학 구조조정과 인문학의 위기

  - 인문학 계열 학과 통폐합, 교수 TO 감소

    인문학 계열의 교육과정 개편: 융복합. 전공 기초 부실

  → 인문학 계열 전문 인력 양성의 위기

- 앞으로 호남학은 누가 연구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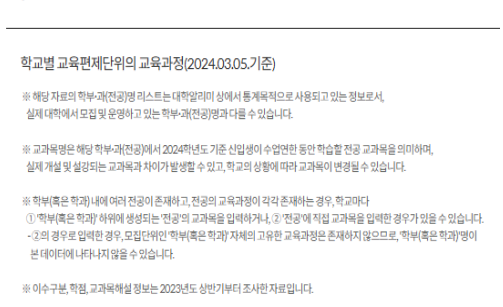
  - 안 한다 / 서울 또는 안동에서 양성된 인력이 한다

조사 방법

- 광주, 전남, 전북 대학의 호남학 교육 현황 조사

①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기초 자료 수집

: 지역 대학 정보, 학과 전공 정보, 교육과정(2024)


자료실

학교별 교육편제단위의 교육과정(2024.03.05.기준)

※ 해당 자료의 학부·과(전공)명 리스트는 대학알리미 상에서 통계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보로서, 실제 대학에서 모집 및 운영하고 있는 학부·과(전공)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교과목명은 해당 학부·과(전공)에서 2024학년도 기준 신입생이 수업연한 동안 학습할 전공 교과목을 의미하며, 실제 개설 및 설강되는 교과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학교의 상황에 따라 교과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부(혹은 학과) 내에 여러 전공이 존재하고, 전공의 교육과정이 각각 존재하는 경우, 학교마다
① '학부(혹은 학과)' 하위에 생성되는 '전공'의 교과목을 입력하거나, ② '전공'에 직접 교과목을 입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②의 경우로 입력한 경우, 모집단위인 '학부(혹은 학과)' 자체의 고유한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부(혹은 학과)'명이 본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수구분, 학점, 교과목해설 정보는 2023년도 상반기부터 조사한 자료입니다.

조사 방법

- 광주, 전남, 전북 대학의 호남학 교육 현황 조사

② 유관 학과 추출(표준분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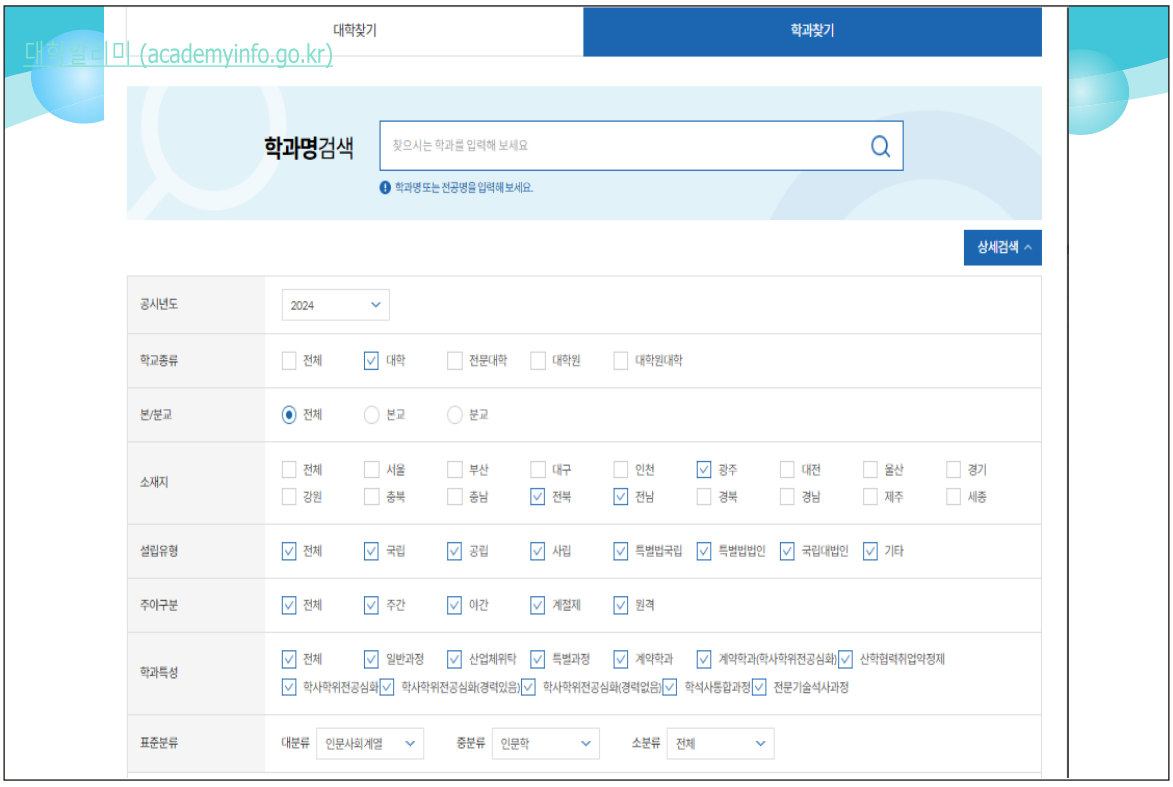
: 인문·사회 계열 – 인문학 – 역사·고고학

– 문화·민속·미술사학

: 인문·사회 계열 – 언어·문학 – 국어·국문학

③ 유관 학과 호남학(지역학) 전공 교과목 조사

: 대학알리미 교육과정(2024) 자료 + 학과 홈페이지



조사 방법

- 광주, 전남, 전북 대학의 호남학 교육 현황 조사

④ 그밖의 학과 전공 교과목 간이 조사

: 대학알리미 교육과정(2024) 자료 키워드 검색

'호남', '남도', '광주', '전남', '전북', '지역', '로컬'

: 2024년 교육과정에서 폐설된 모집단위 교과목 포함됨

교과목명에 검색 키워드가 없는 경우 포함시키지 않음

전북대학교	본교	대학	0230	예술대학	0008182	한국음악학과	한국전통성악 2	전공선택

한국전통성악 중 남도민요를 학습하여 노래할 수 있다. 장단에 대해서도 학습하며 민요의 지역적인 특색에 관해서도 학습한다.

교육과정_대학(20240305) 자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1	자료기준일: 2024.03.05.																	
2	※ 해당 자료의 학부·과(전공)명 리스트는 대학알리미 상에서 통계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보로서, 실제 대학에서 모집 및 운영하고 있는 학부·과(전공)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 교과목명은 해당 학부·과(전공)에서 2024학년도 기준 신입생이 수업연한 동안 학습할 전공 교과목을 의미하며, 실제 개설 및 설강되는 교과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학교의 상황에 따라 교과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 학부(혹은 학과) 내에 여러 전공이 존재하고, 전공의 교육과정이 각각 존재하는 경우, 학교마다 ① '학부(혹은 학과)' 하위에 생성되는 '전공'의 교과목을 입력하거나, ② '전공'에 직접 교과목을 입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 ②의 경우로 입력한 경우, 모집단위인 '학부(혹은 학과)' 자체의 고유한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부(혹은 학과)'명이 본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 이수구분, 학점, 교과목해설 정보는 2023년도 상반기부터 조사한 자료입니다.																	
7																		
8																		
9	조사년도	조사차수	학교코드	학교명	본분교명	학교구분	단과대학	단과대학	학부·과(전	학부·과(전공)'	주야구분	학부특성	학과상태	교육과정	이수구분	학점	교과목해	
10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노인간호학	전공필수	1		
11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핵심간호시뮬레이션	전공필수	1		
12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여성건강간호학임상	전공필수	2		
13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여성건강간호학1	전공필수	3		
14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아동간호학임상실습	전공필수	2		
15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아동간호학1	전공필수	2		
16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성인간호학임상실습	전공필수	2		
17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성인간호학2	전공필수	2		
18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성장기간호	전공선택	2		
19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성인간호학1	전공필수	2		
20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기본간호학실습2	전공필수	1		
21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기본간호학2	전공필수	2		
22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건강사정실습	전공필수	1		
23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건강사정	전공필수	1		
24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여성건강증진	전공기초	1		
25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기초간호과학5	전공기초	2		
26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간호정보학	전공선택	2		
27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역학과건강증진	전공선택	2		
28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학교보건	전공선택	2		
29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성인간호학4	전공필수	2		
30	2024	01	0002748	가야대학교(본교		대학	0999	단과대구분없	0208655	간호학과	주간	일반과정	기존	간호연구	전공선택	1		

지역 대학 및 호남학 유관 학과 현황

지역 대학 현황

- 33개 대학
(전문대학 제외)
  - 광주 11개,
  전남 11개,
  전북 11개

No	학교명	본분교	대학구분	설립구분	위치	보유학과(2023)	보유학과(2024)
1	광신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광주	5	5
3	광주과학기술원	본교	대학	특별법법인	광주	8	9
4	광주교육대학교	본교	대학	국립	광주	14	14
5	광주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광주	46	45
6	광주여자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광주	27	31
8	남부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광주	19	19
14	송원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광주	18	18
22	전남대학교	본교	대학	국립	광주	98	97
27	조선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광주	109	107
31	호남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광주	47	58
32	호남신학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광주	3	3

지역 대학 현황

- 33개 대학
  - 광주 11개,
  전남 11개,
  전북 11개

No	학교명	본분교	대학구분	설립구분	위치	보유학과(2023)	보유학과(2024)
2	광주가톨릭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남	1	1
9	동신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남	44	45
10	목포가톨릭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남	3	3
11	목포대학교	본교	대학	국립	전남	75	86
12	목포해양대학교	본교	대학	국립	전남	12	14
13	세한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남	24	28
15	순천대학교	본교	대학	국립	전남	66	62
16	영산선학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남	1	1
23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	대학	국립	전남	35	35
28	초당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남	17	28
29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본교	대학	특별법법인	전남	1	1

지역 대학 현황

- 33개 대학
  - 광주 11개, 전남 11개, 전북 11개

No	학교명	본분교	대학구분	설립구분	위치	보유학과(2023)	보유학과(2024)
7	군산대학교	본교	대학	국립	전북	58	72
17	예수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북	1	1
18	예원예술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북	8	9
19	우석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북	59	60
20	원광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북	82	78
21	원광디지털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북	21	21
24	전북대학교	본교	대학	국립	전북	137	138
25	전주교육대학교	본교	대학	국립	전북	13	13
26	전주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북	74	102
30	한일장신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북	9	9
33	호원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북	43	44

지역 대학 현황

- 교육과정 개편 중: 보유 학과 수(2023년, 2024년 비교)
  - 2023년 대비 감소 5개, 증가 14개, 동일 14개

  - 증가 수가 많은 것은 세부 전공을 아우르는 광역 모집단위가 신설되었기 때문

  - 보유 학과 수가 동일한 학교는 소규모 or 특수 목적 학교

No	학교명	본분교	대학구분	설립구분	위치	보유학과(2023)	보유학과(2024)
1	광신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광주	5	5
2	광주가톨릭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남	1	1
4	광주교육대학교	본교	대학	국립	광주	14	14
8	남부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광주	19	19
10	목포가톨릭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남	3	3
14	송원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광주	18	18
16	영산선학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남	1	1
17	예수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북	1	1
21	원광디지털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북	21	21
23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	대학	국립	전남	35	35
25	전주교육대학교	본교	대학	국립	전북	13	13
29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본교	대학	특별법법인	전남	1	1
30	한일장신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전북	9	9
32	호남신학대학교	본교	대학	사립	광주	3	3

호남학 유관 학과 현황 - 역사 · 고고학

- (역)사학과, 역사문화학과, 역사콘텐츠학과: 9개

No	학과명	학교명	구분	학교종류	학교지역	소재지	소재지(상세)	설립구분
1	K-남도문화학과(주간)	동신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남	전남	나주시	사립
14	사학과(주간)	국립순천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남	전남	순천시	국립
15	사학과(주간)	전남대학교	본교	대학교	광주	광주	북구	국립
16	사학과(주간)	전북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북	전북	전주시	국립
24	역사문화학과(주간)	원광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북	전북	익산시	사립
25	역사문화학과(주간)	조선대학교	본교	대학교	광주	광주	동구	사립
26	역사콘텐츠(주간)	국립목포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남	전남	무안군	국립
27	역사콘텐츠학과(주간)	전주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북	전북	전주시	사립
28	역사학과(주간)	국립군산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북	전북	군산시	국립
33	인문콘텐츠학부(주간)	국립목포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남	전남	무안군	국립

호남학 유관 학과 현황 - 역사 · 고고학

o K-남도문화학과: 1개(동신대학교)

- 미래라이프대학 소속, 대학 평생교육체제 사업 선정학과
- 성인학습자 친화형 하이브리드 교육체제로서 온라인 콘텐츠 강좌와 함께 주말(야간) 시간대 맞춤형 강좌를 운영하고 산업체 현장실무교육을 병행하는 산학연 연계교육

K-남도문화학과

Department of Namdo Culture

K-남도문화학과는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문화유산연구시설인 문화재연구동, 역사문화박물관인 복암리고분전시관, 영상미디어박물관인 대정문화박물관 등 차별화된 실무형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K-남도문화학과는 다양한 지역문화기관과 교육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여 실무·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남학 유관 학과 현황 - 문화 · 민속 · 미술사학

o 고고학, 콘텐츠, 기타 문화 관련 학과: 9개

No	학과명	학교명	구분	학교종류	학교지역	소재지	소재지(상세)	설립구분
2	고고문화인류학과(주간)	전북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북	전북	전주시	국립
3	국제차문화학과(야간)	국립목포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남	전남	무안군	국립
9	문화유산(주간)	국립목포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남	전남	무안군	국립
11	미네르바학부(문화콘텐츠전공)(주간)	전주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북	전북	전주시	사립
12	미디어문화학부(미디어문화전공)(주간)	국립군산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북	전북	군산시	국립
13	미디어문화학부(주간)	국립군산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북	전북	군산시	국립
32	웰빙건강학부(원격)	원광디지털대학교	본교	사이버대학(대학)	전북	전북	익산시	사립
35	차문화경영학과(원격)	원광디지털대학교	본교	사이버대학(대학)	전북	전북	익산시	사립
40	한국문화학부(원격)	원광디지털대학교	본교	사이버대학(대학)	전북	전북	익산시	사립

호남학 유관 학과 현황 - 국어 · 국문학

- 국어국문학과(부) : 8개

No	학과명	학교명	구분	학교종류	학교지역	소재지	소재지(상세)	설립구분
2	국어국문학(주간)	국립목포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남	전남	무안군	국립
3	국어국문학과(주간)	국립군산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북	전북	군산시	국립
4	국어국문학과(주간)	원광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북	전북	익산시	사립
5	국어국문학과(주간)	전남대학교	본교	대학교	광주	광주	북구	국립
6	국어국문학과(주간)	전북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북	전북	전주시	국립
7	국어국문학부(고전번역전공)(주간)	조선대학교	본교	대학교	광주	광주	동구	사립
8	국어국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주간)	조선대학교	본교	대학교	광주	광주	동구	사립
9	국어국문학부(주간)	조선대학교	본교	대학교	광주	광주	동구	사립

호남학 유관 학과 현황 - 국어 · 국문학

-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문학창작학부: 12개

No	학과명	학교명	구분	학교종류	학교지역	소재지	소재지(상세)	설립구분
10	국제학과(한국어학전공)(주간)	초당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남	전남	무안군	사립
12	국제한국어교육학과(주간)	국립순천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남	전남	순천시	국립
13	국제한국어학과(주간)	동신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남	전남	나주시	사립
14	글로벌복지한국어학과(주간)	세한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남	전남	영암군	사립
18	글로벌한국어교육학과(주간)	호남대학교	본교	대학교	광주	광주	광산구	사립
57	한국어교원학과(주간)	동신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남	전남	나주시	사립
58	한국어교육과(주간)	송원대학교	본교	대학교	광주	광주	남구	사립
59	한국어교육학과(주간)	광신대학교	본교	대학교	광주	광주	북구	사립
61	한국어문학창작학부(주간)	전주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북	전북	전주시	사립
62	한국어문학창작학부(한국어문학전공)(주간)	전주대학교	본교	대학교	전북	전북	전주시	사립
63	한국어문화학과(원격)	원광디지털대학교	본교	사이버대학(대학)	전북	전북	익산시	사립
64	한국어학과(주간)	남부대학교	본교	대학교	광주	광주	광산구	사립

호남학 유관 학과 현황(추가) - 사회과학

- 고고학 관련 학과: 1개
  -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주간)
  - 표준분류: 인문사회계열 – 사회과학 – 인류학

※ 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는 조사 방법 파트에 제시한 표준분류에 속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유관 학과에 포함시킴

호남학 유관 학과 현황

- 호남학 유관 학과 보유 대학: 33개 대학 중 16개 교

- 학과명 고수: 국립대, 일부 대형 사립대
  - (역)사학과(4): 순천대(국), 전남대(국), 전북대(국), 군산대(국)
  - 고고/문화/인류학과(2): 전북대(국), 전남대(국)
  - 국어국문학과(8/ 6개교): 목포대(국), 군산대(국), 전남대(국), 전북대(국), 원광대(사), 조선대(사)

- 학과명 변경: 융복합, 실용 학문 표방. 사립대, 일부 국립대
  - 역사문화, 콘텐츠, 문화유산, 한국어교육

호남학(지역학) 전공 교과목 현황 – 유관 학과

동신대학교 K-남도문화학과

- 학습시설
  - 동신대 영산강문화연구센터
  -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위탁운영)
- 전공분야
  - 마한백제·영산강역사
  - 남도문화관광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점 합계
공통	교양 교과목				3	3				6
	MD융합전공 교과목	3	3	3						9
전공분야 선택										
K-남도문화 전공	마한백제 · 영산강역사 전공 교과목	12	12	12	12	12	15	9	3	87
	남도문화관광 전공 교과목							9	3	87
복수 전공	K-남도문화+사회복지 복수전공 교과목	12	12	12	12	12	15	15	3	93
	K-남도문화+한국어교원 복수전공 교과목	12	12	12	12	12	15	15	3	93

ⓘ 졸업이수학점(100학점 이상), 일학습경험(관련기관, 관련산업체 근무자) 학점인정

동신대학교 K-남도문화학과

ㅇ교과과정

- 문화유산, 관광실무
- 평생교육

교육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양	신입생네비게이터 자율선택	진로탐색과설계 자율선택						
전공	· 남도고대문화유산 · 세계문화와사회 · 남도문화예술의이해	· 한국문화사 · 남도관광학개론 · 문화관광자원의이해	· 남도역사문화유산 · 해양사와남도문화 · 문화영상아카이브	· 세계문화유산의이해 · 문화유산과박물관 · 문화관광콘텐츠기획	· 문화유산관리학 · 문화관광콘텐츠제작 · 지역문화와미술관탐구	· 남도민속문화론 · 문화유산활용론 · 관광자원해설실무	· 문화유산교육학 · 역사문화자원기획과개발 · 남도관광상품기획	· 여행콘텐츠개발 · 역사문화유산현장탐방
MD		유튜브영상표현	유튜브영상기획	차와명상,건강	유튜브영상콘텐츠제작 차석과공간	차와예술,음악		

호남학(지역학) 전공 교과목 - 대학별

ㅇ전주대학교: 9개 교과목

- 역사학, 콘텐츠 중심

단과대학	학과	학과상태	전공 교과목
인문콘텐츠대학	역사콘텐츠학과	변경[신설]	(2학년) 지역문화콘텐츠기획실습 (4학년) 전라유교문화산책 (미상) 지역학과지역사 (미상) 호남지역의역사와문화
미래융합대학	미네르바학부 (문화콘텐츠전공)	변경[신설]	(3학년) 지역혁신과콘텐츠(PBL), 지역혁신서비스러닝 (4학년) 로컬문화자원탐색, 로컬비즈니스분석, 지역혁신과문화정책

호남학(지역학) 전공 교과목 - 대학별

ㅇ목포대학교: 6개 교과목(역사·고고학 중심)

단과대학	학과	학과상태	전공 교과목
인문대학	역사콘텐츠	신설	(2학년) 호남의역사와문화 (3학년) 한국지방사입문, 지역과역사콘텐츠
	문화유산	신설	(3학년) 세계체계와지역문화 (4학년) 호남고고학의제문제
	국어국문학	신설	(4학년) 국어의방언

ㅇ전남대학교: 6개 교과목(국어·국문학 중심)

단과대학	학과	학과상태	전공 교과목
인문대학	사학과	기존	(4학년) 지방사연구법
	국어국문학과	기존	(2학년) 지역어문학과문화융합(캡스톤디자인) (4학년) 로컬문학과고전문학 (3학년) 국어방언의이해와실제
사회과학대학	문화인류고고학과	기존	(2학년) 세계화와지역문화 (4학년) 지역사와고고학

호남학(지역학) 전공 교과목 - 대학별

ㅇ순천대학교: 5개 교과목(역사학 중심)

단과대학	학과	학과상태	전공 교과목
인문예술대학	사학과	기존	(2학년) 한국고전과지방사 (4학년) 고고학과지방사, 고문서와지역문화, 지역의문화유산
	국제한국어교육학과	기존	(4학년) 지역방언과한국어교육

ㅇ조선대학교: 5개 교과목(역사학 중심)

단과대학	학과	학과상태	전공 교과목
글로벌인문대학	역사문화학과	기존	(2학년) 호남의역사와문화(어드벤쳐디자인) (3학년) 지역사의전개와전망, 호남학실습(캡스톤디자인) (4학년) 호남학특강(캡스톤디자인)
	국어국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기존	(3학년) 한국어방언과문학

호남학(지역학) 전공 교과목 - 대학별

- 전북대학교: 4개 교과목

단과대학	학과	학과상태	전공 교과목
인문대학	사학과	기존	(2학년) 호남지역사
	고고문화인류학과	기존	(4학년) 백제문화의이해 (미상) 호남지역의문화유산
	국어국문학과	기존	(4학년) 방언과언어생활

- 원광대학교: 1개 교과목

단과대학	학과	학과상태	전공 교과목
인문대학	역사문화학과	기존	(3학년) 마한백제고고학

호남학(지역학) 전공 교과목 - 대학별

- 대형, 국립 대학 중심/ 사립대 특성화
  - 목포대(국), 전남대(국), 순천대(국), 전북대(국)
  - 동신대(사), 전주대(사), 조선대(사), 원광대(사)

- 역사·고고학 분야 중심: 콘텐츠, 문화유산, 관광
  한국어교육, 한국어문학창작 분야 미약

- 심화 교육과정 인식: 주로 학부 3~4학년 교육과정 편성

호남학(지역학) 전공 교과목 - 분야별

- 8개 대학의 호남학(지역학) 전공 교과목 성격에 따라 재분류

① 역사・고고학

- 인문・사회 계열 – 인문학 – 역사・고고학
  – 문화・민속・미술사학
  – 사회과학 – 인류학

② 국어・국문학

- 인문・사회 계열 – 언어・문학 – 국어・국문학

- 로그인 없이 강의계획서 볼 수 있는 주요 대학 교육내용 확인
  - 목포대,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호남학(지역학) 전공 교과목 ① 역사・고고학

- 지역학(일반): 6개 교 12개 교과목

	소재지	구분	단과대학명/학과명	전공 과목명
동신대학교	전남	사립	미래라이프대학/K-남도문화학과	지역문화와미술관탐구
목포대학교	전남	국립	인문대학/역사콘텐츠	한국지방사입문
			인문대학/문화유산	세계체계와지역문화
순천대학교	전남	국립	인문예술대학/사학과	한국고전과지방사, 고고학과지방사, 고문서와지역문화, 지역의문화유산
전남대학교	광주	국립	인문대학/사학과	지방사연구법
			사회과학대학/문화인류고고학과	세계화와지역문화, 지역사와고고학
전주대학교	전북	사립	인문콘텐츠대학/역사콘텐츠학과	지역학과지역사
조선대학교	광주	사립	글로벌인문대학/역사문화학과	지역사의전개와전망

목포대학교 한국지방사입문 강의계획서 (2024-2)

주별	강 의 내 용	강 의 목 표	수업방법 및 수업콘텐츠
제1주	지방사의 이론과 실습 강의 소개 지방사의 중요성과 관심도 토론	이론 강의, 수강생 질의 응답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라 온라인 강의로 대체 지방사 연구에 대한 개념 이해	
제2주	"지방사란 무엇인가?" 토론: 목포대학교 사학과와 지방사 연구활동, 한국사학계에서 지방사 연구동향과 발전과제 웹사이트를 활용한 지방사 연구 사료 분석과 습득하는 방법 소개 * 논문쓰기 요령1, 논문의 기획과 목차구상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라 온라인 강의로 대체	
제3주	지방제도의 변천과 지명, 읍지와 지도를 통한 지방사 이해 - 웹사이트를 활용한 지방사 연구 사료 분석과 습득하는 방법 소개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라 온라인 강의로 대체	
제4주	지방행정과 관리, 지방 경관변화의 이해와 연구방법 전남 지방사 연구 현황과 과제 분석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라 온라인 강의로 대체	
제5주	* 성씨와 촌락 연구방법 이해 * 논문쓰기 요령- 논문의 문장, 단락 구분, 각주 작성하기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라 온라인 강의로 대체	
제6주	* 근대도시의 형성과 발전 전남지방사 연구 현황과 과제 분석 * 논문쓰기 요령- 머리말 작성하는 방법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라 온라인 강의로 대체	
제7주	* 지방사 사료 검색 실습 및 수강생 경진대회 실시 * 논문쓰기 요령- 디지털 사료의 검색과 수집 요령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정보전산실에서 강의 진행 제시한 주제에 대한 사료 검색 및 수집하는 방법 실습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라 온라인 강의로 대체	
제8주	인구와 호적 전남지방사 연구 현황과 과제 분석 * 논문쓰기 요령- 맺음말 쓰는 방법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라 온라인 강의로 대체	
제9주	토지와 농업 전남 지방사 연구 현황과 과제 분석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라 온라인 강의로 대체	
제10주	지방에서의 상업과 시장, 향교와 서원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라 온라인 강의로 대체	
제11주	* 근대 생활사 연구 동향과 방법 * 지방사 논문쓰기 실습 점검과 토론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라 온라인 강의로 대체	
제12주	* 문화유적을 활용한 지방사 연구 방법 * 11월 17일 강의는 현장에서 교외교육을진행합니다. - 교육장소는 남원 일대입니다.	문화유산을 직접 답사하면서, 지방사 연구 활용법을 학습 문화유산과 지방사 연구와 관련성 학습	
제13주	지방사 연구 실습 논문 발표와 토론 - 학생들이 연구한 주제 발표 및 연구 방향과 수정사항 교육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대응 단계에 따라 온라인 강의로 대체	
제14주	지방사 연구 실습 논문 발표와 토론 - 학생들이 연구한 주제 발표 및 연구 방향과 수정사항 교육	대면	
제15주	지방사 연구 실습 논문 발표와 토론 - 학생들이 연구한 주제 발표 및 연구 방향과 수정사항 교육	대면	

전남대학교 지방사연구법 강의계획서 (2024-1)

주	수업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
1	강의소개: 지방사와 역사문화강의소개, 지방사와 역사문화자원 이해자원 이해	강의/실험실습	출석
2	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자료, 그리고 이용방법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관련기관 현황	강의/실험실습	출석
3	지역사 서사 분석1: 기념서사(전쟁영웅) -분석대상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분석자료는 스토리테마파크 활용	강의/토론/실험실습	출석/ 논평
4	현장방문1 -광주 내 사우 답사 및 교육 참여	강의/토론/실험실습	출석/참여
5	지역사 서사 분석2: 기념서사(문인) -스토리테마파크/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강의/토론/실험실습	출석/ 논평
6	현장방문2 -광주 내 서원 답사 및 교육 참여	강의/토론/실험실습	출석/참여
7	중간점검		
8	지역사 서사 분석3: 문화전통(물품) -국가문화유산포털	강의/토론/실험실습	출석/ 논평
9	현장방문3: 전시공간 -국립광주박물관 교육전시 참여	강의/토론/실험실습	출석/참여
10	지역사 서사 분석4: 문화전통(공동체)	강의/토론/실험실습	출석/ 논평
11	현장방문4: -아시아문화전당 교육전시 참여	강의/토론/실험실습	출석/참여
12	지역사 서사 분석5: 축제1 -한국관광공사 / 대한민국구석구석 활용	강의/토론/실험실습	출석/ 논평
13	지역사 서사 분석6: 축제2 -주요 축제 현황은 공공데이터 포털 문광부_지역축제/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강의/토론/실험실습	출석/ 논평
14	현장방문5: 역사유산 기반 축제 공간 방문	강의/토론/실험실습	출석/참여
15	최종점검		

조선대학교 지역사의전개와전망 강의계획서 (2024-1)

교과목개요 및 특징	우리 지역의 역사를 학습하기 위한 '지역사' 강의 중의 하나로, 전라도 지역 역사의 전개, 성격에 대해 심화 학습한다.
교과목표	0 전라도 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국사의 전개를 이해한다. 0 중앙과 지방, 보편과 특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성찰로 지역의 미래를 전망한다. 0 역사현실의 파악, 해석하는 과정을 이해하여 역사지식을 활용하고 성찰할 수 있다. - 근거자료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 어떤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여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의 이해한다
교과내용	0 전반기(중간시험 이전)는 교수자가 강의자료로 강의하고, 학생과 상호 논의 0 후반기(중간시험 이후)는 학생이 사전 배분된 담당 주제에 대해 과제 제출하고 발표, 논의 - 전반기의 1차 과제를 토대로 하반기의 주차별 발표 주제를 배분 - 기존 연구 성과('논문')를 바탕으로 각자 발표문(과제)을 작성하고, 선정된 1~2인이 발표 후 논의, 해설

1주 ~ 5주차별 수업운영 계획

주차	주제및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내용	수업방법
1주	수업 소개	0 수업 내용 및 방법 소개 0 한국사 공부법 *수업 일정 및 방법을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강의, 논의
2주	지역사의 인식과 방법 1	0 지역사의 개념과 범위 - 지역, 지방 -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 - 전라도, 호남, 남도, 광주 0 지역사 연구의 목적과 지향	강의, 논의 * 1차 과제 부과 - 교수자가 제시(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과제를 작성하여 제출 - 과제의 주제, 방법 등의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
3주	지역사의 인식과 방법 2	0 지역사의 전개와 연구 현황 0 지역사 지식의 활용 방법	강의, 논의 * 하반기 발표문 작성을 위한 자료 조사, 내용 정리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 - 특히, 기존 연구성과('논문')을 조사하여 정리,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
4주	지역사의 인식과 방법 3	0 지역, 지역사에 대한 인식 1	강의, 논의 * 1차 과제를 통하여 하반기 주차별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주차별 발표(과제) 담당자를 배분
6주	지역사의 인식과 방법 5	0 지역사 연구의 자료 1	강의, 논의
10주	지역사 주제 탐구 2	0 한국고대사와 지역사 2	주제 발표, 논의, 해설 - 위와 같음

전남대학교 지역사와고고학 강의계획서 (2024-2)

교재 및 참고자료

구분	저자	도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주교재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강의	사회평론 아카데미	2015
부교재	한국고고학회	한국 고고학 이해	진인진	2023

주별 수업계획서

주	수업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	자료·과제 기타
1	강의 소개	강의		
2	구석기시대	강의		
3	신석기시대(1)	강의		
4	신석기시대(2)	강의		
5	청동기시대(1)	강의		
6	청동기시대(2)	강의		
7	초기철기시대	강의		
8	중간고사			
9	원삼국시대(1)	강의		
10	원삼국시대(2)	강의		
11	삼국시대(1)	강의		
12	삼국시대(2)	강의		
13	통일신라와 발해	강의		
14	중근세 고고학의 현황	강의		
15	기말고사			

호남학(지역학) 전공 교과목 ① 역사 · 고고학

- 지역학(일반)
  - 역사학 분야의 경우, 호남 지역사 연구 방법론 교육
    지역사/지방사 개념과 범위,
    호남 지역 문헌 사료 및 문화유산의 현황
    호남 지역사에 대한 인식과 서사 구조
    호남 지역사 연구 현황과 과제, 논문 쓰기 연습
  - 고고학 분야의 경우, 호남학과는 직접적인 관련성 적음

호남학(지역학) 전공 교과목 ① 역사 · 고고학

- 지역학 콘텐츠(응용): 2개 교 7개 교과목

	소재지	구분	단과대학/학과	전공 교과목
목포대학교	전남	국립	인문대학/역사콘텐츠	지역과역사콘텐츠
전주대학교	전북	사립	인문콘텐츠대학/역사콘텐츠학과	지역문화콘텐츠기획실습
			미래융합대학/ 미네르바학부(문화콘텐츠전공)	지역혁신서비스러닝 지역혁신과콘텐츠(PBL) 로컬문화자원탐색 로컬비즈니스분석 지역혁신과문화정책

호남학(지역학) 전공 교과목 ① 역사 · 고고학

o 지역학 콘텐츠(응용)

- 강의계획서 확인 불가. 교육과정(2024) 교과목해설 참조

- 지역과역사콘텐츠(목포대): 향토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역사콘텐츠로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탐구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심화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실무능력을 함양한다.

- 지역문화콘텐츠기획실습(전주대):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를 기획하는 방법을 이론 학습과 실습을 통해 습득한다. 지역 문화콘텐츠의 개발 사례를 탐구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의 특징을 도출하여, 그 특징에 맞는 콘텐츠 개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콘텐츠 개발 기획서를 작성한다.

호남학(지역학) 전공 교과목 ① 역사 · 고고학

o 호남학(지역 특화): 6개 교 20개 교과목

	소재지	구분	단과대학/학과	전공 교과목
동신대학교	전남	사립	미래라이프대학/K-남도문화학과	해양사와남도문화, 남도역사문화유산, 남도문화예술의이해, 남도문화사, 남도문화유산현장탐방, 남도관광학개론, 남도고대문화유산, 남도민속문화론, 남도관광상품기획
목포대학교	전남	국립	인문대학/역사콘텐츠	호남의역사와문화
			인문대학/문화유산	호남고고학의제문제
원광대학교	전북	사립	인문대학/역사문화학과	마한백제고고학
전북대학교	전북	국립	인문대학/사학과	호남지역사
			사회과학대학/고고문화인류학과	호남지역의문화유산, 백제문화의이해
전주대학교	전북	사립	인문콘텐츠대학/역사콘텐츠학과	호남지역의역사와문화, 전라유교문화산책
조선대학교	광주	사립	글로벌인문대학/역사문화학과	호남의역사와문화, 호남학실습, 호남학특강

전북대 호남지역사 강의계획서 (2024-1)

1. 강의 기본정보

수업목표	선사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호남지역의 역사를 개관하고, 전국 단위의 한국사의 통사 강의에서 외면되었던 지역사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가함으로써 호남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얻도록 하고자 한다.

주별 강의내용

주별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식
1주	호남지역의 역사적 연혁과 권역의 성립	호남의 범위와 명칭 유래, 호남의 자연환경과 역서적 연혁, 호남권역의 성립과 변천	강의
2주	호남지역의 선사문화	호남지역의 구석기문화, 호남지역의 신석기문화, 호남지역의 무문토기와 청동기문화	강의
3주	마한의 역사와 삼한정통론	마한의 성립과 그 시기, 마한의 사회와 문화, 고조선 준왕의 남천과 마현의 변천, 백제의 흥기와 마한의 통합, 조선 후기 삼한정통론	강의
4주	백제의 금마 경영과 미륵사 창건	백제 무왕의 미륵사 창건경위, 미륵사지의 가람구조와 사리장엄, 백제 문왕의 금마 왕도경영과 그 의미	강의
5주	후백제 흥망의 역사와 전라도	견훤의 등장과 후백제 건국, 후백제의 발전과 후삼국 항쟁, 후백제 멸망과 지역사적 영향	강의
6주	고려시대 전주 관향성씨의 동향	고려시대 전주 지역 사족 형성의 배경, 고려시대 본관제와 전주 관향성씨, 고려시대 전주 관향성씨의 세족화	강의
7주	고려말 왜구와 황산대첩	고려말 왜구와 전라도, 진포대첩과 이성계의 황산대첩, 황산대첩의 현장과 황산대첩비지	강의
8주	중간시험	중간시험	중간시험

주별 강의내용

주별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식
9주	조선왕조의 패향 전주	조선왕조의 본향 전주, 경기전과 조경묘의 건립, 대한제국기 패향 기념물의 설치	강의
10주	정여립의 모반사건과 기축옥사	호남 사림의 형성과 정치적 동향, 정여립의 모반 사건과 실상, 기축옥사와 지역사적 영향	강의
11주	임진왜란 극복에 있어서 호남의 역할	임란 위기 극복의 의미아 호남국가보장론, 임란기 호남의 국가보장으로서 역할, 임란초기호남방어와 그 의의	강의
12주	정유재란과 전라도	강화교섭의 결렬과 일본의 재침, 정유재란 남원성전투와 명량대첩, 조명연합군의 반격과 왜교정전투	강의
13주	조선 후기 전주부성과 전라감영	조선 후기 전주부성과 성곽구조, 전주부성의 가로망과 도시구조, 전라감영 공간구조와 관아시설	강의
14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전라도	동학농민혁명 발생 배경, 고부봉기와 3월 혁명, 보국안민의 9월 봉기	강의
15주	기말시험	기말시험	기말시험

목포대 호남고고학의제문제 강의계획서 (2024-2)

주별	강 의 내 용	강 의 목 표	수업방법 및 수업콘텐츠
제1주	- 강의 계획 및 개요	본 강의의 목적을 이해하고 강의 중 필요한 내용을 숙지한다.	졸업논문 주제를 기초로 호남고고학의 제문제 토의
제2주	호남고고학의 쟁점과 과제 1: 구석기시대 최근 10년간 역사시대 호남지역과 관련된 논문과 발표 목록을 팀별로 발표하고, 본인 연구와 관련된 주요논문을 발표한다.	호남지역의 구석기시대의 특징을 이해한다.	발표 및 토론 구석기시대 팀의 최신 연구경향에 대한 발표 구석기시대 팀원의 본인 연구와 관련된 최신 연구성과 개별 발표
제3주	호남고고학의 쟁점과 과제 2: 신석기시대 최근 10년간 역사시대 호남지역과 관련된 논문과 발표 목록을 팀별로 발표하고, 본인 연구와 관련된 주요논문을 발표한다.	호남지역의 신석기시대의 특징을 이해한다.	발표와 토론 신석기시대 팀의 최신 연구경향에 대한 발표 신석기시대 팀원의 본인 연구와 관련된 최신 연구성과 개별 발표
제4주	호남고고학의 쟁점과 과제 3: 청동기시대 최근 10년간 역사시대 호남지역과 관련된 논문과 발표 목록을 팀별로 발표하고, 본인 연구와 관련된 주요논문을 발표한다.	호남지역의 청동기시대의 특징을 이해한다.	발표와 토론 청동기시대 팀의 최신 연구경향에 대한 발표 청동기시대 팀원의 본인 연구와 관련된 최신 연구성과 개별 발표
제5주	- 졸업논문 진행사항 1차 보고(1회차)	- 발표 및 토론 4~5주에 걸쳐 졸업논문 진행사항 제출 및 순번에 따른 전원 발표	발표자는 본인의 졸업논문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사와 목적, 그간 진행사항을 제시한다.
제6주	- 졸업논문 진행사항 1차 보고(2회차)	- 발표 및 토론 4~5주에 걸쳐 졸업논문 진행사항 제출 및 순번에 따른 대상자 발표	- 발표자는 본인의 졸업논문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사와 목적, 그간 진행사항을 제시한다.
제7주	호남고고학의 쟁점과 과제 4:초기철기~원삼국시대 최근 10년간 선사시대 호남지역과 관련된 논문과 발표 목록을 팀별로 발표하고, 본인 연구와 관련된 주요논문을 발표한다.	초기철기~원삼국시대 호남지역 최신 연구경향의 이해	이 시대에 대한 최신 연구경향에 대한 발표 본인 연구와 관련된 최신 연구성과 개별 발표
제8주	호남고고학의 쟁점과 과제 4:삼국~통일신라시대 최근 10년간 역사시대 호남지역과 관련된 논문과 발표 목록을 팀별로 발표하고, 본인 연구와 관련된 주요논문을 발표한다.	삼국~통일신라시대 호남지역 최신 연구경향의 이해	역사시대 팀의 최신 연구경향에 대한 발표 역사시대 팀원의 본인 연구와 관련된 최신 연구성과 개별 발표
제9주	- 졸업논문 2차 발표(1회차) - 1차 발표에 준하여 진척사항에 준하여 교원에 의해 발표자 지정	- 논문 완성도 점검 - 11월 학술심포지움 발표자 선정	- 지정된 발표자의 발표와 토론, 코멘트 등 진척사항 점검
제10주	- 졸업논문 2차 발표(2회차) - 미발표자의 경우 토론자 지정 후 질의	- 지정된 발표자의 발표와 토론, 코멘트 등 진척사항 점검	- 지정된 발표자의 발표와 토론, 코멘트 등 진척사항 점검
제11주	- 졸업논문 3차 발표(1회차) - 2차 발표에 준하여 진척사항에 준하여 교원에 의해 발표자 지정 - 심포지엄 대상자 예비발표	- 지정된 발표자의 발표와 토론, 코멘트 등 진척사항 점검	- 지정된 발표자의 발표와 토론, 코멘트 등 진척사항 점검
제12주	- 졸업논문 3차 발표(2회차) - 2차 발표에 준하여 진척사항에 준하여 교원에 의해 발표자 지정 - 심포지엄 대상자 예비발표	- 지정된 발표자의 발표와 토론, 코멘트 등 진척사항 점검	- 지정된 발표자의 발표와 토론, 코멘트 등 진척사항 점검 - 심포지엄 대상자 프리젠테이션 내용의 피트백
제13주	- 졸업논문 4차 발표(1회차) - 3차 발표에 준하여 진척사항에 준하여 교원에 의해 발표자 지정 - 졸업논문발표회 대상자 선정 - 심포지업 기발표자는 토론자 역할 수행	- 졸업논문 완성도 고취	- 지정된 발표자의 발표와 토론, 코멘트 등 진척사항 점검 - 졸업논문발표회 대상자 프리젠테이션 내용의 피트백
제14주	- 졸업논문 4차 발표(2회차) - 3차 발표에 준하여 진척사항에 준하여 교원에 의해 발표자 지정 - 졸업논문발표회 대상자 선정 - 심포지업 기발표자는 토론자 역할 수행	- 졸업논문 완성도 고취	- 지정된 발표자의 발표와 토론, 코멘트 등 진척사항 점검 - 졸업논문발표회 대상자 프리젠테이션 내용의 피트백
제15주	졸업논문발표회 지적사항 수정 보고 및 졸업논문 미발표자 최종 발표	졸업논문 완성 후 제출	심포지엄, 졸업논문발표회 기발표자 최종 점검 및 미발표자에 대한 최종발표 승인여부 결정

전북대 백제문화의이해 강의계획서 (2024-1)

수업목표	이 강의의 목적은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백제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백제사를 올바로 인식하고 또한 백제의 영토였던 호남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백제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하였는지 그 과정을 여러 고고학적 주제와 주요 유적 및 유물을 통해 자세히 살필 것이며 아울러 일본 등 주변국의 고대문화와 백제와의 관계 또한 함께 살펴볼 것이다.

주별 강의내용

주별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식
1주	백제문화의 이해(서론)1	백제 고고학 연구사, 백제문화의 특성	대면 강의
2주	백제문화의 이해(서론)2	백제고고학 연구 현황과 쟁점	대면 강의
3주	백제 도성의 전개 과정과 특징1	한성기(풍납토성과 몽촌토성)	대면 강의/발표
4주	백제 도성의 전개 과정과 특징2	웅진기	대면 강의/발표
5주	백제 도성의 전개 과정과 특징3	사비도성(부소산성, 관북리 유적 등)	대면 강의/발표
6주	백제의 사찰	사비기 사찰의 발굴조사 성과	대면 강의/발표
7주	사비도성의 사찰1	정림사지 등	대면 강의/발표
8주	중간 정리	중간 정리	대면 강의
9주	사비도성의 사찰2	백제 사비기 가람배치와 국제 교류	대면 강의/발표
10주	백제의 또 다른 왕궁	익산 왕궁의 구조와 특징, 백제 왕궁의 원지와 후원	대면 강의/ 발표
11주	익산의 사찰	미륵사지, 제석사지	대면 강의/발표
12주	백제 고분1	백제 왕릉	대면 강의/발표
13주	백제 고분2	백제 지방 고분의 변천과정과 의미	대면 강의/발표
14주	백제의 문물교류	해상교통로, 왜와의 교류 등	대면 강의/발표
15주	기말고사	기말고사	단답식

조선대학교 호남의역사와문화 강의계획서 (2023-2)

1. 호남 지역의 역사 문화 유산을 조사하고 일일 답사를 기획, 실행한다.
2. 역사 문헌 자료를 조사해 호남 지역 일일 답사 자료집 및 팜플렛을 만든다.
- 답사를 통해 호남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현대 사회에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출석일	강의내용	비고
1	9.4(월)	강의소개	
2	9.11(월)	답사란 무엇인가 - 지역성과 역사성	강의, 팀 구성 및 역할 배분
3	9.18(월)	영암 역사문화 유산 조사	조모임, 조별 면담
4	9.25(월)	영암 역사문화 유산 조사	조모임, 조별 면담
5	10.16(월)	중간보고 - 영암 역사문화 유산 조사	조별 발표 (영암의 주요 역사문화 유산과 지역성)
6	10.23(월)	중간고사	영암 강진 역사문화 유산
7	10.30(월)	영암 관광 프로그램 기획 - 주제 탐구 및 코스 기획	조모임, 조별 면담
8	11.6(월)	영암 관광 프로그램 기획 - 주제 탐구 및 코스 기획	조모임, 조별 면담
9	11.13(월)	답사 자료집 작성	조모임, 조별 면담, 개별 면담
10	11.20(월)	답사 자료집 작성	조모임, 조별 면담, 개별 면담
11	11.27(월)	최종보고 - 일일답사 주제, 코스, 자료집	관광 프로그램 기획안 발표
12	12.4(월)	현장학습	•12월 1, 2, 8, 9일 중
13	12.12(화) 10.2보강	현장학습	•12월 1, 2, 8, 9일 중
14	12.14(목) 한글날보강	현장학습	•12월 1, 2, 8, 9일 중
15	12.18(월)	기말고사	일일답사 평가 및 보완점

조선대학교 호남학실습 강의계획서 (2022-2)

교과목개요 및 특징	지역사(학) 강의 중의 하나로, 호남의 역사, 문화와 관련한 특정 주제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거나 공공을 위해 응용하는 과정을 실습한다. * 링크(LINC)3.0 사업단의 캡스톤디자인 지정(실습예산 지원) 수업 -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기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여 실행해 봄으로써 창의력, 실무역량, 팀워크, 리더쉽 등을 배양하는 수업 * 수강생은 학과 학술답사 참여 신청 우선권 부여
교과목표	0 지역의 역사, 문화 관련 주제를 조사, 분석하여 기획, 연구, 응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0 과제를 실행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 기획, 연구, 응용 역량을 배양한다. 0 역사 지식을 조사, 분석, 활용하는 방법의 학습을 통해 역사 현실을 해석하고 성찰할 수 있다. - 근거 자료를 통한 사실 파악, 사실 기술과 의미 해석의 분석, 기존 지식의 체계적 활용, 기존 관점의 비판적 성찰, 공공을 위한 응용
교과내용	0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 분석, 기획, 연구, 응용함으로써, 사회(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또는 '콘텐츠'를 보고서, 책자, 웹, SNS 등등의 적합한 형태로 산출한다. - 대상 지역 : 광주광역시 - 대상 범위 : 전통시기(근대이전) 역사, 문화 - 성과 목표 : 공공에 기여하는 '지식' 또는 '콘텐츠'의 산출 - 수업 방식 : 캡스톤디자인 (학생의 팀 단위 성과 산출을 원칙으로 하되, 교수자의 공동 기획 및 지도)

주차별 수업 운영 계획

주차	주제 및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내용	수업방법	기타사항 및 읽기자료
1주	0 수업 소개	0 수업 소개 - 수업 계획, 방식, 지향 등의 설명 - 캡스톤디자인 수업 진행 방식의 설명 * 과제 기획과 성과 산출의 방향, 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안내, 논의, 지도 예정 * 이 수업 계획은 수강 인원, 과제 설정, 성과 목표, 진행 상황 등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캡스톤디자인수업 성적등급 비율 - A+~A : 30% 이하 - B+~B : 60% 이하 - C+~F : 10% 이상	0 강의, 논의 # 수업 참고사항 0 과제 유형별 지원사항 - 일반형 : 1인당 10만원 - 기업(기관)연계형 : 1인당 30만원 0 예산 사용방법 - 학생들이 LINC3.0 사업단에 과제신청 후 정산서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 0 협력 기관 (* 첨부한 협약서 참조) -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사업본부 : 광주지역 지리지,읍지 자료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체계적 정리 방안 - (주)청람문화유산연구원 : 광주지역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전통 역사문화 자원의 체계적 조사, 정리 방안 - 광주광역시 동구청 문화관광과 : 광주 동구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한 전통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 방안	* 코로나19 방역 지침 등에 따라 수업 일정, 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주	0 조사, 기획 1	0 조사, 분석 - 대상 : 광주광역시의 역사, 문화 (근현대 제외) - 범위 1) 학술 분야 (학술 서적, 논문, DB 등) 2) 응용 분야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기업 등의 각종 산출물) 0 기획 - 목적 : 지역 사회(공공)에 기여하는 역사, 문화 지식 및 콘텐츠의 산출 - 방법 : 학생의 의견, 참여를 중심으로 하되 교수자가 주도	0 강의 - 기존 현황, 기획 방향과 관련한 지식, 방법 등에 대한 강의 0 논의 - 각 학생의 개별 조사를 바탕으로 공동 논의 - 기존 현황과 기획 방향에 대한 자유 토의(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1)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2)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3) 무엇을 할 것인가?	* 9.12(월): 추석 대체공휴일

호남학(지역학) 전공 교과목 ① 역사 · 고고학

o 지역학과 호남학

- 호남: 목포대, 전북대, 전주대, 조선대 / 남도: 동신대

→ 광주·전남·전북 모두 우리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호남'을 선호함

→ 역사학은 지역학 교과목도 대개 호남 지역을 다루므로 구별 약함

o 현장, 지역사회 밀착형 교과

- 고고학 강점: 지역의 문화유산. 마한 및 백제 고고학

- 링크3.0사업단: 산학연 협력,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인재 양성

o 근현대 지역사 교육 부족

호남학(지역학) 전공 교과목 ② 국어 · 국문학

ㅇ방언학(일반): 4개 교 4개 교과목

	소재지	구분	단과대학/학과	전공 교과목
목포대학교	전남	국립	인문대학/국어국문학	국어의방언
순천대학교	전남	국립	인문예술대학/국제한국어교육학과	지역방언과한국어교육
전남대학교	광주	국립	인문대학/국어국문학과	국어방언의이해와실제
전북대학교	전북	국립	인문대학/국어국문학과	방언과언어생활

ㅇ지역 문학(일반): 2개 교 3개 교과목

	소재지	구분	단과대학/학과	전공 교과목
전남대학교	광주	국립	인문대학/국어국문학과	로컬문학과고전문학 지역어문학과문화융합(캡스톤디자인)
조선대학교	광주	사립	글로벌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한국어방언과문학

목포대 국어의방언 강의계획서 (2024-1)

주별	강 의 내 용	강 의 목 표	수업방법 및 수업콘텐츠
제1주	1. 소개, 오리엔테이션 2. 교재 1장: 방언학의 배경1	1. 강의식 2. PPT	
제2주	1. 교재 1장: 방언학의 배경2 2. 교재 2장: 방언학의 방법1	1. 강의식 2. PPT	
제3주	1. 교재 2장: 방언학의 방법2 2. 교재 3장: 방언조사와 자료 처리1	1. 강의식 2. PPT	1장, 2장 퀴즈
제4주	1. 교재 3장: 방언조사와 자료 처리2	1. 강의식 2. PPT	
제5주	1. 교재 4장: 지리언어학1	1. 강의식 2. PPT	3장 퀴즈 발표 수업1
제6주	1. 교재 4장: 지리언어학2	1. 강의식 2. PPT	발표 수업2
제7주	1. 교재 5장: 사회방언학1	1. 강의식 2. PPT	4장 퀴즈
제8주	1. 교재 5장: 사회방언학1	1. 강의식 2. PPT	
제9주	1. 교재 5장: 사회방언학2	1. 강의식 2. PPT	발표 수업3
제10주	1. 교재 6장: 한국어 지리방언학1	1. 강의식 2. PPT	5장 퀴즈 발표 수업4
제11주	1. 교재6장: 한국어 지리방언학2	1. 강의식 2. PPT	
제12주	1. 교재 6장: 한국어 지리방언학3 2. 교재 7장: 방언학의 학제적 연구1	1. 강의식 2. PPT	
제13주	1. 교재 7장: 방언학의 학제적 연구2 2. 학생 발표1	1. 강의식 2. PPT	6장 퀴즈
제14주	학생 보고서 작성 및 발표 -> 피드백	1. 강의식 2. PPT	
제15주	1. 기말시험	1. 비대면 수업의 경우, 오픈북 2. 정해진 시간에 LMS를 이용하여 시험 실시	

전북대 방언과언어생활 강의계획서 (2024-1)

주별	주별 강의내용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식	자료,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주	방언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방언이란 무엇인가?: 정의, 개념 변천	강의	
2주	방언학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방언학이란 무엇인가?: 영역, 연구의 흐름	강의	
3주	방언 조사의 절차 및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방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조사지점, 조사항목(질문지), 제보자, 조사자, 질문, 전사와 녹음	강의	
4주	방언 조사의 실제 및 방언 자료의 정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방언 조사의 실제, 방언 자료의 정리	강의	
5주	방언 구획론을 이해할 수 있다.	방언 구획론: 등어선, 방언지도, 방언구획	강의	
6주	개별 방언론을 이해할 수 있다.	개별 방언론: 체계, 대방언권의 특징	강의	과제(주변 지인의 말 관찰하기)
7주	방언 분화론을 이해할 수 있다.	방언 분화론: 개신파, 방언분화, 방언분포	강의	
8주	중간고사	중간고사	대면시험	
9주	방언 접촉론을 이해할 수 있다.	방언 접촉론: 방언 접촉, 경계, 언어변화	강의	
10주	사회 언어학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 언어학이란 무엇인가?: 영역, 조사 방법	강의	
11주	미시 사회 언어학을 이해할 수 있다.	미시 사회 언어학: 언어변이, 언어분화, 언어선택	강의	
12주	거시 사회언어학을 이해할 수 있다.	거시 사회 언어학: 언어태도, 언어 보존과 사멸	강의	과제(방언이 반영된 문학 작품, 문화 콘텐츠 찾기)
13주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된 방언의 모습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발표: 문학 작품에 반영된 방언	발표	
14주	문화 콘텐츠 속에 반영된 방언의 모습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발표: 문화 콘텐츠에 반영된 방언	발표	
15주	기말고사	기말고사	대면시험	

전남대 로컬문학과고전문학 강의계획서 (2024-1)

주	수업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
1	▪오리엔테이션 및 총론	강의	수업참여도
2	▪호남을 배경으로 한 고소설: <만복사저포기>	강의+토의	수업참여도
3	▪호남을 배경으로 한 고소설: <최척전>, <춘향전>	강의+토의	수업참여도
4	▪호남을 배경으로 한 고소설 : <홍길동전>	강의+토의	수업참여도
5	▪호남을 배경으로 한 고소설 : <심청전>	강의+토의	수업참여도
6	▪호남을 배경으로 한 고소설 : <설공찬전>	강의+토의	수업참여도
7	▪지역문학으로서의 가치 제고 방안	발표수업	수업참여도
8	▪지역문학으로서의 가치 제고 방안	발표수업	수업참여도
9	▪호남인과 호남 실기문학 기축옥사와 정여립	강의+토의	수업참여도
10	▪호남 출신 인물의 임진왜란 실기: <간양록>, <금계일기>, <월봉해상록>	강의+토의	수업참여도
11	▪호남 출신 인물의 병자호란 관련 실기	강의+토의	수업참여도
12	▪호남을 배경으로 한 시가문학	강의+토의	수업참여도
13	▪호남을 배경으로 한 시가문학	강의+토의	수업참여도
14	▪호남을 배경으로 한 시가문학	강의+토의	수업참여도
15	▪기말고사		

조선대학교 한국어방언과문학 강의계획서 (2023-1)

교과목개요 및 특징	문제해결형수업(PBL)으로 한국어 하위 방언의 체계적 특징을 문학 작품을 통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향후 이 교과목은 최근 들어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한류 현상과 관련하여 한국어 방언의 특징과 문학 작품 반영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의 습득에 의해 학생들의 진로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교과목표	방언의 개념 및 방언의 언어학적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방언 연구 이론과 현장조사 방법론을 익히고, 방언을 재료로 쓰여진 문학 작품의 언어, 곧 문학방언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어 하위 방언의 구조와 체계를 이해한다.

8주	국어방언과 문학	방언의 기능과 문학	개인 발표 및 강의
9주	국어방언과 문학	{천변풍경}과 경기방언	개인 발표 및 강의
10주	국어방언과 문학	{태백산맥}과 전남방언	개인 발표 및 강의
11주	국어방언과 문학	{혼불}과 전북방언	개인 발표 및 강의
12주	국어방언과 문학	{관촌수필}과 충청방언	개인 발표 및 강의
13주	국어방언과 문학	{토지}와 경남방언	개인 발표 및 강의
14주	국어방언과 문학	{여자의 강}, {순이삼촌}과 제주방언	개인 발표 및 강의

호남학(지역학) 전공 교과목 ② 국어 · 국문학

- 방언학(일반) 중심
  - 방언학 이론 및 방언 조사 방법
  - 방언 조사 실습 또는 과제로 호남 지역 방언 연계

- 문학 콘텐츠와 연계
  - 호남을 배경으로 하거나 출신 인물이 지은 한문학
  - 방언이 활용된 문학 콘텐츠 분석

호남학(지역학) 전공 교과목 현황
- 기타 학과

검색 키워드 - '호남'

- 군산대 철학과, '호남지역의문화와사상'
- 조선대 아시아언어문화학부(철학전공), '호남문화와철학실습'
- 목포대 사학과, '호남문화론'

-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호남지역관광론'
- 전북대 지리교육과, '호남지역지리'

검색 키워드 - '남도'

- 목포대 교양학부,
  '남도의역사와문화', '남도무형문화유산의이해'
- 목포대 국어국문학과, '남도문학의이해'

- 목포가톨릭대 유아교육과, '남도문화와유아교육'
- 원광디지털대 전통공연예술학과, '남도민요실기'
- 전북대 한국음악학과, '남도잡가실습'

검색 키워드 – '광주', '전남', '전북'

- 우석대 미래융합대학
  스마트관광학과, '전북지역의이해'

-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로컬벤처학부, '전북의로컬문화'
  반려동식물학과, '전북의자연과반려문화'
  친환경자동차학과, '전북의모빌리티산업'

검색 키워드 – '지역', '로컬'

- 일반적 사례(→ 생략)

- 해외 지역: 일본지역, 동남아지역, 중남미지역 등
- 보건 복지: 지역사회(정신)간호학,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작업치료학, 지역사회구강보건학, 지역사회영양학 등
- 지역 개발, 계획, 산업: 지역개발론, 국토및지역계획, 지역전략산업론, 지역산업의 이해, 21세기새만금지역학 등

검색 키워드 – '지역', '로컬'

- 소수의 인문 사회 예술 계열 사례: 문화 콘텐츠 및 관광 산업 중심

- 목포대 교양학부, '지역사회디자인'
  관광학과, '지역축제와이벤트', '지역관광론', '로컬여행기획론'
  경영학, '소셜벤처와로컬콘텐츠'
  정치언론학, '지역사회와공공캠페인'
  시각디자인, '융합디자인프로젝트2: 디자인과지역사회'
  동아시아문화, '지역발전과차문화'
  문예창작, '지역문학콘텐츠연구'
  문화콘텐츠학, '지역문화콘텐츠의이해', '로컬콘텐츠와글로벌콘텐츠', '지역문화콘텐츠기획실습', '지역정체성과지역이미지'

검색 키워드 – '지역', '로컬'

- 순천대 미래융합학부, '지역물류와인문지리'
  행정학과, '지역혁신과문제해결(종합설계)1, 2'
  사진미디어학과, '로컬콘텐츠프로젝트'
  산림자원・조경학부(조경학전공), '지역연계조경실무'

- 전남대 건축도시설계전공(5년), '지역·문화·공간'
  건축디자인학과, '지역사회와건축문화'
  문화관광경영학과, '지역사회와축제경영'
  문헌정보학과, '지역문화정보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지역언론'
  사회학과, '지역사회학'
  수산해양산업관광레저융합학과, '지역관광개발론', '지역문화축제연구'

검색 키워드 – '지역', '로컬'

- 우석대 교양대학, '문화예술과지역문화정책의이해', '우리가락으로보고듣는지역공동체', '지역문화디지털콘텐츠제작', '지역문화의이해와소통', '지역역사문화이해', '로컬푸드의진화'
  지역기반도시재생융합전공, '지역재생과공공정책'
  스마트관광학과, '지역관광자원론', '지역관광창업', '로컬푸드의이해', '6차산업과로컬푸드1, 2', '로컬푸드리터러시'

- 전북대 경영학과, '지역기업사례연구'
  지역산업학과, '지역기업경영론'
  산업디자인학과, '지역디자인워크샵', '지역혁신디자인실무', '지역혁신디자인응용'
  융합학부(예술융합창작전공), '로컬아트클러스터'

- 전주대 로컬벤처학부, '지역조사방법론', '로컬콘텐츠현장실습', '로컬콘텐츠제작리빙랩', '로컬서비스러닝', '로컬콘텐츠사례연구', '로컬산업과로컬크리에이터', '전북의로컬문화', '로컬창업소재개발', '로컬콘텐츠의이해'

검색 키워드 – '지역', '로컬'

- 광주대 문헌정보학과, '지역문화콘텐츠론'

- 예원예술대 교양학부, '지역학과문화콘텐츠'
  (전공 공통), '지역프로젝트'

- 조선대 공공서비스학부(문화여가서비스전공), '지역문화콘텐츠'
  국어교육과, '지역사회와연계한국어교육'

- 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지역사회와언론'

- 호원대 K-콘텐츠제작학과, '지역콘텐츠포트폴리오제작', '지역콘텐츠현장실습', '글로컬콘텐츠사례연구'
  호텔외식조리학과, '로컬푸드활용실습'

마무리

대학(학부)의 호남학 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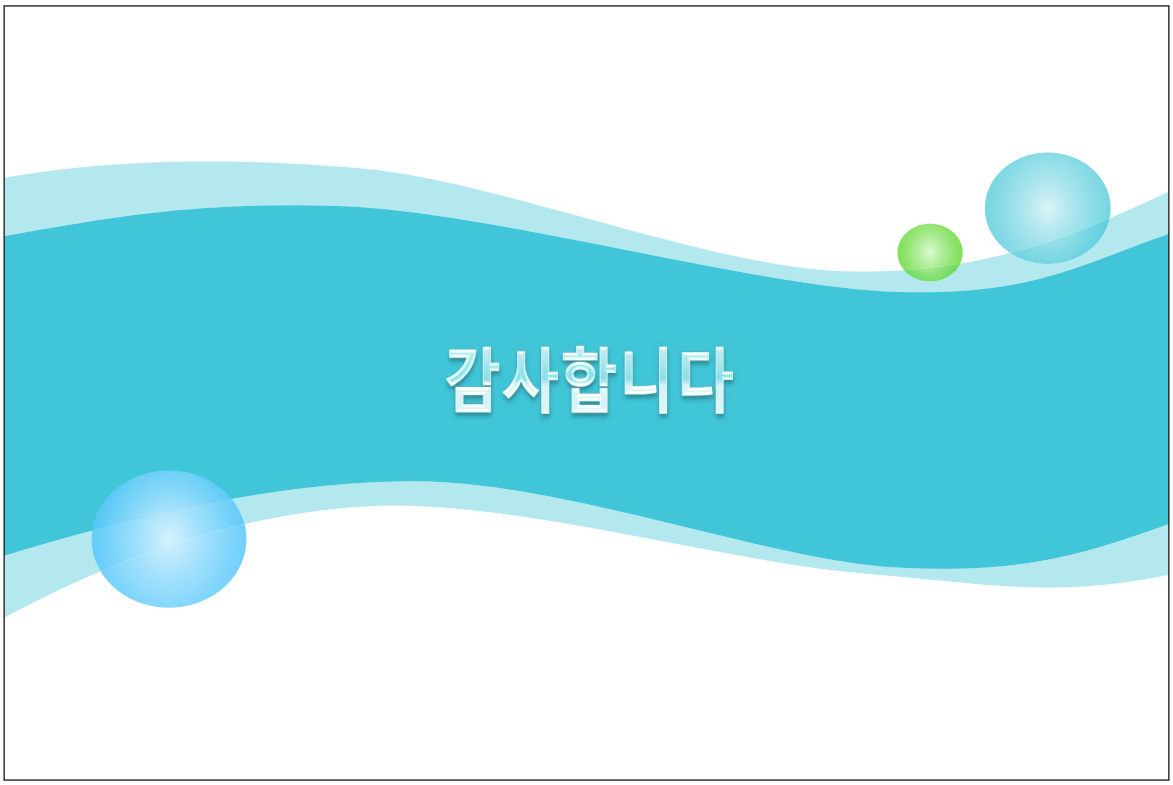
- 인문 사회 계열 학과
  - 역사·고고학 – 역사학 계열: '지역', '지방', '호남'
    고고학 계열: '호남', '마한', '백제'
    – 전근대 역사, 문화유산(유물·유적) 중심
  - 국어·국문학 – 지역 방언, 지역 문학
  - 국립대학 및 대형 사립대학: 학문적 접근 + 콘텐츠, 관광

- 소규모, 사립대학: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응용 특화

대학(학부)의 호남학 교육 과제

- 호남학 학문 후속 세대 양성
  - 학부 전공 교육과정의 호남학 교육 기관 및 시간 태부족
  - 연계 전공 활용, 학교 간 교류 활성화, 대학원생 지원

- 공공역사 교육 및 역사/문화 비평 강화
  - 연구(부족)와 응용 산업(활성화) 사이의 괴리
  -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가 → 응용의 과정과 효과는 바람직한가
  - 사회 갈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호남학 연구진흥 모색


감사합니다

제3차
호남학
연구포럼

우리가 가꾸는 지역학 풍경

주제발표 2

근대성 성찰과 지역학 교육

김 창 규 전남대학교

근대성 성찰과 지역학 교육

김창규(전남대학교)

1. 지방, 지역, 로컬
2. 지역학 교육의 실제
3. 지역학 연구와 교육의 방향
4. 비판적 지역학 교육의 조건
5. 정리 및 제언

1. 지방, 지역, 로컬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지방'은 중앙에 맞선 말로, 중앙과 지방은 상위와 하위의 개념이다. 곧 지방은 중앙에 종속된 개념이고, 지방사는 국가사에 상대적 개념이다. 이와 달리 지역은 개별 단위로 독립성을 지니기 때문에 국가, 중앙과는 직접적인 상관성이 덜한 독립된 범주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지방이 중앙에 종속된 개념이란 점에서 이견이 없다.[1)]

중심과 주변이라는 관계는 근대국가 형성의 주요 요인이었다.[2)] 지역 혹 지방으로 불리는 하부는 국지적 단위로 파악되었고 동시에 계몽의 대상으로 위치하면서 중심화의 기제를 강화하는데 호출되었다.[3)]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 따르면 국민국가는 "하나의 공간, 즉 민족국가의 공간"을 생산했고, 그것은 수직성과 포위성을 갖는 상명하달식(top down) 위계적 구조였다. 이 위계적 구조를 달리 표현하자면, 국제공동체(international community) → 민족국가(nation state) → 넓은 지역(region) → 작은 로컬리티(locality)라는 형식의 위계성을 갖는다. 나아가 국민국가의 개인의 사고나 감성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동일성의 원리를 이상으로 삼았고, 균질화·평준화된 공간을 만들어 중앙과 대비되는 지방을, 중심과 차별화된 주변이라는 구조를 만들었다.[4)]

국민국가는 로컬을 동질화하고, 로컬의 이질성을 억압했으며, 로컬의 시간을 민족적 시간 속으로 통합했다. 중심의 주변화 전략에 의해 구성된 주변성은 마치 영원한 낙인처럼 자신의 체제 속에 각인되었다. 그럼으로써 지방은 진보에서 낙인된 후진의 장, 자본주의 문명의 역동성과는 대립적인 시골적 정체성의 장, 보편적·합리성에 대립되는 특수주의 문화영역, 근대성의 형식인 민족국가의 완전한 실현의 장애로 인식되었다.[5)] "인간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낸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로컬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의식이 주체들의 (무)의식 속에 고착되었음을 설명한다.

---

1) 고석규(1998), 「지방사연구의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 1, 21쪽). 본고는 지방, 지역, 로컬(리티) 개념을 문맥에 따라 혼용함.
2) 전명산(2014), 『국가에서 마을로』, 갈무리, 149쪽.
3) 문재원(2017), 「경계의 재인식과 로컬리티 인문학」, 『로컬리티 담론과 인문학』, 소명출판, 30쪽.
4) 西川長夫 지음, 윤대석 옮김,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2002, 32쪽.
5) 김용규(2008), 「로컬리티의 문화정치학과 비판적 로컬리티 연구」, 『한국민족문화』 32, 44쪽 ; 이상봉(2017), 「스케일의 측면에서 본 로컬공간의 대안적 의미와 가능성」, 『로컬리티 담론과 인문학』, 소명출판, 184쪽.

역사가 승자의 기록물이라 말해지듯 지역 연구와 교육 역시 지배층과 중앙 중심으로 진행됐고 문화사도 고급문화 중심이었다. 연구 주제 또한 왕조사·통치사·중앙의 역사, 다시 말해 거시적인 것이 중심이 되었으며 지역의 향토사·생활사 등 미시적인 단위의 역사는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아닌 주변적·장식적, 혹은 이류 정도로 평가받았다.

그렇다고 지역의 지역학 연구와 교육이 소홀한 한 것은 아니었다. 일면으로는 중앙의 지배질서에 포섭되면서도 그에 대한 응전으로 지역 담론을 발전시켜왔다. 호남의 역사적 경계를 비정하고 문화의 변천과 발전을 살피는 연구가 이루어졌고(사학), 문학적 특징과 재현을 살펴 그 현재적 계승을 밝히거나(문학), 호남적 사유의 연원과 지평의 확산을 살폈으며(철학), 지역 전통예술의 특징을 밝히고 그 현대적 계승을 밝히는(문화예술) 데에 연구가 집중되었다.[6] 이러한 연구가 호남문화의 특징을 밝힘과 동시에 민족문화 발전에 대한 호남(문화)의 기여를 밝혔음은 분명하다.

1980년 이후 서구 근대성, 단일보편의 신화, 근대 국민국가의 동질화 기획을 반복하는 중앙중심주의 시각에서의 지역 인식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이른바 '로컬리티(Locality)'의 대두는 종래의 지역 혹 지방 이해에 대한 반사로 등장한 새로운 연구개념이다. 곧 위계적 근대성에 대한 반사로 등장한 개념이다.[7] 로컬리티는 서구적 근대성의 모델이 유일한 근대성이 아니라고 상대화하면서, 그리고 '전지구적인 것-민족적인 것-로컬적인 것' 간의 관계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 연구는 그동안 배제, 억압, 망각된 장소와 시간 찾기, 감성적 주체들의 주체화를 위한 노력과 공간 등에 주목하며, 지역 본질주의를 넘어서는 보편적 담론, 곧 횡단적 보편성으로서의 지역학을 구축할 필요에 부응한 것이다.

우리는 호남은 어디인가? 호남학이 무엇인가? 호남학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호남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호남학의 실체가 있는가? 등등의 질문에 난감하거나 무기력하다. 달리 말하면, 호남학의 시간적·공간적 범주, 개념적 정의, 이론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아마 그 이유는 앞서와 같은 등등의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이왕의 방법에 집착하고 반복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앞서의 질문에 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는 지역이 주체적으로 지역을 연구하고 동시에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풍토와 관련된다. 이에 ① 지역대학의 지역학 교육의 현황을 학과와 연구소로 구분하여 살피고, ② 새로운 지역학 연구와 교육의 방향, ③ 대안적 지역학 연구와 교육으로서 비판적 지역학 교육의 조건을 조심스럽게 제안해보려 한다.

2. 지역학 교육의 실제

지역의 역사적 사실이 곧 지역의 상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담론으로 고정하고 재생산하는 지적 작업이 필요하다.[8] 이 지적 작업이 지역학 연구와 교육이며, 광주, 전남, 전북 지역 대학의 학과와 연구소가 수십 년 동안 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광주 전남의 대학에서 설립 운영하는 지역학 관련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은 아래와 같다.[9]

---

6) 호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문학, 사학, 철학, 문화, 예술, 민속 등 분야별 연구 성과를 일일이 소개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많다. 연구사에 대해서는 고석규, 「지역학의 실태-호남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호남진흥원 콜로키움 자료(2019년 10월 10일)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편(2016), 『호남학연구원 50년』(전남대학교출판부)에 잘 정리되어 있다. 분야별 혹 개별적 연구 성과와 동향은 앞의 자료를 참조.

7)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2010),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혜안 ; 문재원 외(2017), 『로컬리티 담론과 인문학』, 소명출판, 참조.

8) 정근식(1996), 「지역정체성과 상징정치」, 『경제와 사회』 30, 한국산업사회학회 149쪽.

<광주 전남의 지역학 관련 인문사회계열 대학원 현황 >[10]

대학	인문사회계열학과	협동과정	전문대학원
전남대	국문학, 사학, 철학, 문화관광경영학, 문화인류고고학, 호남학	디아스포라, 문화재학, 한문고전번역, NGO, 기록관리학	문화전문대학원
조선대	사학, 국문, 철학	고전번역	
목포대	국문, 사학, 고고인류	문화관광학, 도서해양문화학, 문화콘텐츠학	
순천대	문예창작, 사학, 철학	인문고전학, 여순지역학	

학교별 교과운영의 목표와 특징 등을 살펴보면, 목포대 사학과는 호남지방의 지방사와 세계 각지의 지방사연구의 이론과 실제를 교육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대학원생들은 호남지방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한 각종 조사 작업에 참여하여 심층적인 지방사연구에 접근하고 있다. 나아가 분권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한국지방사학과를 설립, 운영하면서, 마을·면·시군 단위의 역사 등 분화된 단위별 지방사 연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보편사보다는 지방사 중심의 연구와 교육으로 학과를 운영한 목포대 사학과의 지역학 연구와 교육은 자타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사례의 하나다. 학과 설립 이래 오늘날까지 사학과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심을 쏟았는데, 수많은 학문연구 성과와 함께 후속세대를 양성하였다. 특히 호남 서남해안 지역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자연스럽게 후속세대 양성으로 이어졌으며, 이제는 아시아와 세계로 그 연구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순천대는 사학과를 중심으로 중앙사와 대립된 개념으로서의 지역의 생활문화사를 밝히고, 그 역사가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실증하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지방사연구). 특히 여수와 순천 등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 문학, 정치, 사회계층, 법제도 등 다양한 측면을 총체적으로 교육하고, 지역의 주요 쟁점과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교육한다. 국문학의 경우는 지역의 방언연구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전남대 국문과 역시 지역어와 문학에 교육의 초점을 두었는데, 관련 과목으로 지역언어조사와 연구, 지역문화원천자료연구, 지역어와문화연구, 지역어문학과인문지리, 지역어문학과문화콘텐츠, 지역어문학과디지털큐레이션, 지역어문학프로젝트세미나, 지역어아카이빙과문화콘텐츠(캡스톤디자인), 지역어문화학, 지역어문학문헌연구 등이 있다. 사학과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 시각에서 각 지역의 지방사를 이해하고(한국지방사연구, 역사속의중앙과지방), 한국 역사의 맥락 속에서 호남지역의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역사 과정을 탐색하고 있다(한국사의전개와호남). 나아가 세계화 시대의 각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세계화와지역연구).

9) 이하는 각 대학 및 학과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10) 미리 밝혀두거기와 이 표는 논자가 편의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일부 누락 된 학교와 학과 또한 있다. 이하에 제시된 표 역시 마찬가지다. 양해를 구한다.

조선대 사학과는 한국 역사의 지방적 전개에 관한 자료를 목록화하고 주요 자료를 분석·강독하며(한국지방사연습), 지역의 전승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연구와 교육을 집중하고 있다(향토자료번역연구와 실습).

이외의 고고 및 인류학 관련 학과에서는 호남고고학의 연구성과와 특징을 정리하고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에 대한 조사방법과 연구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대학들은 설립부터 오늘날까지 오랜 기간 문학, 철학, 역사, 문화, 예술, 고고 등 지역학 관련 학과들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 성과로써 수많은 연구성과와 자료를 집적하여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민족문화 창달에 대한 호남의 기여를 밝혔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전문가 양성에 대한 기여는 크다 할 수 있다.

현재도 이들 학과는 지역의 주요 쟁점과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교육하고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 시각에서 각 지역의 특성과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과 실제를 교육하고 있으며,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이는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자료의 목록화 및 분석과 강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국민국가의 구성원이라는 현실에서 그 논리나 시스템을 부정할 수만은 없을 터, 따라서 중앙에 호응하면서도 지역의 주체성 확보를 위한 연구와 교육에 힘써왔고 많은 성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성과와 함께 학과 체제가 가지는 한계 또한 있다. 앞서 소개한 대학원이란 기존 분과학문 체제로 운영되는 학과체제 하에서 설립된 대학원으로, 이를테면 대학원 국문과, 사학과, 철학과 등을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근대의 분과학문은 민족국가, 국민국가 체제의 논리를 반영하고 그 당위성을 설명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학과 중심으로 수행된 지역학 연구와 교육은 좀 과감하게 말하면, 국민국가 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에 일정 정도 기여했다 해도 과언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은 분과학문 체제 자체의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국문학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철학과 사학 영역의 경우 한국/동양/서양이라는 분과 구분이 있고, 더하여 시대와 분야별 구분이 뚜렷하다. 이로써는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가 상호작용하고 가로지르는 지역의 역사와 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교육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학 연구와 교육의 다른 축으로 연구소(원)가 있다. 1960년대 초 전남대에 호남문화연구소가 창설되면서 호남학연구가 싹트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초 전주대에 호남학연구소가 개설되어 본격화되었다. 두 연구소의 창설로 호남학의 뿌리를 가닥 있게 캐내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11] 지역으로서 호남은 차이를 가진 다양한 개체들로 구성되었고, 전체의 동일화의 논리에 포섭되지 않을 수 있는 독자성을 지닌다.[12] 호남학연구는 이점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자 호남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맞선 본격적 대응이었다.

호남학연구원은 설립 후 지역문화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지역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해왔다. 연구원은 6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연구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발굴과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행했다.[13] 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고, 지역과 세계를 가로지르는" 인재의 양성이라는 목표로 대학원 호남학과를 설립했다.

---

11) 「'湖南學'-그 悠長한 향토思想의 脈을 찾는다」, 『광주일보』(1990년 9월 17일).
12) 차철욱(2017), 「장소성과 로컬리티」, 『로컬리티 담론과 인문학』, 229쪽.
13) 호남학연구원(2013), 『호남학연구원 50년사』.

2020년 설립된 호남학과는 기존의 지역학 연구를 계승하여 새롭게 지역사를 재구성하며, 이 연구성과를 지역사회에 환류함과 동시에 지역학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대학의 공공성을 구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전국 최초의 지역학(Local Studies) 전문가 양성 대학원 과정이라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상당한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호남학과는 분권 시대 지역의 자원과 가치에 대한 공유와 소통의 극대화를 통해 공동체의 재생과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 상생과 지역횡단의 미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형 연구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문제 대안 정책 허브 구축, 지역상생형 연구·교육 연계, 선순환 생태계 구축 교육, 지역횡단형 글로벌 연구 플랫폼 구축 및 비교지역학 공동연구와 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다.

<전남대 호남학과 교과과정>

연번	영역	교과목
1	이론과 방법론	호남학연구방법론, 호남학특강, 호남학세미나, 지역공동체연구, 지역정체성연구, 지역문화론, 로컬서사연구
2	역사와 전통	지역생활사연구, 지역지성사연구, 지역민중운동사연구, 지역종가연구, 지역교류사연구, 오월공동체연구, 호남마을사연구, 호남근대인물연구, 호남여성인물연구, 호남근대학교연구, 호남기업사연구, 호남학생운동연구, 호남농민운동연구, 호남불교연구, 호남실학연구, 호남종교연구, 호남향교와서원연구
3	예술과 문화	호남읍성연구, 호남전통주연구, 호남선비문화연구, 호남누정과원림연구, 호남음식문화연구, 호남해양과도서문화, 영산강권문화연구, 무등산권문화연구, 지역종가문화연구, 지역대중문화론, 다문화와지역사회
4	일상과 공동체	호남길거리연구, 호남지역어연구, 호남장시연구, 자연경관과로컬리티, 지역사회와생태적상상력, 지역협치와공공성, 지역과젠더연구, 지역도시연구, 마을연구
5	정책과 자원개발	지역분권연구, 마을연구특강, 지역문화정책연구, 지역문화자원연구, 유네스코등재문화자원연구, 지역문화콘텐츠연구, 디지털호남학, 로컬코디네이팅, 로컬크리에이터실무워크숍

연구소에서 설립 운영하는 지역학 후속세대 양성의 또 하나의 사례로, 목포대학교 도서해양문화학협동과정을 들 수 있다. 1983년 설립된 도서문화연구원은 섬과 바다를 연구, 조사, 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한반도 서남해에서부터 시작해 전 해역으로 연구 범위를 넓혔으며 인접 중국·일본·대만·홍콩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해역으로 연구의 시야와 범위를 확장, 심화하고 있다.

연구원은 섬과 바다에 대한 폐쇄적이고 정태적인 시각을 대신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시각을 공유하고자 학제적 연구를 지향했으며, 섬과 바다를 포함한 지역과 해역 전체에 대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식에 접근하기 위하여 여러 분과학문 간 상호소통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다. 나아가 섬과 바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개발을 모색하고자 했다.

도서해양문화학협동과정은 21세기 신해양시대를 이끌어갈 도서해양문화 전문가 양성, 지속가능한 도서해양문화를 선도할 생태환경 전문가 양성, 도서해양의 평화적 이용과 개발을 주도할 도서해양정책 전문가 양성,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글로컬 인재양성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여 석박사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학과명에서 드러나듯 이 과정의 주요 내용은 "섬과 바다의 문화"로 특화되어 있다. 섬 지역과 바다 해역의 문화자원을 문화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화학, 문화비교학, 문화미학까지 연결시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섬이라는 공간의 마을과 사람들, 그리고 유적·유물과 구술자료 등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재구성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다.

<목포대 도서해양문화학협동과정 교과과정>

연번	영역	교과목
1	공통과목	도서해양문화학개론
2	전공과목	도서해양사, 어촌사회사, 한국수산업사, 도서해양생활문화사, 도서해양예술론, 전통어구어법, 도서해양민속, 도서해양문학, 해양문화재, 도서해양스토리텔링, 도서해양자원론, 갯벌의생태와다도해, 도서해양관광, 도서해양개발정책, 도서해양지리정보실습, 해양실크로드, 글로벌해양전략, 해양법특강
3	보충지정과목	한국의민속문화, 도서해양문화의인류학, 도서해양콘텐츠입문, 농민과어민의사회의문화, 해양인류학특강, 고령화사회와미래문화, 한국섬과바다의역사, 바다의세계사, 향토문화자원과문화콘텐츠, 박물관학특강, 관광과문화
4	연구과목	논문연구

이 외에도 전남대의 인문커뮤니티협동과정(인문학연구원), 마음지도사 양성과정(마음인문학연구소)도 있다. 이들 과정의 설립 경위와 교과과정 등은 생략한다.

3. 지역학 연구와 교육의 방향[14]

국민국가는 동일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국민국가는 국민·영토(국경)·주권의 개념은 同一律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까닭에 국민국가는 "하나의" 국어·민족·국가라는 신화로 기울어지기 쉽다. 국민국가에서 개인의 사고나 감성, 이데올로기는 동일성의 원리를 이상으로 생각해왔다.

국가는 ① 교통망, 토지제도, 조세, 화폐·도량형의 통일, 시장.... 식민지 ; ② 헌법, 국민회의, 정부-지방 자치단체, 재판소, 경찰-형무소, 군대, 병원 ; ③ 호적-가족, 학교-교회, 박물관, 극장, 정당, 신문(저널리즘) ; ④ 다양한 국민적 상징, 모토, 서약, 국가, 국가, 曆, 국어, 문학, 예술, 건축, 역사 편찬, 지리지 편찬 ; ⑤ 시민(국민)종교-제전(새로운 종교의 창출, 전통의 창출)을 통해 국민통합을 시도한다.

14) 본 장의 일부는 김창규(2019), 「인식공간으로서의 호남과 지역 주체성」(『호남학』 66, 2019)을 활용했음.

동시에 ① 공간의 국민화(균질화・평준화 된 공간, 국경, 중앙(도시)−지방(농촌)−해외(식민지), 중심과 주변, 풍경) ; ② 시간의 국민화(시간의 재편, 노동・생활의 리듬, 신화, 역사) ; ③ 습속의 국민화(복장, 인사, 의식, 새로운 전통) ; ④ 신체의 국민화(五感, 거주, 학교・공장・군대 등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신체와 감각, 가정 ; ⑤ 언어와 사고의 국민화(국어, 애국심)를 통해 국민의 국민화를 유도한 결과 '내셔널리즘'과 '국민'이 탄생한다.

민중(대중)은 문화, 문학, 예술, 역사, 가족, 학교, 교육, 과학, 학문, 종교, 국민과 민족 그리고 대중의 개념, 텔레비전, 신문, 정보, 스포츠, 박람회, 전람회, 축제, 이벤트, 생활, 노동의 장, 질병, 범죄, 그러한 것에 대한 공포심, 반체제 운동, 여성해방운동, 페미니즘, 전쟁의 비참한 기억을, 전쟁 희생자의 고통, 전쟁과 관련한 장소, 평화운동, 전쟁 책임의 추궁, 모든 국가 장치와 이데올로기 장치를 통해 "국가로 회수된다".[15]

이 과정에서, 지역/지방은 늘 중앙의 시선에서 하위화되고 지역/지방의 정체성과 주체성은 억압되거나 은폐되었다. 그리고 로컬 내에서도 중심과 주변, 도시와 시골, 문명과 미개와 같은 이분법적 가치들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다. 이분법적 사고하에서 경계는 다양한 차이를 배제하거나 동질화하는 기능을 했다. 지배 권력은 경계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을 동질화의 전략을 통해 끊임없이 포섭했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질적인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러한 차이를 이용하기 일쑤였다.[16]

요컨대 근대성의 사유는 모든 사물을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으로 양분했으며, 중심적인 것을 주변적인 것에 우선시하는 중심주의가 지배하였다. 이분법적 구획은 인간/자연, 이성/감성, 남성/여성, 시간/공간, 중앙/지방, 공적 공간/사적 공간 등과 같이 근대성의 사유 전체에 관철되어 왔으며, 전자가 후자를 포섭하고 배제하는 방식은 불평등하고 강압적이었다.[17]

국민국가의 정체성과 통일성은 주체성의 생산을 중단시키고 공통적인 것을 무효로 만들었고, 국가에의 예속과 복종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 동일성과 통일성은 창조성을 포함하지 않으며 차이 없는 반복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주된 싸움의 전략은 정체성과 통일성에 대한 저항이어야 국민문화(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이어야 하고, 여기에서부터 주체성은 재규정되고 '나'는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주체가 되며, '나'로 대표되는 하위문화가 상위문화를 결정할 수 있다.

국가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사유해야 하는 이유는, 종래 주류 담론을 비판하고 성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국가의 기원[18]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풀어서 말하면, 모든 권한을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하고 존엄한 존재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지배와 정복자로서 국가를 시야에 넣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갖지 않을 경우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서 지역의 사람과 연구자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

15) 이상의 국민국가의 특성에 관한 내용은, 西川長夫, 윤대석 옮김, 『국민이라는 괴물』에서 발췌(33쪽, 302~309쪽 등)한 것임.

16) 이상봉(2017), 앞의 논문, 『로컬리티 담론과 인문학』, 191쪽.

17) 이상봉(2019), 「'공간적 전환' 이후 장소, 감성, 그리고 로컬리티」, 『공간적 전회와 지역 정체성의 재구성』(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제1회 감성인문학 학술대회(2019년 5월 24일) 자료집), 31쪽.

18) 국가의 기원에 대해 니체는 "나는 국가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하다. 그것은 금발의 야수의 한 무리, 어떤 지배자, 정복자 종족을 일컫는 것으로 이들은 전투적 체제로 편성되어 있고 조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아마도 압도적으로 우세하면서 아직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유랑하고 있는 주민들에 주저 없이 그 무서운 발톱을 드러냈다. 실로 이렇게 해서 지상에 '국가'가 비롯되었던 것이다"(니체의 『도덕의 계보』를 전명산, 『국가에서 마을로』, 125쪽에서 재인용함)라고 한 바 있다.

더군다나 현재 세계에서 국가나 민족이 '마주침=만남, 교류, 접촉과 수용'을 더 이상 전유할 수 없다. 곧 국가나 민족이라는 통로(회로) 없이도 이러한 행위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계급적, 지역적,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경계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따라서 각종의 경계를 초월하는 특이성들의 다양한 마주침들을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포착하여 지역의 주체성을 구성할 수 있다.

지역 연구와 교육이 국가, 중앙, 중심주의를 되묻는 근대성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지역주의를 통해 짚어볼 수 있다. 경계를 그어 영역을 만드는 것은 그 영역 내의 범위를 통제함으로써 사람과 사물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전략이다. 여기서 경계는 피아를 인식하는 선이 된다. 피아의 구분을 토대로 만들어진 지역주의는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지역의 층위들 위에 새로운 층의 경계를 형성하려는 일체의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물리적 경계를 긋는 작업일 수도 있으며, 기존의 경계에 새로운 상징을 부여하는 작업일 수도 있다. 경험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지역 외부의 지역주의는 대체로 국가의 기획이라 할 수 있다.[19]

지역주의는 중앙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중앙의 영향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징을 살려나간다는 의미이자,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리고 지역패권주의는 한 국가의 일부 영토로 존재하는 특정 지역출신 집단이 국가의 경영에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정치권력을 획득·유지·강화하려는 정치적 이념으로, 특정 지역집단이 추구하는 패권이 핵심이다.[20]

특정지역 출신 사람들의 정치적·사회적 활동기회를 제한한다거나, 또는 부당한 차별 조처를 강제한다거나, 생산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기피한다거나 하는 조처를 지역차별이라 한다. 그리고 특정지역 사람들의 성격이나 습속에 대해 여타지역의 사람들이 갖는 감정적 인식을 지역감정이라 한다.[21]

한국사회에서 지역감정, 지역갈등, 지역차별은 권력 블럭에 의한 고도의 분할지배전략의 일환으로 정치적 동원의 과정에서 심화된 측면이 크다. 지역감정 혹 지역갈등의 대상은 상대지역의 주민에게 있다기보다는 특정한 정권이나 정치집단 또는 특정한 지도자에게 있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가진다.[22]

국가의 발전전략과 헤게모니 장악에 대해 상이한 영역적 이해가 지역별로 형성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정당들의 정치 전략이 결합되면서 지역균열의 구도가 깊이 각인되기 시작했다. 발전주의 국가가 추진한 국가 주도 경제성장이 그 공간적 선택성으로 말미암아 지역 간 격차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23]

문제의 본질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대립을 부추긴 결정적인 요인은 서울 집중화 현상이고, 지역주의에 의한 차별은 지역과 지역 사이의 차별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차이다. 지역대립의 중심축이 지역 간의 갈등이었다고 흔히 말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에 사는 또는 서울의 패권을 놓고 지역 출신 엘리트들이 벌인 사생결단의 투쟁인 것이다.[24]

---

19) 김동완(2013), 「광주 : 지역개발 담론과 아래부터 지역주의」, 박배균·김동완 편, 『국가와 지역』, 알트, 102쪽.
20) 남영신(1992), 『지역패권주의 연구』, 학민사, 9~12쪽 ; 백정현, 같은 논문, 같은 쪽.
21) 김동수(2011), 「호남소외론의 허와 실」, 『역사상의 중앙과 지방』, 엔터, 10쪽.
22) 홍철(2004), 「호남 기피심리의 실체-일반화의 오류에 대한 분석」, 『한국행정논집』 16-1, 한국정부학회, 134쪽.
23) 박배균, 앞의 논문, 박배균·김동완 편, 앞의 책, 83쪽.
24) 한홍구(2019), 「남북분단과 동서분열: 분단의 현대사와 지역감정」, 『영호남의 지역담론과 대학의 역할』(경북대학교·전남대학교 제1회 영호남 교류 학술대회(2019년 10월 18일) 자료집), 77쪽.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나 지리적 조건이 지역감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감정이 전근대성의 산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발전주의·개발주의·산업주의가 추구되고, 철도와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인구의 이동이 국민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에 지역감정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5] 근대 이전의 차별 혹 감정이 실체가 없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현재의 지역 문제는 근대의 속성 곧 발전주의·개발주의·산업주의의 유산인 것은 분명하다.

지역에 대한 편견·차별·소외 등은 중앙정치에서 헤게모니 장악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적 발전주의 전략을 기초한 국가의 기획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 문제가 지역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실제는 국가의 기획에 의한 지역의 차별과 소외로 생긴 중앙과 지역의 문제인 것이다. 지역 연구와 교육이 국가, 중앙, 중심주의를 되묻는 근대성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로컬 담론에서 언표 주체는 누구인가? 그 주체는 어떻게 언표화의 전략을 전개하고 담론을 생산해 왔는가? 그 주체는 자신의 언표 행위에 대해 얼마나 성찰적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 볼 수 있다. 불편하게도 언표 주체는 그 로컬리티 담론의 내부보다는 외부에 있었다. 지역에서 로컬리티 담론의 실질적 주체는 로컬 주체와 그들의 가치였다기보다는 계몽과 합리성이라는 서구적 근대성과 그에 근거한 발전론적 모델과 같은 외재적 기준과 척도였다. 강요된 거의 초월적 가치였다.

따라서 지역학 연구와 교육의 핵심은 국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의 토대 위에 중앙 중심의 근대 국가가 구축한 위계 및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늘 중앙의 시선에서 억압되거나 은폐되거나 하위화된 지역(지방)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회복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대성의 이론적·개념적 배타성 그리고 지배적 억압성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역학을 구성하고 후속세대를 양성해야 할 것인가. 지역학으로써 호남학 연구와 교육은 단순히 주변학/지역학/지방학에 머물지 않고, 위계적이거나 억압적인 근대의 논리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편학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장소성 혹 공간성만으로는 기존의 호남학 논의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이 경우 특수성만 존재할 뿐 보편성은 찾아볼 수 없는 논리가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80년 광주의 보편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는가? 호남 혹 호남문화의 경계는 없다. 예컨대 1949년 인구조사에서 호남은 약 25%를 점했다. 현재 호남에 거주하는 사람은 510만에 불과하고, 역외에 약 750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역외의 사람들이 호남인의 정서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면 '호남적인 것'이고, 호남문화는 이를 포함한다.

'순수한, 본래의, 고유의, 자기동일성을 지닌' 원형으로서의 호남문화나 호남정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간과 시간, 인간과 문화, 내부와 외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광주, 전남, 호남은 다양하게 표상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표상이 광주의 로컬리티를 담아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근대성의 병폐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동일성으로의 회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컬리티 개념에 따르면 호남은 ① 공동체, 마을, 지방, 지역, 국가라는 구체적 장소이자 공간, ② 인간과 시간, 사회·정치·문화·경제 등 다양한 것들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의 장, ③ 정체되지 않고 변화하며 그 경계가 고정되지 않고 열려 있는 공간, ④ 전체/부분, 중심/주변, 상위/하위, 주체/타자라는 위계적 공간이며, ⑤ 다수/소수, 제도/일상이라는 인식의 공간이기도 하다. 로컬은 곧 '지배적 가치', '부상하는 가치', '잔존하는 가치'들이 경쟁·경합하는 모순과 갈등의 공간이다.

25) 이소영·정철희(2003), 「전통적 가치와 지역감정」, 『한국사회학』 37-5, 한국사회학회, 32쪽.

그리고 이질적, 복합적, 중층적, 차이성, 개방성, 역동성, 창조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⑥ 대안으로서의 로컬공간을 상정한다면, 호남의 경우 스케일의 측면에서 그리고 경험적 측면에서 대안적 민주주의 공간이 될 수 있다.

호남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는 공간, 시간, 사유・표상・문화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제는 분과학문을 넘고 각 영역을 가로지르면서 로컬의 힘을 발견해 그 특성들을 추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 주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호남을 말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의미화하는 작업이다. 곧 지역학 교육은 로컬의 역동적 힘을 발견하고 주체적 힘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이 역동적인 힘과 주체성이 '호남적인 것'이고, 이것을 발견하여 주체성을 구성하는 하는 것이 지역학으로서 호남학이다.

지역학 연구와 교육의 핵심은 '인간과 자연', '중앙과 지방', '세계와 지역'의 문제를 망라한 보편학, '호남학이란 무엇인가'에 답할 수 있는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분과학문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역학 연구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곧 "이론과 개념 + 실공간으로써 로컬(호남) +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디어"가 결합된 지역학 연구이자 교육이어야 한다. 이로써 학문적・교육적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요컨대 지역학은 근대성에 대한 성찰의 토대 위에 지역적 가치의 차이와 독특성을 내재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외재적으로는 한국학이라는 포괄적 범주로 수렴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지역적 특수성에서 출발하지만 '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학'으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갈 수 있다. 이를 가리켜 '비판적 지역학'이라 할 수 있다. 비판적 지역학이란 종래 지역학이 이룬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종래의 모든 지역학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근대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지역학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애향적이며 국수적인 혹은 독선적이고 패권적인 수준과 욕망을 넘어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인간과 자연, 중앙과 지방, 세계와 지역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논의로까지 연결되는 호남학"[26]이 그것이다.

4. 비판적 지역학 교육의 조건

비판적 지역학은 지역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의 특수성을 넘어 전지구화와 문화적 혼종성에 대응하는 개방성과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원형성과 불변성을 출발점으로 하는 본질주의적 접근은 관계성이나 개방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지구화의 맥락에서 지금 당장의 한국적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동아시아와 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아우르는 연구소와 학술 및 인적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현실은 담론 구성의 효과이듯, 우리는 기존의 지역 연구와 교육을 비판하고 새로운 지역학과 교육의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그 개념이 지방이든 지역이든 로컬이든 우리의 연구와 교육은 근대성에 대한 성찰에 출발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곧 근대성의 구조 속에 포섭 또는 배제되어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온 로컬의 당면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로컬의 시선에서 탈근대와 전지구화를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지역학이어야 한다.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이며 한국학이자 세계학으로 수렴될 수 있는 지역학으로서 호남학의 가능성은 후속세대 양성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26) 김병인(2016), 「호남학연구의 흐름과 전망」, 『호남학연구원 50년』, 355쪽.

인프라가 과연 구축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쉽게 단언할 수 없지만, 그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인문한국사업(HK)의 성과를 들 수 있다. 아래는 지역 대학들이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인문한국사업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호남지역 대학의 인문한국사업 수행>

소재지	대학	연구소명	아젠다명	비고
광주광역시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세계적 소통 코드로서의 한국 감성 체계 정립	HK
			분권시대 횡단적 보편학으로서 감성인문학	HK+2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초개인화 시대, 통합과 소통을 위한 가족커뮤니티인문학	HK+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동아시아 재난의 기억, 서사, 치유: 재난인문학의 정립	HK+
전라남도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섬 인문학, 문명사적 공간 패러다임의 전환	HK
			섬 인문학, 인문지형의 변동과 지속가능성	HK+2
	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	지리산권 문화 연구	HK
전라북도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마음인문학, 인류정신문명의 새로운 희망	HK
			마음혁명의 마음인문학: 마음공부의 체화·일상화·사회화	HK+2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다이멘션(NEAD) 토대 구축	HK+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유교문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공동체	HK+

전남대 ① 감성인문학연구단은 현대 인간의 위기가 인문학의 위기를 낳았다는 진단 아래 인문학의 치유 능력을 회복하고, 인문학 자체의 쇄신을 위해 인간 감성의 문제를 인문적 담론 안으로 끌어들여 미래적 인간학을 정립하며(1차), 감성적 주체들이 공감을 매개로 지역들의 연대와 특이성들의 황단 속에서 주변화·타자화된 가치를 복원하고 인간의 전일성을 회복한다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해오고 있다(2차). ② 가족커뮤니티연구단은 초개인화 시대의 사회적 통합 방안 모색하여 새로운 가족 및 공동체의 다양한 형태와 가치를 조명하고, 나아가 사회적 소통과 통합의 담론 모색하며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학적 가족 정책을 제안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은 재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인문학적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동아시아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재난 연구 허브기관으로의 부상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목포대 섬인문학은 육지 중심적 공간인식에서 도서해양을 중시하는 공간인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세계화시대에 새로운 인문학적 정형의 창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해 왔다.(1차), 섬인문학은 문명사적 공간인식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변화의 물결과 인문지형의 변동을 주목하고 나아가 섬의 회복탄력성과 미래가치를 탐구하는 데에 연구력을 모으고 있다.(2차)

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단은 지리산권 역사·문화·생태에 관한 총체적이고 통섭적인 연구를 개시하여, 지리산권 문화를 통해서 이상사회와 지식인상을 집중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한국의 이상사회·지식인상 담론이 추구해 온 인문학적 가치를 성찰하고, 그 미래상을 모색한 바 있다.

원광대 ① 마음인문학연구소는 인문학적 마음에 대한 동서양의 모든 학문적 성과를 결집하고, 동서양의 치유방식을 수용하여 마음을 치유하는 통합적 의학을 제시하고(1차), 각자의 마음이 주체가 되어 자신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마음 혁명을 통한 인류 정신문명의 새로운 실천방안 제시를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차). ② 동북아다이멘션연구단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공동번영을 모색고자 하는 기획으로,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구성원들을 이어줄 대안적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구성원들의 시각과 공감대를 연결하는 새로운 인식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연구에 매진해 오고 있다.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담론의 해체와 근현대문화로 다시 연결되는 계기와 과정에 대하여 탐색한다. 개인의 본질이 아닌 공동체로서 인간의 관계성을 재정립하고 인간과 사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공존의 인간학 연구와 미래 공동체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상에서 소개했듯이 연구소들 대부분은 한국의 인문학적 가치를 성찰하고 그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는 인문학의 치유 능력을 회복을 통해 인문학을 쇄신하고, 공동체로서 인간의 관계성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공존의 인간학과 대안적 인문학을 제시하려는데 연구력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감성과 마음의 문제까지 인문학 연구를 확장하여 인류 정신문명의 새로운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족 및 공동체의 다양한 형태와 가치를 조명하는 데에까지 담론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재난에 대한 인문학적 인식의 지평을 동아시아 및 세계에까지 넓히려 하고 있으며, 도서해양을 중시하는 공간인식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인문학의 정형을 창출하는 데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종래의 인문학과 다른 차원의 연구로 인문학 지평의 변화와 확장을 의미한다.

인문한국 연구소들은 2008년 이래 연구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했고, 2018년에는 'HK+2'사업에 선정되어 지역대학 중핵연구소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연구소 중심의 연구체제 확립, 인문학 연구의 인프라 구축, 각종 지역학 담론의 생산 및 주도, 연구인력의 지속적 충원, 학문후속세대 양성, 연구성과의 학문적·사회적 확산을 통한 인문학의 공공성을 확보 등의 성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종래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인문학, 곧 학술연구와 교육 그리고 실천적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인문학 패러다임을 창출했다.

연구소들은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담지한 새로운 지역학의 정립을 목표를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적 현안 문제를 분석하고 동시에 그 대안들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나아가 다학제적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등을 비롯해, 세미나·콜로키움·특강 그리고 국내외 학술 단체와의 각종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연구의 영역을 광범위한 층위로 확장·심화하고 있다.

또한 인문학의 사회적 실천에도 큰 관심과 노력을 전개해 왔다. 연구성과를 일반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청소년, 노년층 대상의 아카데미, 일반시민 대상 인문학 교양강좌를 열어 민주적 소통능력과 자신감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 교내 미디어, 지역 언론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연구사업의 성과를 대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인문학의 사회적 실천은 한국사회에서 예외적인 일이었다.

특히 연구소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임교원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춤으로써 기존의 학과 중심체제가 아닌 연구소 중심의 지속가능한 연구모델을 구축했다. 나아가 '호남학과', '도서해양문화학협동과정', '인문커뮤니티협동과정', '마음지도사 양성과정' 등과 같이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갖추었다. 비판적 지역학 연구와 후진 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된 셈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닌 셈이다.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갈 문제로, 지역학 연구와 교육은 주체와 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그동안 로컬리티 담론의 실질적 주체는 로컬 주체와 그들의 가치였다기보다는 계몽과 합리성이라는 서구적 근대성과 그에 근거한 발전론적 모델과 같은 외재적 기준과 척도였다는 말을 음미해 볼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지역 연구와 교육의 주체는 중앙과 엘리트들이었고, 지역 주민은 계몽적 교육의 대상이었지 주체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논자 또한 실제로 그랬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 지역의 지식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프로페셔널에 의해 수행되지 않은 아마추어에 의해 만들어진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야기로 치부되었고, 따라서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지역 내에서도 조차도 마치 국민국가의 구조와 흡사한 위계구조가 형성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아마추어는 향토사가, 문화원 종사자, 그리고 지역의 일반 시민을 가리킬 것이다.

학문의 엄밀성이란 측면에서 학습되고 훈련된 전문연구자와 아마추어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아마추어들을 일방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학 자료의 소재와 실제의 삶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이야기를 누가 이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가에 쉽게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실제적 삶을 살아가는 지역의 실질적 주체들이다. 이들의 삶과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이들에게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은 곧 지역민의 실제적 삶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이유를 웅변해 준다.

지역민을 주체로 본 연대는 지역학 연구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라 전문연구자들이 혹여 간과할 수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보완해 주는 일이다. 그리고 지역학 연구의 지평과 외연을 확산시키고 그 후속세대 양성의 이유와 가능성을 열어젖힌다. 이로써 대학 및 연구소의 입지가 강화되고 지역민의 자긍심이 고취되며 자치단체의 관심을 끌게 되어 있다. 지역학이란 이런 것이다. 지역민들을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 이를테면 '지역인문학대회', '향토사학자대회' 등은 그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서 개최했던 "향토사가에게 듣는 호남학이야기"는 그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실시된 이 프로그램은, 호남지역 문화원과 함께 호남학 공동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각 지역의 향토사가를 방문하여 호남학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듣는 강좌였다. 이 강좌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연구의 풍토를 개선하고 진흥하는 데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차원이었다. 발표자는 해당 지역 문화원에서 섭외하되 문화원장, 문화재위원, 재야학자 등을 기본 대상으로 했고, 청중은 지역 주민 및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학교 관계자 및 기타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 필요 발표비, 교재발간비, 기타 행사에 필요한 비품 등은 연구원에서 감당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 5월 영암문화원을 시작으로. 진도문화원(2006년 9월), 곡성문화원(2006년 10월), 보성문화원(2006년 11월), 함평문화원(2006년 12월), 구례문화원(2007년 4월), 해남문화원(2007년 6월), 전주문화원(2007년 9월), 남원문화원(2007년 10월), 순창문화원(2007년 11월), 화순문화원(2007년 12월), 장흥문화원(2010년 7월), 담양문화원(2010년 11월), 정읍문화원(2011년 2월), 부안문화원(2011년 10월), 영광문화원(2012년 5월), 장성문화원(2012년 10월), 무안문화원(2013년 5월), 고창문화원(2014년 5월)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향토사가에게 듣는 호남학이야기』라는 제목의 연구서로 발간해 향토 및 지방사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애초의 기획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5. 정리 및 제언

① 문화의 융성과 지역학의 역할에 관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국내적으로 퇴계학, 율곡학, 남명학, 호남학; 중국의 稷下學宮, 河汾洛社, 桐城派; 일본의 松下村塾, 足利學校는 지역의 문화가 전체적으로는 문화의 시대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앙(수도)은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지역(지방/로컬)에서 성장한 인재와 지역에서 창출된 문화가 모이는 지점이었다. 역설적으로 지역은 인재의 못자리이자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동적인 힘이 창출 발현되는 장소이자 공간이었음을 역사가 말해준다.

② 현재 지역사회는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의 역량을 함양하고 강화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을 대학에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주체로서 지역'에 대한 사유의 전환과 재사유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의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의존하는 기존의 지역정체성을 탈맥락화하거나 재맥락화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내가 있는 곳이 곧 사유의 시작이자 세계라는 탈서구・탈식민・탈국가・탈중심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지역학은 학문적・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새로운 지역학 정립의 방향은 지역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이러한 지역적 주체들은 역사 발전과 사회 변혁의 주역이면서도, 그동안 배제 억압되었던 지역민, 소수자, 다중, 피지배자, 시골 사람 등이다. 그리고 주체성의 확립이란 감성적 주체들의 힘을 발견해 그 주체성을 재구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한국사업의 성과, 곧 지속적 연구와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실천적 인문학의 구현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④ 근대성 성찰과 관련해 "유럽을 지방화하자"는 말이 있다. 그러나 유럽이 우리를 지방화했다하여 우리가 다시 유럽을 지방화해서는 안 된다. 야만적 폭력과 억압을 경험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서양식 개념이나 이론을 '유일한' 척도로 삼아 한국을 그리고 지역을 재단해서는 곤란하다. 視座를 '지금-여기'에 두고 지역과 세계를 사고하는 그런 후속세대 양성이 절실하다. 지역민, 공무원, 교육자, 문화 관련 종사자들의 재교육과 후속세대 양성이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호남학연구원, 『호남학연구원 50년사』,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혜안, 2009.
문재원 외, 『로컬리티, 담론과 인문학』, 소명출판, 2017.
박배균·김동완 편, 『국가와 지역-다중스캐일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 알트, 2013.
김성기 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장석만 외, 『한국 근대성 연구의 길을 묻다』, 돌베개, 2006.
이해준,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2001.
전명산, 『국가에서 마을로』, 갈무리, 2014.
강명구, 『훈민과 계몽』, 나남, 2016.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너머북스, 2014.
미조구치 유우조, 서광덕・최정섭 옮김, 『방법으로서 중국』, 산지니, 2016.
지그문트 바우만, 이일수 역, 『액체근대』, 도서출판 강, 2010.
앤소니 기든스, 임현진 외 옮김, 『성찰적 근대화』, 한울, 2006.
쉬무엘 N. 아이젠스타트, 임현진 외 옮김, 『다중적 근대성의 탐구』, 나남, 2009.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민병희 옮김, 『잃어버린 근대성들』, 너머북스, 2012.
마샬 버만, 윤호병・이만식 옮김,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2011.
데이비드 하비, 임동근·박훈태·박준 옮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문화과학사, 2010.
도린 매시, 정현주 옮김, 『공간, 장소, 젠더』, 한울, 2015.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브리스트, 2014.
마이크 크랭·나이절 스리프트 저, 최병두 역, 『공간적 사유』, 에코리브르, 2013.
西川長夫, 윤대석 옮김,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2002.
테사 모리스-스즈키, 임성모 옮김,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산처럼, 2006.
각 대학 지역학과 홈페이지.
호남지역 HK사업 수행 연구소 홈페이지.

MEMO

주제발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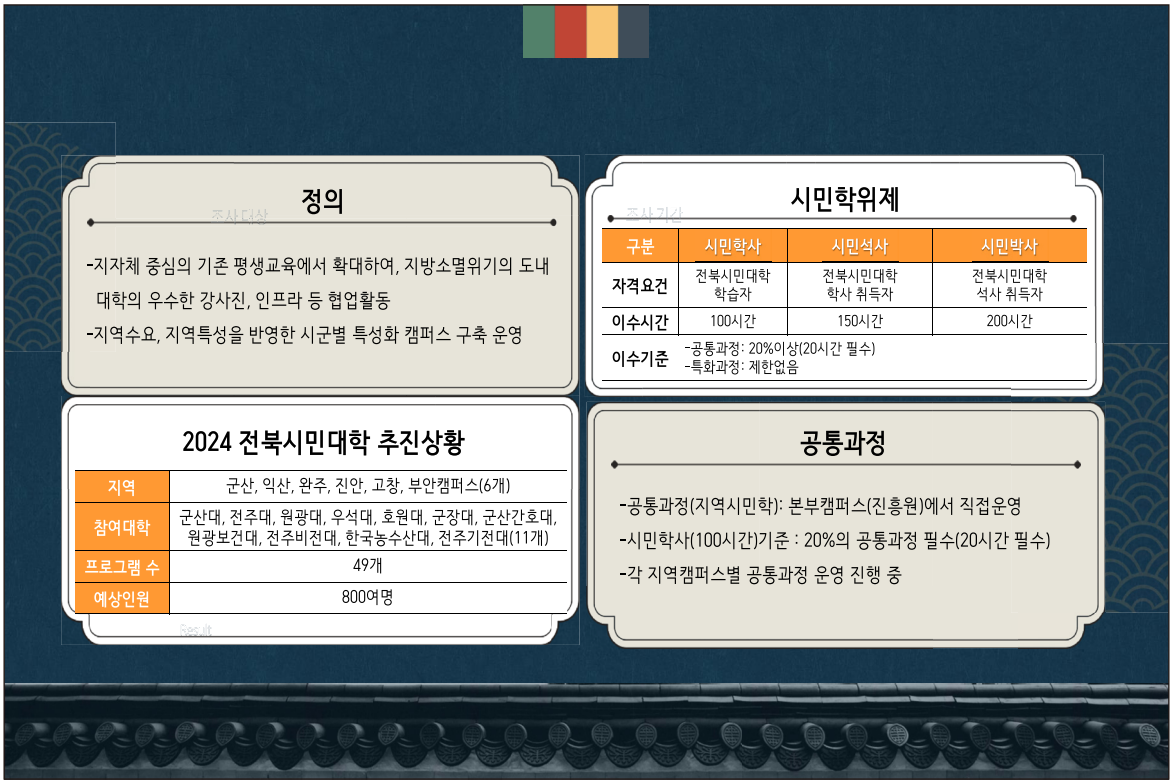
전북시민대학과 지역학의 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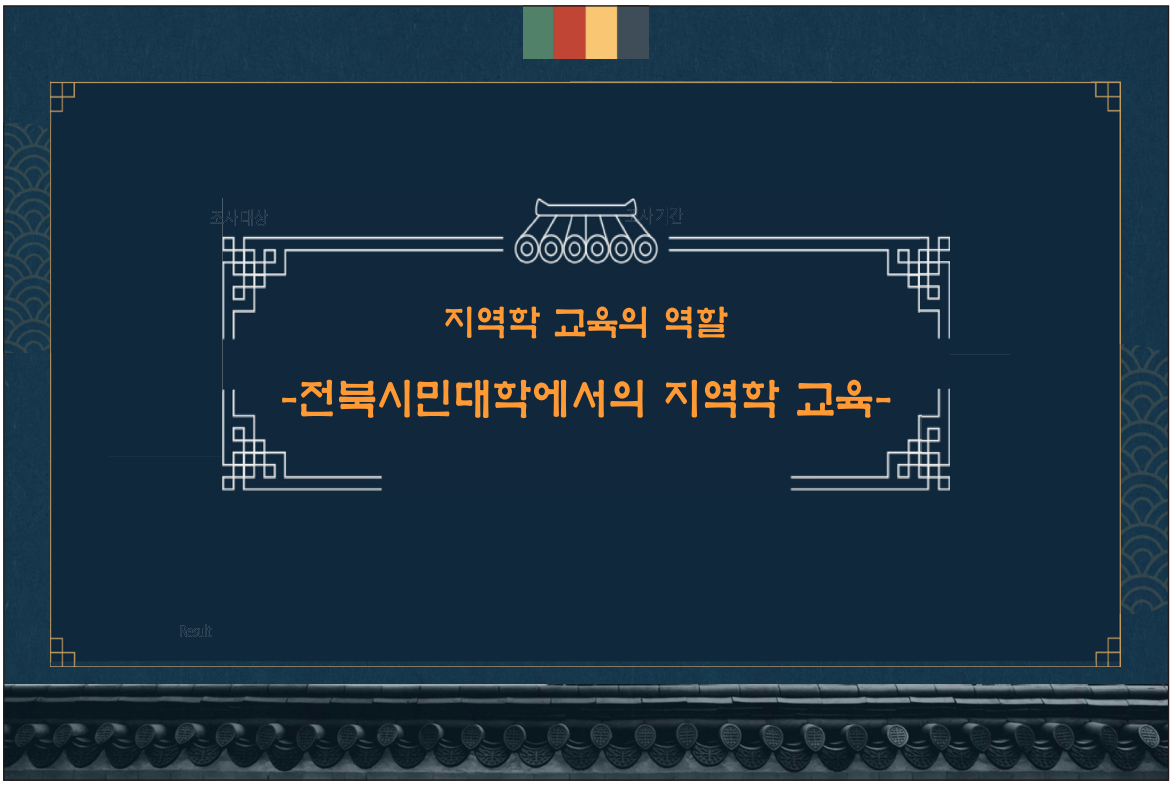
이 희 경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시민대학과 지역학의 융합
전북의 뿌리와 미래를 잇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 희 경

목차
01 전북시민대학과 지역학의 융합 배경
02 전북시민대학에서의 지역학 교육
03 지역학 교육 활동 사례
04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05 지역학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06 마무리

전북시민대학과
지역학의 융합 배경


정의
-지자체 중심의 기존 평생교육에서 확대하여, 지방소멸위기의 도내 대학의 우수한 강사진, 인프라 등 협업활동
-지역수요,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군별 특성화 캠퍼스 구축 운영
시민학위제
구분 시민학사 시민석사 시민박사
자격요건 전북시민대학 학습자 / 전북시민대학 학사 취득자 / 전북시민대학 석사 취득자
이수시간 100시간 / 150시간 / 200시간
이수기준 -공통과정: 20%이상(20시간 필수) -특화과정: 제한없음
2024 전북시민대학 추진상황
지역 군산, 익산, 완주, 진안, 고창, 부안캠퍼스(6개)
참여대학 군산대,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호원대, 군장대, 군산간호대, 원광보건대, 전주비전대, 한국농수산대, 전주기전대(11개)
프로그램 수 49개
예상인원 800여명
공통과정
-공통과정(지역시민학): 본부캠퍼스(진흥원)에서 직접운영
-시민학사(100시간)기준 : 20%의 공통과정 필수(20시간 필수)
-각 지역캠퍼스별 공통과정 운영 진행 중



2023 지역시민학 교육 추진결과

캠퍼스명	공통과정			
군산새만금캠퍼스	지역사회 이해1	지역사회 이해2	세계시민교육의 이해	평생교육으로서 시민교육
익산캠퍼스	평생교육으로서 시민교육1	평생교육으로서 시민교육2	세계시민교육의 이해	지역사회의 이해
부안캠퍼스	평생교육으로서 시민교육	교실에서 세계시민되기	전북의 식재료와 식 문화	부안의 역사 (부안읍성, 동학농민혁명)
진안캠퍼스	세계시민교육의 이해	시민사회와 시민교육	평생교육으로서 시민교육	시민교육과 동학농민혁명
전체 수강인원	221명		지역학교육 수강인원	8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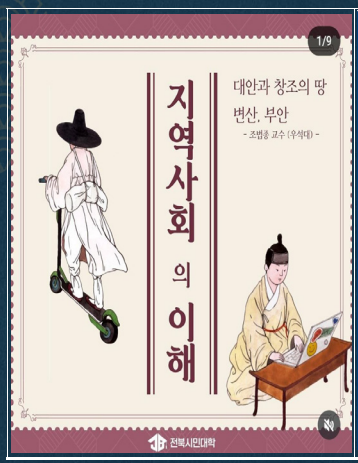
2024 지역시민학 교육 추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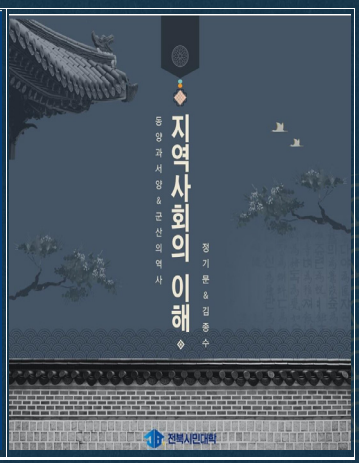
캠퍼스명	공통과정					
군산새만금캠퍼스	평생교육으로 시민교육	전북 음식 문화	세계시민교육	지역사회의 이해		
익산캠퍼스	지역사회의 이해 Geart 백제왕도 익산	세계시민성교육 서비스러닝과 SDGs	평생교육시민교육			
부안캠퍼스	세계시민교육	평생교육으로 시민교육	환경생태교육			
진안캠퍼스	세계시민 교육의 이해	시민사회와 시민교육	평생교육으로서 시민교육	시민교육과 동학농민혁명	시민으로서 기후변화대응	지역학
완주캠퍼스	우리 지역의 현재	평생교육으로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지역학의 이해		
고창캠퍼스	우리 지역의 현재	평생교육으로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지역학의 이해		
예상수강인원	240명	지역학교육 예상수강인원	110명			

지역학 교육의 사례

-전북시민대학에서의 지역학 교육 활동-

지역학 교육 홍보





지역학 교육 활동

군산새만금캠퍼스

지역사회의 이해

진안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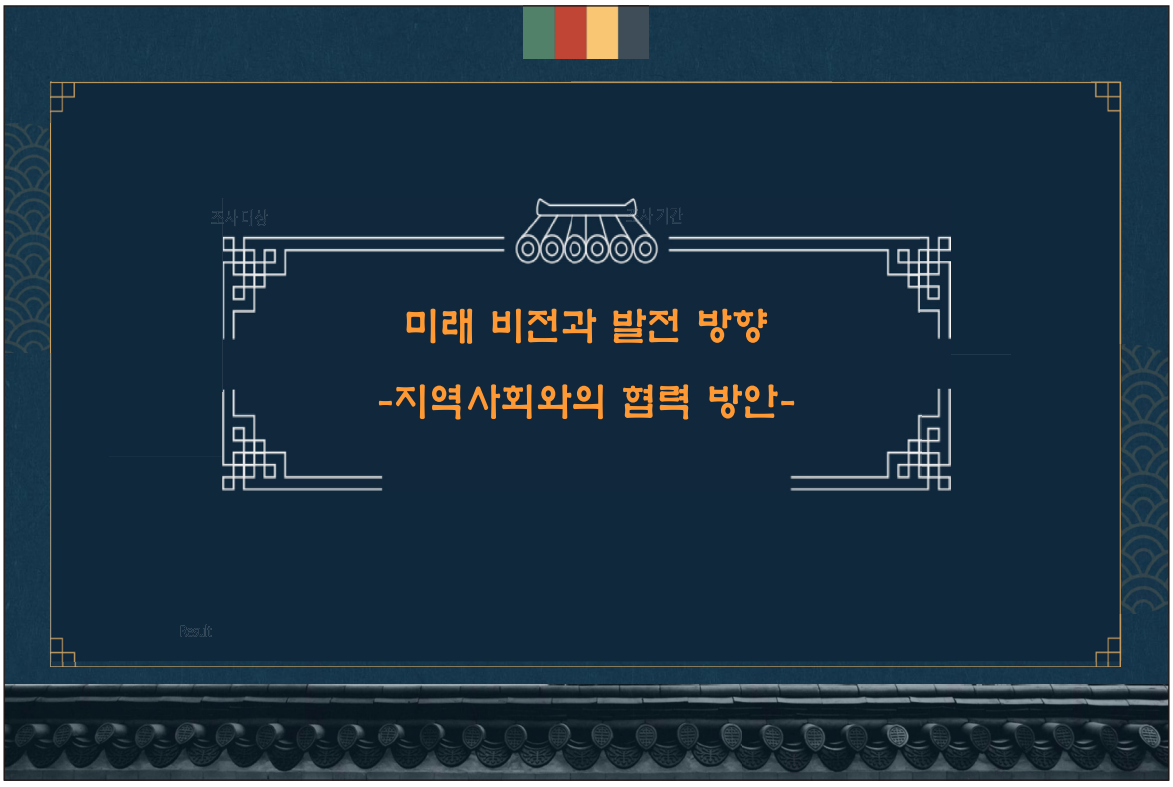
시민교육과
동학농민혁명

익산캠퍼스

지역사회의 이해
백제왕도 익산

부안캠퍼스

부안의 역사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지역 문화와 역사를 탐구하는 프로그램
지역 전문가, 역사학자와 협력하여 강좌 개설
유적지 탐방, 워크숍, 지역 역사 강의를 통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깊이 있게 이해
지역 기관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전북학, 지역학, 시민학 교육 프로그램 강좌 개설
도서관, 문화센터, 커뮤니티 센터 등과의 협력으로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協力
지역 전문가와 대학 교수진 간 협력 강화
지역사회 전문가와 대학 교수진이 협력하여 지역학 관련 교육의 깊이와 신뢰성 확보
공동연구를 통해 지역 전문가와 교수진이 협력하여 지역학 관련 교육 과정 개발
지역 자원 활용 학습
지역 도서관, 박물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학 교육 장려
자료나 전시를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학습자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경험 지원

조사대상 조사기간

평생교육

-지역학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Res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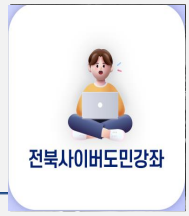
지역학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 환경 등을 포함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

지역학 관련 자료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접근성 제고



▶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진흥원-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커뮤니케이션 채널 활용을 통한 홍보 ◀

신문, 방송, 라디오 등 지역 매체 활용한 지역학 교육 홍보

▶▶▶▶

마무리

전북

- ✓ 전북시민대학의 지역학 교육
- ✓ 지역 정체성 확립

뿌리

- ✓ 전북의 뿌리를 이해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 ✓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필요

미래

- ✓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 지역 기반 학습 기회 제공

잇다

- ✓ 교육의 포용성과 접근성
- ✓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중요

지역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다

- 엘리노어 루즈벨트-

감사합니다

MEMO

제3차
호남학
연구포럼

우리가 가꾸는 지역학 풍경

주제발표 3

시민력을 기르는 광주학 만들기

곽 유 미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지역학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3. 시도민을 위한 지역학 교육

시민력을 기르는 광주학 만들기

지역학과 평생교육이 만나다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개발실장 곽유미

Contents

1 개요 광주학이란?
2 추진사례(1) 헌신과 나눔의 시민활동가
3 추진사례(2) 찾아가는 교육
4 추진사례(3) 시민대학/시민교육 특화프로그램
5 새로운 시도 대학연계 콘텐츠 개발
6 성찰과 제언 시민력을 기르는 지역학 만들기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1. 개요

내 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전국 최초 광역평생학습도시

» 광주광역시 현황

- 인구 **143만**
- 넓이 **480㎢**
- 구/동 개수 **5개구 97개 행정동**

» 광주학 히스토리

- **광주학의 씨앗**
  - 혜운 박선홍 선생 : 무등산(1976), 광주 1백년(1994)
  - 향토사학자 김정호 선생 : 광주산책 (2014,2015)
  - 천득염 교수 : 광주건축 100년(2006) 등
  - >> 광주문화재단에 저작권/지적재산권 기증
- **광주 문화자산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 광주문화재단 : 광주학총서, 누정총서, 아카이빙 도서 등 발간/ 광주학 콜로키움 개최(2015~), 광주학술상 추진(2022~) 등
  - 한국학호남진흥원 : 호남학 연구, 보급, 지원사업, 호남학콜로키움 공동 개최 등
  - 그 밖의 기관 :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연구소, 무등공부방, 서구문화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등

1. 개요

광주학이란?

광주라는 공간에서 전개되는 **인간의 활동, 도시의 특징적인 현상, 해결해야 할 도시의 각종 문제 등**을 학제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광주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학문

*출처 : 광주일보 기고문 (2021.6.21. 광주연구원 김기곤 연구본부장)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시민의 성장학'으로서의 광주학

- 지역의 역사,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등을 조사·분석하여 객관화하는 **학술적 측면**
- 지역의 행위주체인 **시민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광주학을 통해 시민이 지역의 역사와 상황을 이해하는 **'인식 능력'**
- 지역의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가기 위한 **'실천 능력'**

'지역의 발전학'으로서의 광주학

-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측면**
- 광주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 속에 담긴 도시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 도시의 가치, 품격, 행복, 정치 등 여러 영역과 주제에서 **시민의 생활과 도시의 운영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

» 2. 추진사례

지역학과 평생교육의 만남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광주학 사업 추진사례

1 **헌신과 나눔의 시민활동가**

광주시민들에게 참여와 소통, 연대와 협력, 나눔·공유·배려의 가치를 전달

2 **찾아가는 시민교육/ 광주알기 답사**

양성된강사가시민5~10인이상모임에 찾아가는 시민교육/문화해설 지원

3 **시민대학 / 시민교육 특화프로그램**

광주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 광주만이 할 수 있는 민주.인권.평화. 공동체를 주제로 한 시민교육을 발굴

4 **대학연계 광주학 콘텐츠 개발**

광주를 다면적으로 성찰,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할 기회 확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 2. 추진사례

(1) 헌신과 나눔의 시민활동가

발굴 — 시민활동가 양성과정 개발 및 표준교재 제작

양성 — 헌신과 나눔의 시민활동가 선발 및 양성(1~3기)

파견 — 찾아가는 광주시민교육 운영 / 찾아가는 광주알기 답사 운영

고도화 — 광주알기 답사 코스 및 두근두근 광주 보물찾기 게임 개발

결실 —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우수상) 수상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찾아가는 시민교육 사업소개

시민활동가란?

▼

시민대상 참여와 소통, 연대와 협력,
나눔 · 공유 · 배려의 가치를 전파하는 이야기꾼

찾아가는 시민교육 사업소개

어디서 활동할까?

찾아가는 시민교육 사업소개

활동내용은 무엇일까요?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광주이야기 진행

- 시민들과 광주의 역사 문화 이해
- 광주정신과 마을공동체 형성방법
- 의향, 예향, 미향 등 광주 문화예술
- 생활 속 민주·인권 실천하기
- 광주 곳곳을 찾아가 역사, 예술, 유적, 인물 소개

1 광주정신과 광주공동체 만들기

광주정신의 형성과 역사적 배경

도시정체성으로써 광주정신

광주정신이 확장된 광주공동체 만들기

2 마을공동체 형성방법

마을만들기 시작하기

마을만들기 준비하기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알아보기

마을만들기 사업 도모하기

마을만들기 사례보기

마을만들기 응원해요

3 광주정신과 문화예술

문화예술을 창작하다

광주정신이 빚어낸 문화예술

광주문화예술의 미래

» 3. 추진사례

찾아가는 광주시민교육 /광주알기 답사

1 찾아가는 광주시민교육

양성된 강사가 광주시민 5인 이상 모임에 찾아가는 시민교육 진행

- 활동내용 : (주제1) 광주정신과 광주공동체 만들기
  (주제2) 마을공동체 형성방법
  (주제3) 광주정신과 문화예술
- 활동장소 : 학교(초·중·고·대학 등), 아파트 마을공동체, 경로당,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기관, 작은도서관, 학습동아리 모임 등

2 광주알기 답사

광주시민 10인 이상 접수기관에 시민교육 나눔강사 문화해설 지원

- 지원내용 : 무료버스지원, 시민교육 나눔강사 해설지원 등
- 탐방코스 : 광주정신 길, 시.문학인의 길, 근대역사문화의 길, 민주.인권.평화의 길, 무등산 의향 길, 세계지질공원 길, 광주미래의 길 등 1개 코스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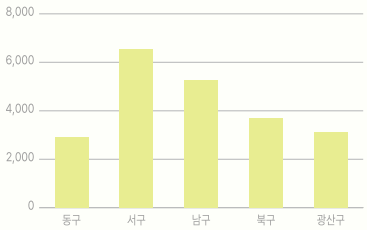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찾아가는 광주 알기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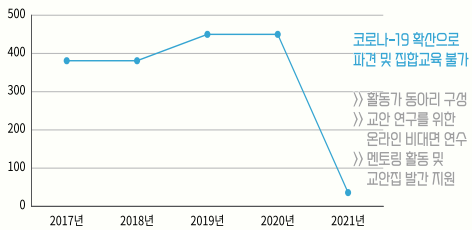
» 3. 추진사례

시민활동가 파견사업 (찾아가는 시민교육)

» 자치구별 수혜인원(2015)



» 찾아가는 시민교육 활동건수 추이



시민활동가 86명이 시민 21,520명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확산 »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형태 변화 필요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 4. 추진사례

광주시민대학/시민교육 특화프로그램

1 광주시민대학

- 광주정신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발굴·지원
- 분야 : 시민학, 인문학, 광주학, 공동체, 미래학, 기타 등

2 시민교육 특화프로그램

-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배우는 시민학습 장',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실험의 장'으로서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민주·인권·평화·광주학 시민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이 템플릿에 사용된 이미지는 홍보용입니다.

시·행·학 -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시민대학 프로그램 지원사업

광주정신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합니다.

프로그램	기관명·문의	대상	기간	강의내용
인권 감수성UP! 자원봉사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062-269-1365	자원봉사자 및 (단체) 리더 및 활동가	6.9 - 7.7	학습대상과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소통의 러닝 퍼실리테이션 방식을 접목하여 인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발굴함
중국과 한국, 문화사상사 일람	인문학 교육 연구소 070-8862-6063	광주광역 시민	8.26 - 11.11	<책문>의 저자, <주자평전>의 역자인 김태완 교수와 함께 중국과 한국의 문화 및 사상의 역사를 교육해 중국문화를 개략적으로 이해 하고, 우리나라의 사상과 문화의 전승을 살펴봄
앎의 맛, 삶의 멋 - 행복한 인문학 brunch	(사)대한독서 문화 예술협회 010-8602-2931	광주광역 시민	8.25 - 10. 27	역사, 철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인문학을 접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그림책 선택 방법과 지도 능력을 키워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그림책 활용 인문학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공부하는 엄마들> 예술-시-희곡으로 삶을만나다	청년인문공간 러브앤프리 010-8610-2012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 단절 여성	8.19 - 10. 21	결혼, 임신, 출산, 육아라는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이 모여 예술-시-희곡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인문교육을 통해 자기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
광주를 생각하는 도시탐구 시민대학	(재)지역교류 호남재단 062-234-2727	광주시민 (경력단절 여성 및 은퇴자 등 포함)	10.6 - 11.6	광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환경 등을 탐사하고 도시 정체성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시민으로서 자긍심 제고 함
찾아가는 광주학	(사)한국 인권교육원 010-4253-0311	광주광역 시민	8.29 - 11.7	광주의 문화유산 등을 경험할 수 있는 탐방위주의 교육을 통해 광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
광주의 공간과 기억들, 우리가 찾아야 할 미래	광주전남연구원 061-931-9436	광주광역 시민	8. 14 - 11. 13	광주의 주요 공간을 현대적 의미로 탐색하며, 공간 속 과거 이야기를 재구성해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상상력으로 활용하고자 함
'공동체'를 점검하다 - 어르신Ship 재생프로젝트	광주 시민 문학 협동조합 062-412-8791	취업준비생, 경력단절 여성, 일반 시민	5.25 - 7.24	공동체 재생을 위해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 헌신하는 '어르신 Ship'의 재생을 기획·추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감성을 회복하고 생동하는 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020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관명·문의	대상	기간	강의내용
하남마을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하남종합 사회복지관 062-951-0701	하남주공 1단지 주민	9.1 - 11.17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및 참여를 통해 돌봄, 공동체 복지활동의 주인으로서의 역량강화를 도모함
직장 내 인간 관계 개선을 위한 치유 그리고 의사소통	조선대학교 시민르네상스 평생교육원 062-230-7701	광주 거주 직장인	6.19 - 8.1	직장 내 의사소통에 대한 훈련 및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한 치유 능력을 함양시킴
한국 근현대사에 나타 나는 주요 국가 폭력과 민주 인권교육II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062-362-0778	광주광역 시민	5.23 - 10.31	민주·인권·평화의 상징 의향(義鄕) 광주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제 강점기 이후 5.18, 6월 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 나타나는 주요 국가폭력이 민주인권에 미친 영향을 이해시킴
여성기획자 학교 <평등한 기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청년인문공간 러브앤프리 010-8610-2012	광주지역 20-30대 청년	8.19 - 10.21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청년세대의 특성에 따른 성평등 교육과 실천 교육 및 활동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2030 청년 세대의 사회적 관심과 활동을 증대시킴
인문학으로 설계하는 민주·인권의 광주정신	(사)광주전남 작가회의 062-523-7830	기초수급자, 경력단절 여성 및 중·장년, 일반 시민	7.2 - 11.19	문학을 비롯한 여러 예술장르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오월 광주를 되돌아보고, 역사적으로 올 곧게 자리매김함으로써 저항과 극복, 민주·인권의 광주정신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함
함께하는 인문학 <人紋도시, 人文도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062-530-3105	인문학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시민	6.4 - 11.12	시민들의 인문 소양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욕구 증대에 부응하는 대형 인문학 강좌,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 확인을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에 이바지하는 시민을 양성하고자 함
무등산 무돌길 문화대학 광주정신함양 인문학 역사문화 생태탐방 교육	(사)무등산 무돌길 협의회 070-8888-0518	광주광역시 일반 성인	5.23 - 10.31	개척자로부터 직접 듣는 해설과 무등산 무돌길에 접한 호남지역의 역사유물과의 연계학습을 통해 무돌길의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함
삶의 치유로서의 인문학	카페필로소피아 010-6290-7278	광주광역 시민	8.6 - 11.19	종래의 계몽적인 문학강의를 지양하고 삶의 부정적 요소를 치유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지혜터득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실천형인 문학강좌
학소골 마을 리더양성 프로그램 '학골을 디자인 하다'	빛고을 종합 사회복지관 062-234-4563	지역주민	7.21 - 10. 30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지역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의식을 교육하고 토론, 체험활동 등 참여교육을 통해 주민리더(마을활동가)를 양성 시킴
나도 할 수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062-950-3586	광주 거주 성인	6.1 - 7.20	영상제작과 관련한 이론 및 실습병행 교육을 통해 시민이 고유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크리에이터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시민대학 프로그램 지원사업

시민대학 프로그램 지원사업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배우는 시민학습 장',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실험의 장'으로서 시민대학 프로그램과 민주·인권·평화·광주학 시민교육 특화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합니다.

시민의 학교

그린뉴딜	그린뉴딜	문화예술 콘텐츠	민주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에너지전환 전문인력 양성	시민이 Green 광주 콘텐츠	디지털리터러시 시니어 대학	민주시민교육 강사 역량강화	지속가능발전 인식 및 실천 역량강화

시민교육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소재지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광산구

프로그램	기관명·문의	기간·대상	강의내용
● 문화사로 읽어내는 건축 이야기	갤러리지오 010-6899-6744	**10명** 5.11~8.17	동서양 건축문화 변천 과정을 학습하고,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시대별 건축 문화가 구현되었는지 인문학적으로 조망함
● 무등(無等)의 길, 함께 걷다	인문지형 062-229-0687	**15명** 5.13~7.8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차별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상황에 문제 인식을 인문정신과 융합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고민함
● 광주 정신의 원형을 찾아	(사)교육문화 네트워크 동행 062-351-3348	**20명** 5.12~9.8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생태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깊이 있는 교육 및 현장학습으로 역사 속 축적된 광주 정신 습득 및 향유
● 청년지성 아카데미	(재)아시아인문재단 062-366-2666	**15명** 5.29~10.23	소외되고 무기력한 청년들의 현재적 삶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지적·정서·인성적 역량 제고로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립함
● 아시아인문강좌	(재)아시아인문재단 062-366-2666	**15명** 5.4~10.28	다양한 민족·문화·역사를 상호문화적으로 이해함
● 주민자치 시민대학 운영	품자주자시민들 010-2640-6698	**35명** 4.15~7.22	최소 생활공동체인 마을단위의 주민자치 활성화로 시민의식 성숙 및 마을공동체 실현
● 한국 근현대사에 나타나는 주요 국가폭력과 민주인권교육 2021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062-362-0778	**15명** 4.17~10.25	주요 민간인 학살사건 현장을 답사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사건의 전문 연구자·교육자·체험자의 강의와 체험담을 통해 국가폭력이 시민의 삶과 인권에 미친 영향을 학습함
● 미래와 세계를 여는, 우리는 민주시민! '뉴스 속 세상읽기'	(사)대한독서 문화예술협회 010-8602-2931	**20명** 4.20~10.26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역사 등을 알리는 각종 뉴스를 융복합하여 세상을 읽는 시각을 함양함
● 미래와 세계를 여는, 우리는 민주시민! '세계 속 민주교육'	(사)대한독서 문화예술협회 010-8602-2931	**20명** 4.23~10.22	세계의 다양한 문화·예술·인물·역사를 살펴보고, 세계시민으로 의식을 확장함

시민대학 프로그램 지원사업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배우는 시민학습 장',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실험의 장'으로서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민주·인권·평화·광주학 시민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시민교육 특화 프로그램

시민의 학교

2022 한국 근현대사에 나타나는 주요 국가폭력과 민주인권
민주인권운동, 국가폭력 등에 대한 시민역량강화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010-3743-0778 4.1~10.25

문명의 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
문명 전환시대의 광주정신에 대한 성찰·평가·반성으로 시민의식 함양
(사)광주평화포럼 010-4617-1909 4.21~9.21

시대를 이끄는 리터러시의 소비와 생산
디지털 시대에 올바른 정보, 수집, 분석, 편집, 전달 등 이슈와 문화에 대한 공유 능력 및 그림책을 통한 시민사회 교육
(사)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 010-8602-2931 5.12~10.18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시민역량강화
지속가능발전 지식·능력·태도·가치 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062-526-9898 5.27~10.7

광주시민 인문대학
동서양의 신화와 상징, 한국 고대국가에 대한 통섭적인 인문학 강의
(재)아시아인문재단 062-366-2666 5.1~10.25

중장년을 위한 희망 워크숍
중장년의 도덕성·공동체의식·건강한 인생관 제고를 위한 인문학 워크숍
카페필로소피아 010-9603-3244 4.18~10.3

품, 주자학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관련 시민리더 양성 및 역량강화
품자주자시민들 010-2640-6698 6.9~9.22

50+ Well alone, 관계의인문학
사회적으로 고립된 50+세대 및 1인 가구 중심, 성찰과 공감의 인문학 워크숍
광주시민인문학(협) 010-4624-1201 5.2~10.24

무겁지만 FUN fun한 음악대학 IN 광주
시민정신·인권·평화·정의 등 인문학과 결합된 음악교육
㈜에몰드뮤직 062-944-0725 5.2~9.26

문학으로 접근하는 상처와 치유의 담론2
문학을 통한 정서적 환기 및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치유와 담론의 장
광주전남작가회의 062)523-7830 6.2~9.22

» 5. 새로운 시도

지역대학 연계 광주학 콘텐츠 개발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1 인문도시 광주, 8가지 무늬로 톺아보기 (2023)

- 협업기관 : 사단법인 인문도시연구원,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
- ▲근대개발이 바꾼 광주의 공간(광주일보 윤현석 부국장)
  ▲광주 도학과 의(전남대 김경호 교수)
  ▲광주 미 공보원과 미술 아카이브(전남대 김하경 교수)
  ▲임진왜란 시기 호남 의병과 광주사람들(전남연구원 김만호 박사)
  ▲나의 그림 속 광주(하성흡 화가)
  ▲건축에서 광주성(전남대 이효원 교수)
  ▲아토포스, 광주(전남대 박구용 교수) 등

2 5개 대학 공동 교양교과목 개발 (2023~2024)

- 참여대학 : 호남대학교, 남부대학교, 송원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등 5개교
- 과목명 : 문화화 역사, 지역어로 만나는 광주 이야기
- 내 용 : 광주 지역의 역사, 도시 건축, 문학, 미술, 언어 등의 특성 탐험, 역사와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본 혁신의 물결, 근대화에 따른 광주 도시건축의 변화와 보존, 근현대문학 속 광주의 현재와 미래, 호남 지역어의 가치, 예향광주와 예술 자원 등 5개 분야 15차시
- 평생학습 연수센터 '시민리더' -'주민자치위원 필수교육'으로 인정

» 5. 새로운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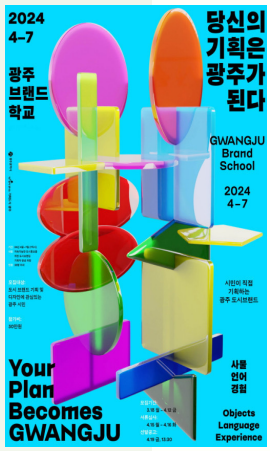
광주 도시브랜딩 (시 대변인실)

1 브랜드학교/ '당신의 기획은 광주가 된다'

- 개요 : 광주 시민이 직접 광주에서 겪은 경험과 지역 콘텐츠를 도시 브랜드로 디자인하고 도시홍보물로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 인원 : 도시사물디자인 12명 △도시언어디자인 12명 △도시경험디자인 12명 등 총 36명
- 내용 : 도시 홍보와 도시브랜드 기획 이해 과정·실습, 지도(멘토링) 프로그램, 공동연수(워크숍) 등
- 교육생들이 직접 제작한 광주 도시 브랜드 결과물로 시 청사 로비에 전시회 개최

2 디자인 캠프 in 광주/ 노잼유잼

- 개요 : 전국의 디자이너들이 광주대학교로 모여 노.잼.광.주를 탈출하기 위한 디자인캠프 "노잼유잼"을 진행
- 내용 : 그래픽, AI, 포토그래프 등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 및 멘토링 제공, 팀프로젝트 진행 후 영역별 결과물 산출 및 전시
- 결과물 예시 : 타이포그래피 포트폴리오, 영상, AR 콘텐츠, 포스터, 오디오 비주얼라이저 등



» 6. 성찰과 제언

'광주학' 교육에 대한 성찰과 제언

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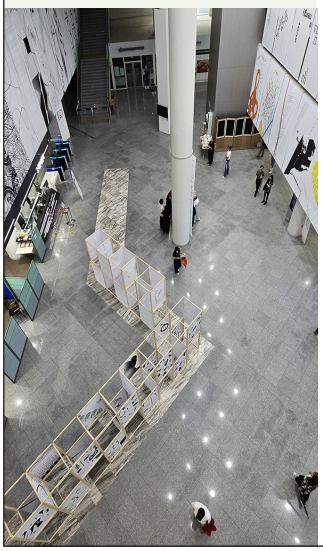
- 호남학/광주학의 구분
- 향토학, 역사학 위주
- 연구자, 전문가 중심
- 대학, 연구기관의 일
- '광주학' 강의 형태
- 기록과 수집
- 광주의 '과거'

To-be

- 통섭적 접근
- 도시학, 미래학으로 확대
- 시민참여, 주체의 다양화
- 대학, 공공, 민간 모두의 일
- 프로젝트 등 형태다각화
- 참여와 향유
- 광주의 '현재'와 '미래'

- **'광주다움'에 대한 고민**
- **1시민 1광주학 (시민인재)**
  - 광주 시민이라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소양, 자질
- **광주형 커뮤니티칼리지**
  - OCW, 대학간 학점교류
- **마을자원 연계 방안 모색**
  - 마을 설화, 문화와 자연
  - 시민이 만들어내는 광주학 (포토북, 그림책, 마을지도)
- **지속적인 아카이빙 노력**
  - 지금을 살아가기 & 의미있는 기록을 새기기
  - 광주의 현재 = 미래의 광주학

» 6. 성찰과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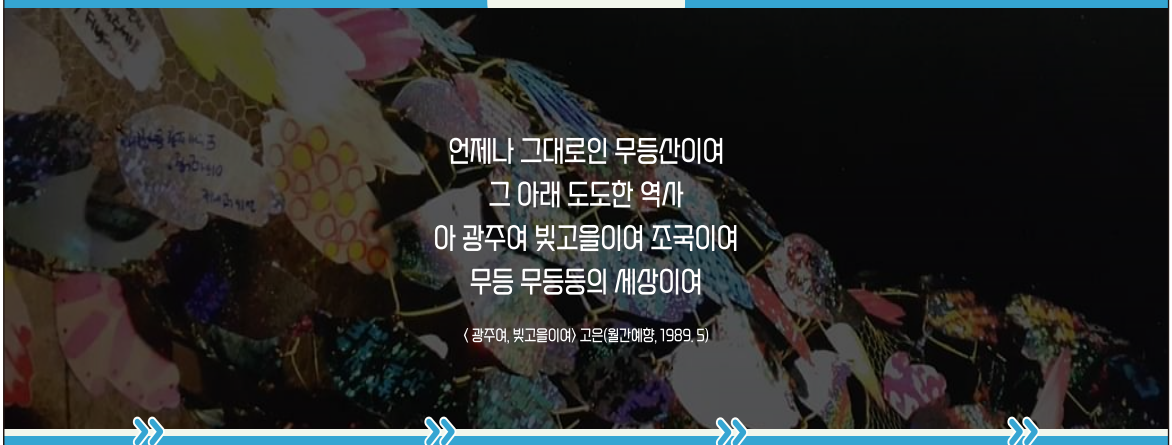
시민력을 기르는 지역학 만들기

시민이 광주학의 연구자,
마을이 광주학의 거점 기능
>>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지역학
>>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 활용

지역대학, 시민사회,
지자체, 공공기관의 협업
>> 공동활용 콘텐츠 발굴
>> 영역확장, 다양한 시도로 새로운 지역학 모델 정립

지역민과 밀착, 공공정책과 결합
>> 지역민 수요에 기반한 정책 발굴
>> 삶의 만족도 향상, 애향심 고취
>>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방안 도출

시민력을 기르는 광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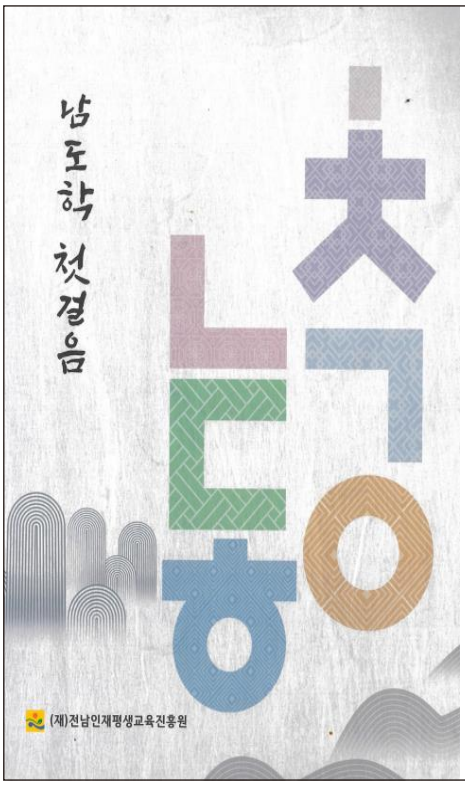
청.등.용 Listening, Moving, Dragon (이유현-K.E Kraynak작품)
광주의 과거,현재,미래를 훑는 시간에 대한것
광주사람,우리들의 추억과 소망 수집.이야기들 손모양의 비늘에 담아 ... 손이 모여 영물이 용천하는 모습으로 거듭남

MEMO

주제발표 3

남도학의 현재와 미래 : 지역학과 시민교육

최 혜 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남도학의 현재와 미래

지역학과 시민교육

최혜은(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1

1 지역학으로서 남도학

2 남도학의 현재

3 시민교육으로서 남도학

4 남도학의 미래 : 과제와 방향

2

1. 지역학로서 남도학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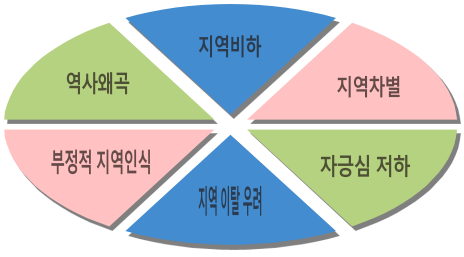
남도학 첫걸음 추진 배경

아시아경제

"전라도 XX탕이네 ㅋㅋ" **일베**, 호남 수해 '인면수심' 조롱

유저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지역**감정 조장, **지역 비하**가 발붙일 수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토로...담긴 청원은 …

2020.08.13



전남을 제대로 알기 위한 평생교육 중요

4

남도학 첫걸음 추진 배경

문화유산 인식, 지역애착도, 지역공동체 간의 구조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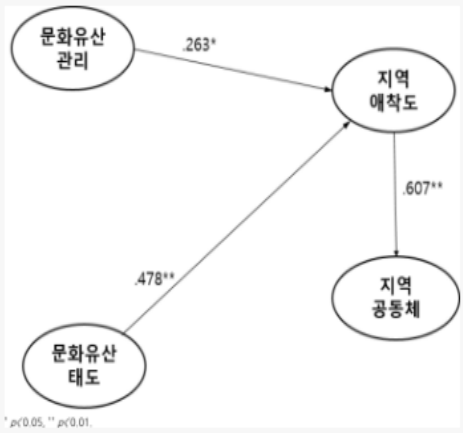


그림 2. 인과모형의 추정 결과 *p(0.05, **p(0.01.

출처 : 채진경(2022)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유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

↓

지역애착도

↓

주민간 신뢰도 향상, 참여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여한다."

도민 평생교육 요구와 남도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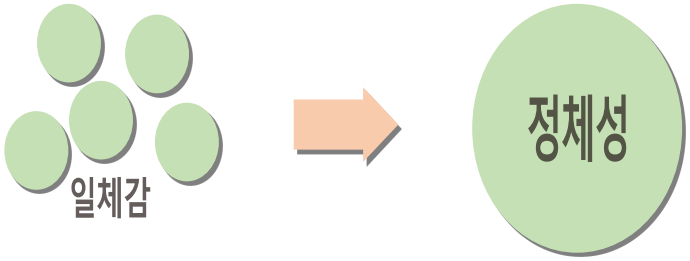
민선7기 도정과제 '새천년인재육성 프로젝트 ' 일환으로 도민 평생교육 개발 연구(2020년)
- 주민 평생교육 요구 조사 결과 -

수강희망강좌	**남도학 응답 순위 6위(17개)** ① 문화와 여가, ② 노년학, ③ 인문학교실, ④ 4차산업혁명시대 살아가기, ⑤ 일자리, 창업, ⑥ 남도학 순으로 응답
주제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	**전남지역의 역사와 문화 이해(81.1점)**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교육'(85.6점),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시민의식 교육'(85.6점) 다음으로 중요하게 인식
평생교육 주제 수요	**남도학 44.4%응답** '시민교육'(50.0%), '남도학'과 '마을공동체 가꾸기'(각 44.4%), '인문학교실'(27.8%) 등의 순으로 높았음

남도다움·남도인다움의 연원을 찾아 : **남도학 첫걸음**

- 일체감 : 남과 어우러져 하나로 되는 감정
- 정체성 :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남도학은 남도인의 일체감을 이루는 바탕이 무엇인지 찾아가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추동하는 학문" - 남도학 첫걸음 발췌



7

남도다움·남도인다움의 연원을 찾아 : **남도학 첫걸음**

정체성의 핵심 이름, 남도학

전라남도 = 남도
- 대중가요 '남행열차' : 이난영, 김수희 등 노래제목으로 사용
- 남도문화제 : 남도소리, 남도민요 등 민속음악에서 소리권으로서 '남도'
- 남도답사 일 번지 :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유홍준 저) 부제

* 남도 : 전라남도라는 지역 명칭, 전라남도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문화의 통칭

지리적, 역사적 배경 + 도민에게 친근한 "남도학 첫걸음 " 으로 사업명 설정

8

2. 남도학의 현재

9

남도학 첫걸음의 지향점 및 목표

남도학 지향점

-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지역학
- 공동체 회복을 위한 참여형 지역학
- 지역 활성화와 재생을 위한 실천적 지역학

남도학 교육목표

주민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학의 즐거움을 전해줌으로써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 스스로 미래 발전의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0

남도학 첫걸음 구성

전남의 자연

전남의 정체성
의향, 예향, 미향

서설 : 남도학의 첫 장을 열며 / 06

제1부 남도의 자연, 남도인의 문화 / 22

제1장 남도의 산과 강 / 24
제1절 물이 갈라놓은 곳, 산 이야기 / 26
제2절 남도를 품은 어머니, 강 / 40

제2장 섬과 바다 따라 출렁인 남도 / 64

제3장 자유와 정의를 향한 남도인의 투쟁 / 88

제4장 남도의 멋 / 118
제1절 한국고전문학의 보고(寶庫), 남도 / 120
제2절 한국현대문학을 견인하는 남도 / 134
제3절 예향의 본고장, 남도의 미술 / 152
제4절 한(恨)과 흥(興)을 담은 남도소리 / 168
제5절 신명나는 남도인의 민속놀이 / 182

제5장 남도의 맛 / 194
제1절 전남 방언 / 196
제2절 풍부한 자연과 넉넉한 인심이 낳은 남도 음식 / 208

전남의 역사 :
남도인의 경험

미래 비전

제2부 남도의 역사, 남도인의 기억들 / 222

총론 :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기억의 반전(反轉) / 224

제1장 선사시대와 마한·백제 / 238

제2장 전라도의 탄생과 고려의 역사 / 254

제3장 조선시대의 남도 / 272
제1절 임진왜란에 대한 새로운 기억 / 274
제2절 남도 정신의 바탕을 이룬 선비문화 / 290
제3절 남도인의 인성을 기른 유교 문화유산 / 306

제4장 남도의 근대 / 322
제1절 목포의 개항과 근대민족운동 / 324
제2절 근대 남도 여행 이야기 / 338

제5장 해방 직후 남도, 대중들의 투쟁과 삶 / 354

제6장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 남도 / 368

제7장 남도 여성의 발자취를 따라 / 382

보론 : 전남의 미래, 블루-이코노미 / 400

11

도민행복대학 추진 개요

지원대상 - 도내 대학

지원금액 - 기관별 25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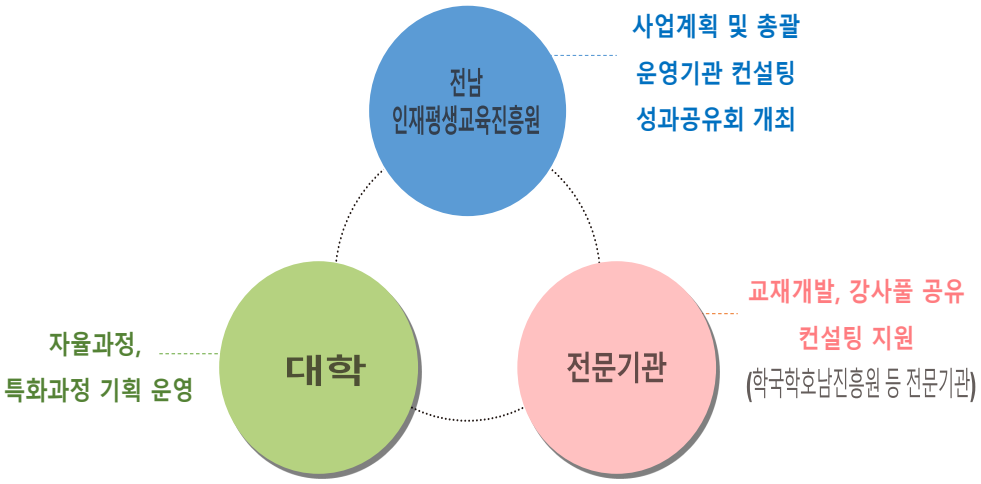
주요내용
- (일반강좌) 이론교육 + 답사
- (특화강좌) 현장체험 교육

일반강좌 구성 내용
- 공통과정* 4차시 이상 편성
- 기관별 자율과정 편성

* 공통과정 : 남도학 첫걸음 교재 활용

12

남도학 첫걸음 협력 기관



13

남도 이해를 위한 부교재 개발

14

남도학의 교수법

강의 + 참여형

- 강의 : 지역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
- 토론 : 우리 지역 문화 스토리텔링 발굴 및 발표
- 탐방 : 지역 유적지 및 문화유산 현장을 전문가와 동행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학습
- 감상 : 지역의 소리, 그림, 영화 등을 전문가를 초빙하여 감상
- 전통문화체험 : 판소리, 다도 등 남도의 문화를 경험

15

2023년 남도학 추진 결과

구 분			참여 인원	주요내용	만족도
남도학	총 4개소		344명	총 8개 프로그램	95점
	순천	순천대학교	97	(일반) 남도"길" 따라 동행/이론+체험1회 (특화) 성찰의 시공간, 남도를 밟다/탐방2회	-
	나주	호남문화콘텐츠	84	(일반) 남도 역사문화교실 / 이론+체험1회 (특화) 진도·완도 섬 역사기행 탐방2회	-
	무안	목포카톨릭대학교	75	(일반) 남도지역의 자연과 문화/이론+체험2회 (특화) 남도의 섬, 흑산도 탐방1회	-
	목포	목대평생교육원	88	(일반) 남도의 역사와 문화/이론+체험1회 (특화) 자산어보/탐방1회	-

16

남도학 운영 사례(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17

남도학 운영 사례(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일상이 여행 : 남도의 골목길 투어

- **특화내용 :** 바다 물때지식에 적응한 남도인의 삼과 문화 : 표류문화, 남도민의 물 때 지식 등 특화주제로 단순히 교양 차원의 교육 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 방안까지 논의
- **특별답사 :** 자산어보의 고장 흑산도를 찾아서 전남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유산을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 이해
- **주요성과 :** 전남의 섬이 지닌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섬의 문화자원과 유배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

18

2023년 남도학 참여자 소감

사회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뗄 수 없는 건설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넘어 정치경제, 사회 전반에 관해 보다 다양한 주제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음

지역민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남도학>을 대표적인 교육사업으로 모델화하면 좋겠음.

아름다운 남도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소모임이 가장 기억에 남으며 조원들과 지역 스토리텔링 과제를 해결하는게 즐거웠습니다.

- 지역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지역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 참여를 촉진
- 역사, 지리, 문화 등을 넘어 정치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교육 욕구 환기
- 이론 + 답사, 체험, 소모임을 통한 토론 등 공동체 활동 병행

19

3. 시민교육으로서의 남도학

20

평생교육에서 남도학의 의미

1. 평생교육에서 '지역 ' 의 의미 변화

행정중심 평생교육 공간 → 지방자치적 평생교육 공간 → 인적자원개발 공간

인적자원개발 공간으로서의 평생교육은
지역 주민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민참여 교육이 활발해져야하며,
교육이 지역의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 광주전남연구원(2020)

21

남도학의 프로그램 분류 체계

인문교양교육 –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 역사, 전통 강화

시민참여교육 –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시민 리더역량 프로그램

22

지역학과 시민교육

지역학의 정의

"지표면의 일정 공간을 토대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유무형의 자취들, 즉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지역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학문, 인간 중심의 가치들을 찾고 그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실천학문" – 고석규(2005)

시민교육의 정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자질을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것" – 박상옥(2018)

23

시민교육의 기본적 요소

〈표 1〉 시민교육의 기본적 요소

시민적 지식	시민적 가치와 태도	시민적 기술 및 참여
사실 (fact)	자기이해 (self-understanding)	지력과 판단력 (intellect & judgement)
이해 (interpretation)	타인 존중 (respect for others)	의사소통 (communication)
개인적 역할 (personal role)	민주적 가치의 존중 (respect for democratic values)	사회적 행동 (Social action)

* 출처: 이해주(2010). 시민교육의 의미와 방법. 시민교육 현장지침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6-47.

24

지역학 강좌의 내용 요소

* 지역학의 교육목적 : 정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에 대한 지식습득, 지역사의 객관적 비판적 이해
전통과 정체성의 구별

다름을 고유 가치로 인정, 다양성과 정체성 조화
지역 내외적 상호관련성 이해

상호공존 관계 이해, 의사소통 능력 배양
공동선의 추구

* 김정은(2017) 참조

25

시민교육으로서 남도학

남도학 교육목표

주민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학의 즐거움을 전해줌으로써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 스스로 미래 발전의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남도학이 과거의 역사 등 사실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실천학문으로 역활할 수 있도록 구성

↓

도민이 주체가 되어 전남에 대해 배우고,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회 참여 활동으로서 시민교육으로 역할 수행

26

4. 남도학의 미래 : 과제와 방향

27

남도학의 미래 : 과제

1. 교육 콘텐츠, 네트워크, 대상 확장

- 지역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이해를 넘어 지역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내용, 방법 구성
- 기관, 시군, 광역 등 다양한 남도학 프로그램 기관 연계로 지역학 아젠다 발굴
- 다양성 이해, 다양해지는 인구구성(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반영, 남도학 대상 확대
-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프로그램 질 관리

- 향후 대학 과정 연계, 도민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피드백

28

남도학의 미래 : 방향

1. 남도학 평생학습 확장

시민참여로 이질 수 있는 가교로서의 남도학

남도학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의 과제를 논의하는 장 마련

- 도민행복대학 참여자 중심 "정책세미나" (2024. 10.) – 남도학 방향 논의 및 성과 공유
- 남도학 연구 모임, 지역 스토리텔링 공모전 등 남도학을 통한 도민 지역 참여 유도
-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뿐 아니라 도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교육내용 재구성

남도학 교육 대상 확장

지역학 관심층 외의 다양한 도민 참여 유도

- 이주노동자 및 해외유학생, 생활문해교실과 연계한 고령자 대상의 쉬운 지역학 교육

29

남도학의 미래 : 방향

2. 지역학 연계 확대로 공동체 강화

주제별, 권역별 다양한 접근 연계 모색

시군 간, 권역별 지역학 고리 강화로 공동체 의식 형성

시군 지역학 사례 _ 목포(목포 역사의 이야기), 여수(섬배움학교), 해남(인문학 해남 이사빛)

광역 – 광역의 지역학 프로그램 연계, 호남인으로서 정체성 형성

각 지역의 지역학 과정의 공통된 주제를 선정, 상호 교류 학습 추진(상호 현장 답사 추진 등)
=> 각 지역의 특화된 지역학 프로그램 콘텐츠 교류 + 관계자, 도민 간 인적 교류

지역 인프라를 연계한 평생학습 추진

박물관, 문화재, 전문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학 체험장 확보

30

남도학의 미래 : 방향

3. 평생교육 – 대학 학위의 경계 허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과 연계

지역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도민의 학습결과 학점 인정 모색

- 미국의 Community College와 같이 이수 후 대학 편입 자격 취득과 연계, 도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지원

지역학 강좌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대학 간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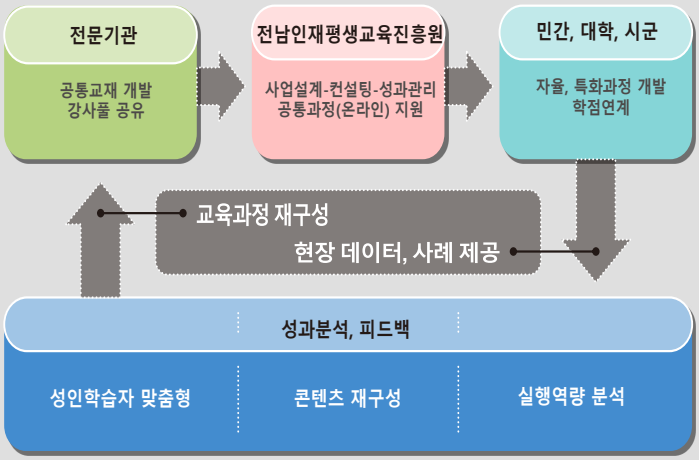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활용, 다양한 교육 콘텐츠 경험

- 각 대학에서 운영한 남도학 수업을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 콘텐츠 대학 교양과정 및 학위 과정과 연계

31

남도학의 미래 : 방향

4. 학습결과 피드백을 통한 교육 재구성



32

남도학 첫걸음이 전남다움, 전남인다움의 첫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MEMO

토론문 1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학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홍 성 덕 전주대학교

지역학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초중등학교 지역사 교육의 방향 -

홍성덕(전주대학교)

지역에 대한 관심은 1990년 지방자치제 시행을 계기로 크게 변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중앙 정부의 하향식 지역 정책과 유신 독재 이후 '한국적' 시각으로 진행된 지역 인식은 반강제적으로 획일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1980년 민주화운동 이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화하였고 지자체의 실시는 그 시각을 지역에 두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시행 이후 지역사·지역문화는 지역발전의 핵심 요소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 확산하려는 노력은 지자체장의 정치적 태도와 맞물리면서 지역연구의 붐으로 발전하였다. '지역학'에 대한 연구조직과 성과가 활발해진 것도 지방자치제와 무관하지 않다. 광역단위의 지역학을 넘어 기초지자체까지 '○○학' 연구조직이 만들어지고 아울러 문화재단 역시 설립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학의 중심에는 지역사가 있다. 이는 지역 발전을 선행 조건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 지역에 대한 이해는 지역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학 연구단체의 활동 역시 역사를 바탕에 두고 지역 연구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다른 이유는 현재의 지역에 대한 이해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역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며, 지역 정체성의 측면에서도 역사는 유용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주제발표 1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토론자는 초중등 지역교육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몇가지 보완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학 교육의 방향에 대한 작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의 책임으로 면하고자 한다.

첫째, 초중등학생에 대한 지역사 교육은 보조교재의 발간, 현장(답사)수업이 중심인 것으로 이해된다. 보조교재의 간행, 현장(답사) 수업 등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만, 교육의 목적 즉 지역사 교육의 학습목표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 교육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학습목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초등, 중등, 고등학생별로 학습의 목표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 목표가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면 지역사 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지역사 교육에 참여한 학생 및 교사들의 만족도나 교육 효과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다. 교육 목표와 연결했을 때 유용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울러서 그러한 평가가 환류되어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부연 설명이 있을 때 지역사 교육의 실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 교육과 박물관, 문화원, 문화재단 등 다른 사회교육기관에서 하는 지역사 교육의 관계이다. 기본적으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은 매우 다양하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 교육이 다른 기관(단체)의 지역사 교육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넷째,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 교육이 교육과정과 어느 정도 밀접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입시와 맞물려 있어서 국사 교육과정과 연결해 지역사 교육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초중등 교육의 상황 속에서 지역사 교육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교과 외의 학습활동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물론 지역사 교육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역사 교육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고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현장의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지역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사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역사 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해 노성태원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추가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의 마련이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역사교육에 대한 조례가 없다. 조례의 제정 유무는 교육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물론 조례가 있다고 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의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둘째, 초중등 지역사 교육에서 특히 필요한 것은 교육 목적에 관한 지역 내의 합의이다. 지역사 교육이 자칫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자(교육기관, 학생, 학부모, 전문가, 지역인)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학생의 경우 교육 목표와 방법이 보다 세심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사에 대한 오래된 담론과 연결된다.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의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와 맞물려 있다.

셋째, 초중등 지역사 교육에 대한 정보의 확대이다. 교육청에서는 많은 지역사 보조교재와 학습교안 등이 제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유 체제가 없다. 그저 일시적으로 제작하고 끝나는 일회성 사업으로 보여진다. 보조교재를 한 번 찍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배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민들 특히 학부모에게도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 누리집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넷째, 교육 주체의 역량에 관한 문제이다. 노성태원장도 지적하였지만 초중등학교의 교사(지역사 교육 담당 교사 뿐 아니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전남교육청에서 의(義) 교육 이수를

규정한 것은 유의미하지만, 부족하다. 초중등 교사를 만나보면 지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당해 지역출신이 아닌 교사의 경우 지역에 대한 교육은 더욱 더 필요하다. 가장 유용한 방법은 역시 제도화일 것이다.

다섯째, 교육청은 지역학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 교육기관 등을 포괄하는 가칭 초중등 지역사 교육 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학생들에 대한 지역사 교육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지자체와 연계하여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 교육기관 및 교(강)사들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MEMO

토론문 2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지역학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박 정 민 전북대학교

대학(학부)의 호남학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박정민(전북대학교)

이정선 선생님의 발표문을 잘 읽었습니다. 이 발표문을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호남학, 전북학 등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성장하는 것과 달리 대학 교육에서 지역학은 그리 많지도 활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문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텐데 그 고생은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 큰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능력은 부족하지만 몇 가지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동대의 사례처럼 인문학을 중심으로 글로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와 같은 지역에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산업 생태계와 연계 등을 주안점으로 하는 상황에서 안동대의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실현되기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글로컬 사업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대학을 통합하고 지역과 학과의 벽을 허문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광역화 모집으로 귀결됩니다.

최근 의대 열풍뿐만 아니라 공대가 많이 취업하는 대기업 계열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인문학 보다 공대, 농대, 상대 등의 인기가 상승하고, 자연대, 인문대, 예술대 등 기초학문과 관련된 학과들은 더욱 암울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사철 계열의 학문은 여전히 인구론(인문대 90%가 논다) 혹은 문송(문과라 죄송합니다)의 원흉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결국 발표문에도 지적된 것처럼 학생들이 인문학 계열 학과 통폐합과 교수 to 감소, 그로 인한 전문 인력 양성의 위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대학 교육에서 특히, 전공 수업부터 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과 구성원의 의견 통일, 본부의 의지, 학교마다 처한 상황 등 다양한 장벽들이 있습니다. 또한, 점차 여러 지역 학생들이 진학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도 낮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학 관련 교육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 역시 답을 내릴 수 없지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학 기반 생태계의 구축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학을 전공하면 생계가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실제 양질의 일자리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역학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 사업 등이 가끔 있지만 편중되거나 소모성 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지역학을 전공하는 후속세대는 양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의 석·박사과정생 연구 장려금과 같은 사업을 생성하여 2~3년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박사과정은 연간 2,500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또한, 국학진흥원의 '전통 기록문화 활용 대학생 콘텐츠 공모전' 등도 주목할 만 합니다. 현재 10회까지 이루어졌고, 대상은 1,000만 원, 최우수상

은 500만 원 등 큰 상금과 상장이 걸려있어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신설 등으로 지역의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지역학에 대한 관심을 고양할 필요도 있습니다.

둘째, 실용성 있는 과목의 개발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교과목들도 훌륭하지만 이를 토대로 실무능력을 향상하는 것과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위해 융합 전공 혹은 연계 전공, 마이크로(micro) 디그리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예술창작융합전공, IAB융합전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 전공에서는 최근 트렌드에 맞춘 빅데이터, 미디어콘텐츠 등에 각자의 전공을 접촉시키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공의 심화도 좋지만 단순한 지식의 제공을 넘어 영상 제작, 빅데이터 교육, 보고서 작성 등을 교과목에 적용해야 합니다. 즉, 학생들에게 지역학을 배우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교양 교육의 강화입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전북 지역 출신이 40%를 살짝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할 생각이 별로 없고 서울, 경기 등으로 가려고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북대를 졸업해도 심하면 기숙사-강의실-학교 앞 식당 정도만 다니고 졸업하는 사례들도 발생하여 전북 지역이 몇 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졌는지 인구는 어느 정도인지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학을 교양 필수로 하여 간략하게라도 지역의 행정, 산업 구조, 정체성, 역사와 문화, 문학, 예술 등을 다양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인 이정선 선생님께서 저 보다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이 외에도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3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지역학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정 훈 목포대학교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지역학 교육 어떻게 할것인가?

한정훈(목포대학교)

우리 지역 대학에서의 호남학 교육에 관한 두 편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관한 토론으로 발표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주제별로 한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한다. 먼저 이정선 교수님은 대학 학부의 호남학 교육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대학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학과 홈페이지 등에서 지역 대학의 전공 학과 정보와 교육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북·전남·광주지역 대학(학부)의 호남학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발표자도 언급하였듯이, '인문학의 위기', '지역 소멸' 등의 추세 속에서 대학생들은 예전에 비해 지역학(호남학)에 크게 관심이 없다. 대학생들은 교양 수준의 지역학에는 관심이 있지만, 지역학을 택해서 전공자로 성장할 확률이 높지 않다. 지역과 대학은 지역학이나 지역문화에 관심이 많지만, 정작 지역의 대학생들은 지역민보다 호남학에 크게 관심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른다.

오늘 포럼과 관련하여 두 가지에 관한 의견을 여쭤본다. ①첫 번째는 동신대학교 K-남도문화학과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신 성인 학습자 친화형 모집 단위가 호남학 교육의 또 다른 출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목포대학교도 2024년부터 미래라이프대학 국제차문화학과를 개설·운영 중이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2.0)에 따라 지역의 여러 대학에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학 관련 학과를 개설하였다. 이들 전공 학과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호남학 교육과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②두 번째는 발표에서 제외한 대학에서의 지역학 교양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실적으로 학부 교육을 통해 지역학이나 지역문화 전문가를 양성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학부의 지역학 교육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까. 전공 교육뿐 아니라, 교양 교육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지역의 역사·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호남학 교양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학부에서 시작한 호남학 교육은 대학원과 연구기관과의 연계가 필연적이다. 그만큼 호남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는 대학원과 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김창규 교수님이 발표하였는데, 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서술한 대학원 호남학 교육의 내용 구성과 지향에 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다. 발표자는 호남학이 보편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분과 학문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역학의 연구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내용에 부가하여 「"이론과 개념 + 실공간으로써 로컬(호남) +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디어"가 결합된 지역학 연구이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서술하였다. ①여기서 언급한 '미디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 질문은 인문한국(HK)사업을 통한 호남학의 성과에 관한 것이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우리 지역이 호남학 연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는 분과 학문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인문한국사업에 참여한 연구소에서 전공 대학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인문한국사업을 통해 연구 인프라,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② 하지만 그러한 활동 속에서 호남학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한 번 짚어봐야 할 것이다. 한 예로 HK사업단 아젠다와 호남학의 관련성, 호남학 전공 학문후속세대의 성장 등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의 원인과 보완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성인학습자 전형과 관련하여 두 번째 발표자도 또 호남학의 다른 연구자 그룹으로 향토사가, 문화 관련 종사자 등을 호남학 교육과 연구에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흥미롭게 다가왔다. 이에 관한 대학과 지자체 관계 기관의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제3차
호남학
연구포럼

우리가 가꾸는 지역학 풍경

토론문 4

시도민을 위한 지역학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김 명 랑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 3차 호남학 연구포럼

지역학 교육과 시민교육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실장
김명랑

목차

1. 지역학 교육의 의의
2.지역학 교육의 특성
3.주제발표를 통해 본 지역학 교육
4.인천지역학 교육 사례
5.지역학 교육을 위한 제언

지역학 교육과 시민교육

1. 지역학 교육의 의의

내용과 방법론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기능적 행위'가 아닌

지역을 통해 세계를 보게 하고	지역과 더불어 삶의 의미와 가치에 접근하게	지역에 의해서 삶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지역학 교육과 시민교육

2. 지역학 교육의 특성

지역학에서 다루는 내용을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형태로 조직해 놓은 것이라는 전제

지역에서 선정된 문화요소

지역의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독특한 준거나 근거

관심영역, 방법론 등에 따라 다른 결과로 이해될 수 있음

사회적 권위의 개입

사회 전반의 지지가 전제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자의 의지에 의해 선택될 수 있음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3. 주제발표에서 살펴본 지역학 교육

전북학, 광주학, 남도학에서 살펴본 지역학 교육

전북학

목 적

지역문화
역사

시민대학

지역사회
협력

대 상 실제성

"지역시민학"

지역특화,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

광주학

목 적

도시 가치와 발전
민주, 인권, 평화

시민대학

시민
활동가 양성

대 상 실제성

"시민활동가"

학제적 연구와 실천

남도학

목 적

지역의 정체성,
남도문화

도민대학

인문학과의
융합

대 상 실제성

"실천적 지역학"

참여형 지역학 지향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4. 인천지역학 교육 구조(2024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업에서 살펴본 인천지역학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1 본부캠퍼스
스페셜 릴레이특강

2 대학 캠퍼스

오픈특강 형식의 인천지역학 제공
명예시민학위 취득을 위한 공통 강좌로 제공

인천 밸류업

- 인천의 자연,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경험 성찰, 체험형 교육과정

지역 역사문화
- 인천섬 아카데미
- 역사문화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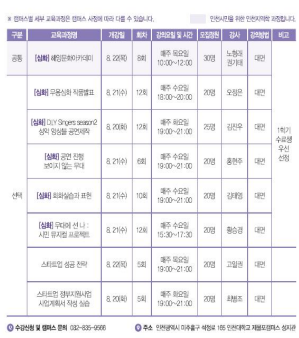
지역 발전
- 생활법률 아카데미
- (맞춤형) 웰컴 아카데미
- 기후 에너지 아카데미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4. 인천시민라이프칼리지

본부캠퍼스

대학캠퍼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4. 인천 밸류업 시리즈

인천 밸류업

4. 인천 밸류업 시리즈

인천 밸류업

5. 지역학 교육을 위한 제언

제언

시민을 위한 지역학 교육과정 수립 필요

학문인가?
교육인가?

+

일정한 순서로
조직하고 배열하는
과정 필요

교육과정 구성

교과(군)
체험 활동
(자율, 봉사, 진로 등)

편성과 운영

기존 강좌와의 조화
목표, 시간 배당, 방법,
평가 등

협의체 운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협의체 운영,
참여방안 모색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MEMO

기관소개1

광주문화재단

Ⅰ. 기본현황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 설립목적

○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현

▢ 주요연혁

○ 2010. 11. :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공포
○ 2010. 12. : 재단법인 설립 허가
○ 2011. 01. :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출범
○ 2011. 03. : 빛고을시민문화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관리운영 수탁
○ 2012. 02. : 전통문화관 개관
○ 2012. 12. : 문화바우처카드 발급률 · 이용률 2년연속 전국1위
○ 2013. 01. : 재단 중장기발전전략 선포
○ 2013. 02. :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3년 연속 우수센터 선정
○ 2015. 03. : 문화예술작은도서관 개관
○ 2015. 12. : 문화메세나 기부자 예우공간 ‘문화보듬10000센터’ 개소
○ 2016. 03. : ‘광주문화발전 중장기 발전방향 2030’ 비전 선포
○ 2016. 10. : 미디어사업단 신설(1처 2실 1단 2관 14팀) 조직개편
○ 2017. 03.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 광주플랫폼 개관
○ 2017. 12. : 무지개다리사업 우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2018. 01. : 전통문화관 한국관광공사 선정 ‘코리아 유니크베뉴’ 선정

- 2018. 12. : 미디어아트플랫폼 교육부 지정 '교육기부진로체험기관' 선정
- 2019. 01. : 市 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1위 선정
- 2019. 07.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우수기관 선정
- 2019. 12. : 문화이모작 지역교육 기관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2020. 11. : 범부처GigaKorea사업단 5G실증체험관 개관(우수기관 표창)
- 2020. 12. :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2개 분야 우수사례 선정 (코로나19대응, 적극행정 사례)
- 2021. 12.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예술인복지)
- 2022. 03. : 부패방지추진실적 우수기관 선정
- 2022. 12.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우수센터 선정(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2023. 01. : 통합문화이용권 우수지역 주관처 표창(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2023. 07. : 전통문화관 부속 희경루 위탁 운영
- 2023. 12.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우수센터 선정(문화체육관광부)
- 2023. 12. : 가족친화 인증기관 11년 연속 선정(~2026년)
- 2024. 01. : 공공영역 문화다양성 우수기관 인증
- 2024. 05. : 제5대 대표이사(노희용) 취임

▢ 주요기능

- 문화예술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홍보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
- 시민의 문화향유 및 창의력 증진
-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
-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연계사업 지원
-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Ⅱ. 경영목표와 추진전략

▢ 경영전략

비 전	「시민이 있는 문화·예술」 가치 실현, 광주문화재단

미 션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

4대 전략 목표	누림	성장	참여	실현
	함께 누리는 문화포용 서비스 제공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함께 참여하는 예술적인 미래 구상	함께 실현하는 문화행정 전문 조직 운영

12대 전략 과제				
	1 활력 넘치는 문화예술 일상화	4 예술인복지 지원 및 권리 증진	7 미래가치 창출 거버넌스 구축	10 ESG경영 선도 및 정책기능 강화
	2 모든 세대·계층을 위한 예술돌봄 실현	5 현장 맞춤형 창작활동 지원	8 광주특화 문화자원 브랜딩	11 관리체계 개선 및 전문성 강화
	3 여가문화 프로그램 확대	6 문화예술 유통 및 소비 활성화	9 문화공동체 및 인력 양성	12 경영효율화 이행 및 실현

▢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

전략목표		전략과제	세부사업 *signature2024
목표 01 누림	함께 누리는 문화포용 서비스 제공	1 활력 넘치는 문화예술 일상화	1-1. 예술로 가득찬 예술도시 광주 조성 1-2. 무등산에서 즐기는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2 모든 세대·계층을 위한 예술돌봄 실현	2-1. 대상 특화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2-2.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강화
		3 여가문화 프로그램 확대	3-1. 1인-1예술, 광주시민 생활예술 참여 활성화 3-2. 오감만족 공연 프로그램 운영 3-3. 문화감수성 신장 참여 프로그램 운영 3-4. 전통예술 기반 참여 프로그램 운영
목표 02 성장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4 예술인복지 지원 및 권리 증진	4-1. 광주예술인 복지 지원 및 권리 보장 4-2. 광주예술인 창작 역량 강화
		5 현장 맞춤형 창작활동 지원	5-1. 현장의 요구를 담은 광주형 창작 지원 5-2. 광주다운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
		6 문화예술 유통 및 소비 활성화	6-1. **문화예술의 든든한 파트너 기업 발굴.육성** 6-2. 온.오프라인 문화예술 유통 창구 운영
목표 03 참여	함께 참여하는 예술적인 미래 구상	7 미래가치 창출 거버넌스 구축	7-1. 지역의 미래 역량을 모으는 전담 거버넌스 활동 7-2. 국내외 문화예술기관 소통.연대.협력 활성화
		8 광주특화 문화자원 브랜딩	8-1. 광주를 빛낼 지역문화자산 개발 및 활성화 8-2.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거점 브랜딩
		9 문화공동체 및 인력 양성	9-1. **공생공락 예술공간 운영** ※ 10년 장기 프로젝트 9-2. 문화공동체가 여기저기 움트는 광주 조성 9-3. 광주 문화 전문인력의 발굴과 양성
목표 04 실현	함께 실현하는 문화행정 전문 조직 운영	10 ESG경영 선도 및 정책기능 강화	10-1. 시대정신에 앞장서는 ESG경영 추진 10-2. 미래과제 발굴을 위한 자체 정책역량 강화
		11 관리체계 개선 및 전문성 강화	11-1. 성과중심의 경영시스템 구축 운영 11-2. 문화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편
		12 경영효율화 이행 및 실현	12-1. 인력감축 및 개선, 조직슬림화 12-2. 기능조정, 예산절감, 시민편익 제고 12-3. 공공기관 개선과제의 조기 이행

▢ 주요발간물

연번	발간연도	저자	제목
1	2012	박선홍	『광주일백년 1권』 개정증보판
2	2013	박선홍	『무등산』개정증보판
3	2014	박선홍	『광주일백년 2권』 개정증보판
4	2014	김정호	『광주산책 상』
5	2015	김정호	『광주산책 하』
6	2015	박선홍	『광주일백년 3권』 개정증보판
7	2016	이동순	『광주문학 100년』
8	2018	나경수 외 9인	『광주학의 역사와 기원 찾기』
9	2018	국윤주 著, 김대현 驛	『독수정 명옥헌』
10	2018	천득염 著, 김대현 驛	『소쇄원』
11	2018	임준형 著, 김대현 驛	『면앙정』
12	2018	조태성 著, 김대현 驛	『환벽당 취가정 풍암정』
13	2018	임준성 著, 김대현 驛	『식영정』
14	2018	이상원 著, 김대현 驛	『송강정』
15	2019	박성천 著, 김대현 驛	『풍영정』
16	2019	박명희 著, 김대현 驛	『호가정 만귀정』
17	2019	김희태 著, 김대현 驛	『부용정 양과동정』
18	2019	정경운 著, 김대현 驛	『양파정 춘설헌』
19	2018	신정호 외 11인	『정율성 음악세계와 현대성의 지평』
20	2019	장석원 외 8인	『광주 근현대 미술의 주요 지점들』
21	2019	담다 외 3개팀	『광주의 지문Ⅰ』
22	2019	장은진 외 5인	『길』
23	2020	김형중 외 5인	『사라지는 것들에 기대다』
24	2020	아따그라제 외 3개팀	『광주의 지문Ⅱ』
25	2021	이동순 외 9인	『근현대 광주 사람들』
26	2021	공선옥 외 6인	『정거장, 움직이는 기억』
27	2021	손희하 외 8인	『말의 자리』
28	2022	고재종 외 6인	『돌아보면 그곳이 있었네』
29		김덕진 외 3인	『공원을 읽어봤습니다.』
30	2023	심영의	광주100년 : 시장과 마을과 거리의 문화사

MEMO

기관소개2

전남연구원

▢ 전남연구원

• 설립

* 전남연구원은 전라남도의 잠재력을 토대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이래로 30여 년간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산업, 도시·지역계획, 문화·관광, 행·재정, 교육·복지, 환경·생태, 농수산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연구기관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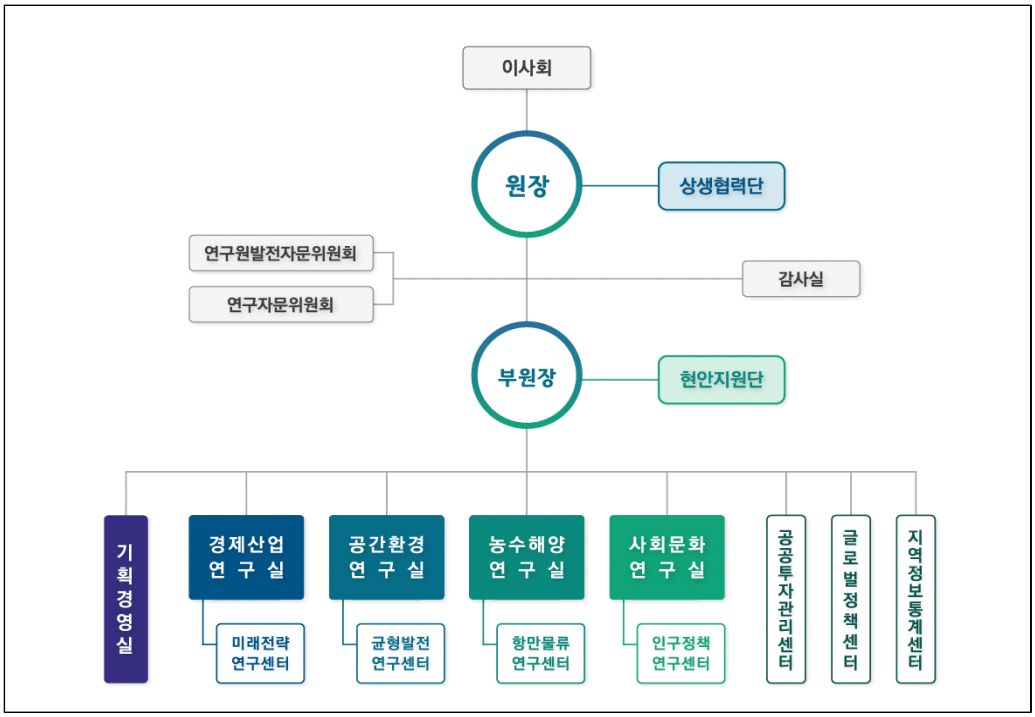
* 1991. 12. 20. 전남발전연구원 개원
* 2015. 09. 08.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 2023. 03. 27.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 운영(안) 의결
* 2023. 07. 14. 전남연구원 법인 출범
* 2024. 06. 13. 김영선 원장 취임

•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 · 장기계획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 · 연구
* 도정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조사 · 연구
* 국내 · 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 · 협력
*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 지방행정,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 · 자료의 수집 · 관리 · 배포
* 지역의 각종 경계 및 사회지표의 수립 및 분석
*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 **조직현황**

  * 기구 : 6실, 2단, 7센터



  * 위탁·보조금사업 센터(3개) : 전남도시재생지원센터,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 수도권공공기관유치지원센터

- **정·현원 : 정원 76명, 현원 47명**

  * 원장 : 1명
  * 연구위원(연구직) : 24명
  * 연구원(연구지원직) : 16명
  * 행정원(사무직) : 6명
  * 정원외 인력 : 12명(위촉직, 초빙연구위원 등)

• 2024년 연구사업 방향

[비전]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견인하는 정책 플랫폼"

[목표] 전남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특화정책 발굴

추진전략	역점 추진분야
글로벌 대전환 이슈 선도	- 미래 아젠다 설정 및 선제적 성장전략 발굴 - 도정 수요 맞춤형 정책지원 허브 기능 강화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혁신기반 조성	-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미래기술 융복합 농수산 경쟁력 강화
지역간 연계협력 기반 초광역 성장거점화	- 연계협력 시너지 창출 및 균형 성장 견인 - 전남 주도의 남해안권 초광역공동체 구축
자치역량 강화로 주민자치 내실화	- 주민공동체 및 자치 거버넌스 활성화 - 생애맞춤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
특화자원 연계 관광 · 문화 진흥	- 지속 가능한 전남형 관광 생태계 조성 - 로컬콘텐츠 활용 역사 · 문화 융복합지대 구축

• 주요 연구과제 수행

* 지역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획연구
* 전라남도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
* 정책현안 적시 대응을 위한 지원 및 현안연구
* 지역현안사업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수탁연구

• 지역 정책현안 연구지원 강화

* 지역 현안 연구센터 운영으로 도정 지원 및 협력
* 국내·외 주요 이슈 대응, 신속한 정책대안 제시

•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활성화

* 국내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 연구 수행
* 전라남도, 의회, 각계 전문가, 언론 등과 참여 연구 활성화
* 해외 연구기관과 학술교류 내실화

• 주요 간행물

* 『전남정책연구』 : 전남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특집주제를 선정, 종합적·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논문집
* 『JNI 이슈리포트』 : 국내외 주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미래전남의 정책대안을 제시
* 「JNI 인포그래픽」 : 전남의 다양한 이슈를 인포그래픽으로 제공
* 『글로벌 정책 인사이트』 : 글로벌 경제 통계 및 정책 이슈를 격월로 제공

• 전남연구원 구성원(연구위원)

부서	직위/직급	이 름	전공/업무분야	이메일
연구원	원장	김영선	연구원 업무 부총괄	sunkim@jni.re.kr
	부원장	김현철	연구 · 사무부서 업무 총괄	hckim@jni.re.kr
기획경영실	실장	신동훈	기획경영실 업무 총괄	dhshin@jni.re.kr
경제산업연구실	실장	오병기	경제산업연구실 업무 총괄	bkoh@jni.re.kr
	선임연구위원	박웅희	산업정책	whpark@jni.re.kr
	선임연구위원	김진이	유통 · 마케팅	jisu@jni.re.kr
	부연구위원	김원신	세제 · 재정	kws@jni.re.kr
공간환경연구실	실장	조승희	공간환경연구실 업무 총괄	shcho@jni.re.kr
	책임연구위원	나강열	도시 및 공간계획, 주거정책	kangyeol@jni.re.kr
	책임연구위원	최우람	도시설계, 주거지 재생	wrchoi@jni.re.kr
	부연구위원	김용욱	지역개발	ywkim81@jni.re.kr
	부연구위원	이상준	교통계획, 교통정책	highjun@jni.re.kr
농수해양연구실	실장	정철	농수해양연구실 업무 총괄	cheol@jni.re.kr
	책임연구위원	박은옥	해양수산, 수산정책	peo75@jni.re.kr
	연구위원	최훈도	해운·항만·물류	hdchoi@jni.re.kr
	연구위원	김태형	해양수산정책	kth@jni.re.kr
	부연구위원	김현희	환경지리, 기후변화	hhkim@jni.re.kr
	부연구위원	윤영석	농업·농촌정책	yys0126@jni.re.kr
사회문화연구실	실장	김대성	사회문화연구실 업무 총괄	dskim@jni.re.kr
	책임연구위원	심미경	복지정책, 성과관리	mkshim@jni.re.kr
	책임연구위원	김만호	한국사, 지역문화, 인문정책	mhkim@jni.re.kr
	부연구위원	이진의	지역관광, 관광마케팅	lje1985@jni.re.kr
	부연구위원	최지혜	지역경제, 노동경제	iamwise@jni.re.kr
	부연구위원	김현민	인구·청년·이민정책	inpeople0401@jni.re.kr

기관소개3

광주연구원

▢ 광주연구원

• 설립근거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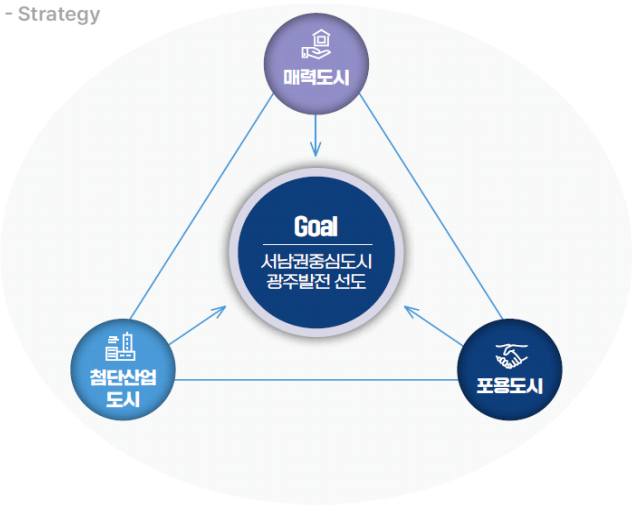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 광주광역시의 중장기 계획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과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광주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광주 발전에 이바지함
  - 市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의 조사·연구
  - 市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출판·배포
  -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 市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 등

• 주요연혁

* 1995. 6. 20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범
* 2007. 8. 6. : 광주발전연구원 분리
* 2015. 9. 8. :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 2023. 5. 30. : 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 2023. 8. 23. : 행정자치부 설립 허가
* 2023. 9. 6. : 광주연구원 개원

- VISION 체계

* Mission : 광주시민 복지 증진, 광주 발전 이바지
* Vision 기회도시 광주의 정책플랫폼
* Goal : 서남권중심도시 광주발전 선도



- 조직현황

* 1본부 5실 5센터 1팀
* 정원 51명, 현원 39명(연구직 22명, 사무직 6명, 연구지원직 10명)

• **3대 분야 및 과제**

* 첨단산업도시 : 디지털 기반 융복합 산업생태계 구축
* 매력도시 : 개방형 공간 혁신으로 머물고 찾고 싶은 도시 형성
* 포용도시 : 인권·복지중심의 건강한 공동체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형성

• **주요 연구과제**

* 기획연구 : 지역미래선도 연구
  – 광주의 미래지향적 시정 의제 및 중장기 정책개발 연구과제
* 현안연구 : 시정 현안 대응 및 대안 제시 연구
  – 시정 현안 및 정책 트렌드에 대응한 대안 제시와 정책개발을 위한 시의 성 높은 실용적 대안 정책연구
* 현안분석 : 시정 현안 적시 대응 연구
  – 현안이나 이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태 및 동향 조사 분석 관련 의견 수렴 등
* 수탁연구 : 지역 관련 분야별 법정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등
  – 수탁의뢰를 받아 수행하는 과제로 시·자치구 종합계획 및 분야별 주요계획 수립 연구 수행

• **주요 연구성과**

* 현안과 이슈에 즉시 대응하고 시정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주제 발굴 및 협력 연구 추진
  – '제22대 총선 대비 공약과제 발굴', '광주 군공항 이전 기초연구', '광주시 의원발의 조례 체감도 연구' 등
* 광주시 미래상 설계와 도시공간 재구축 연구를 통한 도시 비전 제시
  – '광주 미래 비전 2050', '광주시 원도심 공간 활용 및 상권 활성화 방안', '실증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혁신 기술기업 종합지원 체계구축 연구' 등
* 광주시장 주재 '금요전략회의'에 참석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 제시
  – '군공항 통합 이전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인구정책 전략 2.0', '3축 메가시티를 위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광주 중심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등

• **주요 간행물**

* 광주정책 Focus : 지역이슈에 대해 정책 방향 제시
* 광주 Think Net : 특집주제를 선정
* 광주경제동향 : 지역 주요 경제상황(지표)에 대한 종합적 분석
* 인포그래픽 : 시정 주요 분야, 시민 생활, 지역 주요 주제 등에 대한 정

보를 통계화 및 시각화

-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 Think Net ‘광주정책연구회’ 운영
- 정책지식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업 연구
- 市 산하 18개 공공기관 참여, 도시 비전·현안 등 공동협력 연구 체계 운영
- 매월 첫째주 수요일, 광주 주요 정책 현안, 정책 트랜드 등 학습·토론하는 개방형 포럼 ‘광주정책포럼’ 운영

＊ 시·의회·시민·언론 등이 참여하는 연구·자문 네트워크
- 시의회와 함께 지역 현안 대응 연구과제 발굴 및 협력 연구
- 정책 현장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 시민 및 시민사회 연구과제 제안 및 공동수행 등

＊ 지역·국내·외 연구교류협력 체계 구축
- 국가 지역정책 선도를 위한 전국시도연구원 협력 연구
- 남부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남부 9개 시도연구원 협력 연구
-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호남연구원 협력 연구
- 지역의 글로벌 정책선도를 위한 한일해협권·환황해 연구기관 협력
- 지역의 정책환경조성을 위해 광주정책연구회를 대학 및 민간·국책 연구기관으로 확대 등

<개원식 및 비전선포식>

<소통회의>

<광주정책포럼>

<군공항 토론회>

기관소개4

(재)전남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 (재)전남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 **설립**

*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함께 매장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고고학 전문 인력의 양성, 향토사 연구, 문화유산 활용과 전승 방안 마련, 각종 학술연구 등의 지원 활동을 하고, 2014년 1월에 개소한 전남도 출자·출연 문화유산 연구 전문기관

- **조직현황**

* 소장(직무대행) : 1명
* 책임연구원 : 1명
* 선임연구원 : 4명
* 연구원 : 4명
* 보존과학연구원 : 1명

- **국내외 학술교류**

* 지역내 유관 기관 협력 : 나주박물관, 나주문화유산연구소, 목포·순천대학교 박물관, (재)대한문화재연구원, (재)고대문화재연구원 등.
  호남학의 발전 그리고 거점 국립박물관, 지역학 연구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지역 내의 지역학 관련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 사업 진행.

* 국내 학술연구 기관 교류 :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 강원문화재연구소,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타지역 문화유산 연구기관과 학술교류 및 공동의 연구를 통해 국내의 지역학 연구의 지평 확장.

* 국외 기관 교류 : 2023년 1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반 마련 학술대회 개최. 중국 남경사범대학, 영국 버밍엄대학, 이탈리아 마체라타, 호주 국립대학과 학제를 넘나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 활동.

- **다양한 연구성과의 발간**

* 마한·역사유적 발굴보고서 : 영암 내동리 쌍무덤 등 14권 발간.

* 유교·의병정신 함양 연구총서 : 전남 종가문화 가치 규명, 동학농면혁명의 동아시아적 위상, 호남역사 바로 세우기 등 연구총서 10권 발간.

* 전남의 문화유산 학술 논문집 : 고고학·고대사·미술사·민속학·보존과학·활용 등 전남의 문화유산 관련 학술 논문집『全南文化財』22권 발간.

- **정책사업 수행 및 콘텐츠 개발 사업**

* 마한·역사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존
  ① 마한·역사문화자원 정책 개발
  ② 마한·역사유적 학술조사 : 국가·도지정 문화유산 발굴조사, 성과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중요성이 입증된 유적의 국가 및 도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 보고서 작성·발간,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 보존처리와 유물관리, 추후 출토유물 중앙·지역 박물관 등 국가귀속 업무

* 마한·역사 문화자원 DB 구축 : 전남의 마한 역사자료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전라남도 마한역사문화 기록보관소), 마한·역사 연구총서, 발굴보고서 등 발간

* 마한문화권 사회적 공감 확대를 위한 활성화사업
  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 마한유적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 개최
  ② 마한 인정도서 기초·심화연구 : 객관적으로 고증 및 복원된 마한역사를 교과서에 반영하여 중·고교생에게 올바른 역사관 주지를 위한 마한역사 기초·심화연구
  ③ 마한문화권 활성화 사업 : 마한문화권 관련 답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미술대회, 논문 경연대회, 미술대회, 브랜드·캐릭터 개발 및 콘텐츠 개발, 성과 전시회, 국내 유명 역사강사 초청강연 및 교육사업 추진 등 각종 문화행사 추진

전남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구성원

직책	이름	소속	전공	이메일
소장 직무대행	곽명숙	마한문화팀	취락	msmemory@jncf.or.kr
책임연구원	송장선	학술조사팀	구석기	sjs5854@jncf.or.kr
선임연구원	이수경	학술조사팀	기와	dream3713@jncf.or.kr
	이경민	마한문화팀	고분	wldus071646@jncf.or.kr
	문종명	학술조사팀	토기	malandro77@jncf.or.kr
	이재언	마한문화팀	고분	hersona@jncf.or.kr
연구원	모정진	학술조사팀	-	jeong@jncf.or.kr
	이지훈	학술조사팀	-	zeropepsi@jncf.or.kr
	문민상	학술조사팀	-	alstkd9956@jncf.or.kr
	최석훈	학술조사팀	-	flashcross@jncf.or.kr
보존과학연구원	손서영	마한문화팀	디지털	son0012@jncf.or.kr

전남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대표 성과

구분	단행본명	저자	발행일자	출판사
마한문화 정립연구 연구총서	전남의 마한유적	전남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2019. 03. 29.	플랜에이
	전남의 마한 분묘유적Ⅰ·Ⅱ		2020. 05. 29.	플랜에이
	전남의 마한 취락유적Ⅰ·Ⅱ		2021. 10. 29.	플랜에이
	전남의 마한 생산유적		2022. 06. 27.	플랜에이
	전남의 마한 패총유적		2022. 06. 27.	플랜에이
	전남의 마한 고대산성		2026. 05. 26.	호남광고산업
	마한역사문화 교육총서 "뿌리깊은 마한"		2021. 12. 10.	은하수
연구총서	전남 서남해 지역의 해상교류와 고대문화		2014. 12. 10.	혜안
	신안 흑산도 고대문화 조명		2016. 10. 31.	혜안
	영산강유역 마한제국과 낙랑·대방·왜		2018. 02. 28.	진인진
	전남지역 고대문화의 양상과 교류		2018. 02. 28.	진인진
	영산강유역 마한문화 재조명		2019. 03. 08.	학연문화사
	영산강유역 마한사회의 여명과 성장		2019. 03. 28.	학연문화사
	영산강유역 마한사회와 백제의 유입		2020. 04. 29.	학연문화사

MEMO

기관소개5

한국학호남진흥원

▢ 한국학호남진흥원

• 설립

* 훼손 및 멸실 위기에 처해 있는 호남지역 한국학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수집·보존·연구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가치에 기반을 둔 교육·연수와 전시·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상생 협력하여 2017년 9월 22일에 공동 설립. 2018년 4월 6일에 개원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공식적으로 출범

• 조직현황

* 연구원장 : 홍영기
* 현원 : 18명
  - 사무국장 : 1명
  - 연구직 : 9명(수석연구위원 1명, 책임연구위원 5명, 일반연구위원 3명)
  - 일반직 : 7명(파견직 1명, 개방직 1명, 행정원 5명)
* 정원 외 인력 : 16명(기간제)
* 이 사 회 : 15명(당연직 6명 / 선임직 9명)
  - 이사장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 국내외 학술교류

* 지역내 유관 기관 협력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광주문화재단, 광주디자인진흥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등
  호남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성과 공유 및 확산 기여
* 국내 학술연구 기관 교류 : 국학진흥협의체(한국국학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율곡연구원), 호남학 연구진흥 협의회(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역사문화학회, 남도민속학회 등 15개소),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전주박물관,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등

권역별 대표 국학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영남권), 한국유교문화진흥원(충청권), 율곡연구원(강원권) 등과 함께 국학 자료 보존 및 연구를 위해 권역별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공동사업 추진으로 전통문화 보존 및 활용 기반 구축. 호남학 관련 유관기관, 대학, 학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지역학 연구 기반 강화 및 학술교류 활성화 기여

• 보존 및 계승 / 호남권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기반 마련

* 멸실 · 훼손 위기에 처한 호남권 기록문화유산 수집 · 보존
  – 수장고 보유 현황(2024.07.31. 기준)

구분	고문서	고서	서화	목판	유물	합계
수량(점)	55,847	18,560	4,698	143	1,018	80,266

  – 지정문화재 보유 현황(2024.07.31기준)

구분	보물	국가등록문화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합계
수량(점)	1건 3점	7건 91점	11건 1,672점	1건 265점	1건 18점	22건 2,049점

* 지역학 연구자료 수집 및 보존
  – 향토사 관련 기증도서 23,194책 보유 및 호남학자료실 운영

• 연구 및 진흥 / 호남한국학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 활성화 제고

* 호남권 주요 자료 발굴 및 기초연구
  – 호남 금석문 조사 및 연구
  – 호남 누정원림 종합 조사연구
  – 호남지역 향약자료 조사 및 연구
  – 한국 시권 연구
  – 호남 일기자료 연구
  – 호남의병 자료 및 유적지 실태 조사
  – 예비 지정·등록문화유산 발굴

* 심화연구 촉진 및 활성화
- 호남문헌 국역 및 편찬
- 표점영인한국근대문집선간 간행
- 호남인물 조사 및 연구
- 호남의병 및 독립운동 연구
- 호남문헌 심층연구 학술대회
- 광주 문화유산 학술대회
- 호남학 연구포럼

* 연구 네트워크 형성 및 학술교류
- 국학진흥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호남학 연구진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지역 대학, 유관기관, 학회 등 업무협약 체결

• 교육 및 지원 / 차세대 연구 역량 강화 및 인재양성

* 전문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 운영
- 한국학 전문강좌
- 고문헌 국역강좌
- 호남한국학 강좌 및 학술대회 지원
- 호남한국학 저술 · 출판 지원
- 광주 · 전남 정신문화르네상스 문화원 동행
- 호남한국학 혁신인재 양성지원
- 참여연구원 모집 및 운영

• 활용 및 확산 / 성과 공유 및 보급으로 대중화 기여

* 활용 및 확산 기반 강화
- 호남한국학 종합DB 구축
- 호남학산책 이메일링서비스
- 남도정신문화 계승 및 확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 민간 기록문화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활용 제고
  - 블루투어리즘 역사문화자원 구축
  - 근현대 역사사진 스토리아카이브
  - 인문학기반 및 역사자원활용
  - 남도의병 선양사업
  - 전남종가 음식서 복원사업
  - 호남 서화가 열전

• 수탁연구 / 호남학 연구 및 진흥 역량 제고

* 지자체 등 학술연구 용역 추진
  - (고창군)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 사설 영인본 발간 용역
  - (나주시) 나주 남평주조장 소장자료 학술조사 용역
  - (곡성군) 곡성 농사일기 원문입력 용역
  - (화순군) 주자사상 학술강연회
  - (화순군) 정암 조광조 선생 서거 500주년 추념 학술대회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남도학 개발 용역
  - (광산구) 김봉호 일기 기록화 용역
  - (장성도서관) 이희웅의 기천집 원문입력 및 번역

한국학호남진흥원 구성원

구분	성명	직위	전공	이메일
	홍영기	원장	역사학	h3472@hiks.or.kr
사무국	박세종	사무국장	행정/언론	pressj@hiks.or.kr
총무부	고현영	부장(도파견)	행정	nani1030@hiks.or.kr
	곽석희	주무관	행정/역사학	abiding@hiks.or.kr
	오자민	주무관	전산	jamin@hiks.or.kr
	이성수	주무관	행정/국문학	henhearter@hiks.or.kr
	장재윤	주무관	행정	jjy@hiks.or.kr
	오정락	주무관	행정	ohjr@hiks.or.kr
	송선미	위촉연구원	행정지원	smsong@hiks.or.kr
기획연구부	조미은	부장/책임연구위원	고문서학	jsossos20@hiks.or.kr
	강동석	책임연구위원	한문학	k2d1s@hiks.or.kr
	엄찬영	책임연구위원	고전번역	suyakjai@hiks.or.kr
	나상필	책임연구위원	고전번역	kamjabong@hiks.or.kr
	김소영	일반연구위원	미술사	iyacat@hiks.or.kr
	정선아	위촉연구원	행정지원	weetjsdk89@hiks.or.kr
자료교육부	안동교	부장	한국철학	inkok6418@hiks.or.kr
	권수용	수석연구위원	문화재	heidik@hiks.or.kr
	조광현	책임연구위원	고문서학	jkh@hiks.or.kr
	조일형	일반연구위원	고전번역	choih21@hiks.or.kr
	김성희	일반연구위원	한문학	jiwuu0204@hiks.or.kr
	정다희	위촉연구위원	역사학	wlflrhks3@hiks.or.kr
	박유경	위촉연구원	행정지원	yukyung0711@hiks.or.kr

한국학호남진흥원 출판도서 현황(2018~2024)

번호	총서명	자료명	발행년도	수량	비고
1	호남한국학자료총서1	答問類編 1	2019.1.31.	1책	국역서
		答問類編 2	2020.1.20.	1책	〃
		答問類編 3	2021.2.19.	1책	〃
2	호남한국학자료총서2	棲巖日記1	2019.1.31.	1책	〃
		棲巖日記2	2019.1.31.	1책	〃
3	호남한국학자료총서6	西行錄1	2020.1.20.	1책	〃
		西行錄2	2021.1.19	1책	〃
		西行錄3	2022.5.18.	1책	〃
4	호남선현문집 국역총서1	松巖集1	2019.1.31.	1책	〃
		松巖集2	2019.1.31.	1책	〃
5	호남선현문집 국역총서2	玄洲集1-上	2020.1.20.	1책	〃
		玄洲集1-下	2019.8.30.	1책	〃
		玄洲集2-上	2020.1.20.	1책	〃
		玄洲集2-下	2019.8.30.	1책	〃
6	호남선현문집 국역총서3	綿坡遺稿	2020.1.20.	1책	〃
7	호남선현문집 국역총서4	南圃集1	2020.1.20.	1책	〃
		南圃集2	2021.2.19.	1책	〃
8	호남선현문집 국역총서5	後滄集1-상	2021.1.20.	1책	〃
		後滄集1-하	2021.1.20.	1책	〃
		後滄集2	2020.1.20.	1책	〃
		後滄集3	2021.1.19.	1책	〃
		後滄集4	2023.5.30.	1책	〃
		後滄集5	2023.5.30.	1책	〃
		後滄集6	2023.5.30.	1책	〃
		後滄集7	2023.5.30.	1책	〃
		後滄集8	2023.5.30.	1책	〃
9	호남선현문집 국역총서6	錦城三稿	2023.5.30.	1책	〃
10	호남선현문집 국역총서7	日新齋集1	2023.5.30.	1책	〃
		日新齋集2	2023.5.30.	1책	〃
		日新齋集3	2023.5.30.	1책	〃
		日新齋集4	2023.5.30.	1책	〃
11	호남선현문집 국역총서8	農圃集	2023.5.30.	1책	〃
12	호남선현문집 국역총서9	一齋集	2024	1책	〃
13	호남한국학자료총서 7	조선의 시권 1	2023	1책	〃
		조선의 시권 2	2023	1책	〃
14	일기자료총서1	定岡日記	2024	2책	〃
15	호남한국학자료총서 1	해남윤씨 녹우당 문서	2019	1책	고문서역주본
16	호남한국학자료총서 2	구례 문화유씨 운조루문서	2019	1책	〃
17	호남한국학자료총서 5	영광 영월신씨 고문서	2020	1책	〃
18	표점영인 한국근대문집선간1	일신재집	2019.1.31.	1책	표점영인본
19	표점영인 한국근대문집선간2	南坡集 莘湖集 東塢遺稿	2019.1.31.	1책	〃
20	표점영인 한국근대문집선간3	謙山遺稿	2020.1.20.	1책	〃
21	표점영인	曉堂集	2020.1.20.	1책	〃

번호	총서명	자료명	발행년도	수량	비고
	한국근대문집선간4				
22	표점영인 한국근대문집선간5	吾南先生文集 聿修齋集	2020.12.20.	1책	〃
23	표점영인 한국근대문집선간6	難窩遺稿	2020.12.20.	1책	〃
24	표점영인 한국근대문집선간7	後石遺稿	2020.12.20.	1책	〃
25	표점영인 한국근대문집선간8	後石遺稿	2020.12.20.	1책	〃
26	표점영인 한국근대문집선간9	栗溪集	2020.12.20.	1책	〃
27	표점영인 한국근대문집선간10	栗溪集	2020.12.20.	1책	〃
28	호남한국학자료총서 8	遲松私稿	2023	1책	〃
29	호남한국학자료총서 9	城南漫錄 1	2023	1책	〃
		城南漫錄 2	2023	1책	〃
30	기초자료해제집 1	장성행주기씨 금강문중	2019	1책	해제집
31	기초자료해제집 2	장흥 장흥위씨 존재고택	2020	1책	〃
32	기초자료해제집 3	남평 도래 풍산홍씨 석애문중	2020	1책	〃
33	기초자료해제집 4	호남의 유학자 경와 엄명섭	2021	1책	〃
34	기초자료해제집 5	양산김씨 군자서원	2022	1책	〃
35	기초자료해제집 6	죽산안씨 은봉 안방준 종가	2023	1책	〃
36	기초자료해제집 7	보성 제주양씨 양산항 종가	2023	1책	〃
37	수집자료해제집 1	영광 영성정씨·진주강씨·동래정씨·광주이씨·제주양씨·전주이씨 고문서	2020	1책	해제집 (영인본)
38	수집자료해제집 2	나주 풍천임씨 임전 후손가 고문서	2021	1책	〃
39	수집자료해제집 3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고문서	2021	1책	〃
40	수집자료해제집 4	고흥 여양진씨 무열사·밀양박씨 하구정·동강면 소장 고문서	2022	1책	〃
41	호남한국학향약자료집	광주향약 1-부용정 등	2022	1책	자료집
42	호남한국학향약자료집	광주향약 2-양과정 上	2022	1책	〃
43	호남한국학향약자료집	광주향약 3-양과정 下	2022	1책	〃
44	호남한국학향약자료집	영암향약 1-영보정 등	2022	1책	〃
45	호남한국학향약자료집	영암향약 2-망호정 上	2022	1책	〃
46	호남한국학향약자료집	화순향약 1-부춘면약	2022	1책	〃
47	호남한국학향약자료집	보성향약 1-복내이리송계	2023	1책	〃
48	호남한국학향약자료집	남원향약 1-원동·입암향약	2023	1책	〃
49	귀중자료영인본 1	영광 내산서원 상	2021	1책	〃
		영광 내산서원 하	2021	1책	〃
50	향약자료집성 1	나주 쌍계정 금안동계 문서 상	2021	1책	〃
		나주 쌍계정 금안동계 문서 하	2021	1책	〃

번호	총서명	자료명	발행년도	수량	비고
51	-	국학자료 기증기탁목록집 Ⅰ (2018~2019)	2023	1책	〃
52	저술지원총서 1	장춘동수창록	2022	1책	단행본
53	저술지원총서 2	경화사족과 지방양반의 교류	2022	1책	〃
54	저술지원총서 3	전남의 농악	2022	1책	〃
55	저술지원총서 4	국역 근대호남지역 화재발생과 소방활동	2022	1책	〃
56	저술지원총서 5	석아 최원순 전집	2022	1책	〃
57	저술지원총서 6	한국 남서해 도서 민가 연구	2022	1책	〃
58	저술지원총서 7	유물과 문헌의 대화 사찰문화재	2022	1책	〃
59	저술지원총서 8	만운집(국역)	2022	1책	〃
60	저술지원총서 9	과거급제와 가문의 위상 확립	2022	1책	〃
61	저술지원총서 10	돌아올 수 없는 경계인 최남주	2022	1책	〃
62	저술지원총서 11	홍살문 옆 은행나무	2022	1책	〃
63	저술지원총서 12	호남문화 인문여행	2023	1책	〃
64	저술지원총서 13	김태오 문학전집1	2023	1책	〃
65	-	호남학산책	2022	1책	〃
66	-	남도바닷길 이야기	2020	1책	〃
67	-	이경채 평전	2023	1책	〃
68	-	최한영 평전	2023	1책	〃
69	-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1운동	2021	1책	〃
70	-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학생운동	2021	1책	〃
71	(진흥원 소식지)	온빛 제1호(창간호)	2023	1책	정기간행물

기관소개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설립

* 도서문화연구원은 섬과 바다를 연구, 조사, 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1983년에 연구소로 설립되어 전라도 서남해에 대한 항해를 시작한 이래로 한반도 전 해역으로 범주를 넓혔다. 나아가 중국・일본・대만・홍콩 등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해역으로 연구범위를 확장, 심화하고 있다.

• 조직현황

* 연구원장 : 홍석준
* 운영위원회 : 15명
* 연구원 소속 국립목포대학교 전임교원 : 5명
* HK연구교수 및 학술연구교수 : 4명
* HK일반연구원 : 8명
* 신안군 소속 파견 공무원 : 1명

• 국내외 협력기관

* 국내 대학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국내 기관 : 광주전남연구원, 국립공원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도초고등학교, 신안군, 여수시,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 진도문화원, 한국섬진흥원, (사)세계마당아트진흥회, (사)한국도서(섬)학회, (사)한국생태관광협회, (사)한국섬재단, (사)황해섬네트워크,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전라남도문화재단
* 일본 : 가고시마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과,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가나가와대학교 일본상민문화연구소, 류큐대학교 국제오키나와연구소, 일본이도센터, 후쿠야마대학교 그린사이언스연구센터, 총합지구환경학연구소
* 중국 : 광동해양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 상해해양대학 해양문화연구소, 중국절강해양학원 중국해양문화연구소, 중국해양대학 해양문화연구소
* 대만 : 대만해양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연구혁신청
* 미국 : 오리곤주립대학교
* 유럽: ISLADND DYNAMICS(덴마크)

- **다양한 연구성과의 발간**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은 전문학술지『島嶼文化』(KCI 등재)와 국제저널『Journal of Marine and Island Cultures』(SCOPUS 등재)를 발간하고, 출판물로 <학술총서>·<자료총서>·<교양문고>·<섬의 생활도구 시리즈> 등을 발간하고 있음.
*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의 성과물 중 도서해양학술총서로 발간한『섬, 위기의 바람과 변화의 물결』저서가 "2024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됨.

- **국책사업 수행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09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지원사업(2009~2019)과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2020~2027)을 수행.

*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섬 지역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섬 아카데미』(지역민 대상), 『찾아가는 섬 인문스쿨』(섬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섬 포럼』(섬 주민 대상) 등을 운영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가치공유 및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생태·문화교육 및 프로그램 활동 증진에 힘쓰고 있음. 도서문화연구원의 '찾아가는 섬 아카데미'는 2022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받아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음.

* 국립목포대학교 교양학부의 교양선택 과목으로 '섬 인문학' 아젠다 관련 교양과목과 강좌들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개설하여 운영. '항구도시 목포의 이해(1학기)', '남도의 스토리텔링과 문화산업(1학기)', '남도의 역사와 문화(1학기), '도서해양의 이해(2학기)', '섬문화스토리텔링(2학기)', '남도무형문화유산의 이해(2학기)', '섬생태환경의이해(2학기)' 등을 개설하여 운영.

-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 국내 최초로 '도서해양문화학' 대학원 협동과정 '도서해양문화학' 전공, 석·박사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문 후속 및 차세대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음. 도서문화연구원이 주관하고, 6개 학과가 협력하여 '도서해양문화학' 대학원 협동과정 석사과정을 2012년에 신설하여, 2024년 2학기에 박사과정이 신설됨. 세부 전공은 도서해양사, 도서해양민속, 도서해양인류학, 도서해양정책, 도서해양생태, 도서해양문화콘텐츠, 도서해양문화관광 등.

-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 2010년 이후 매년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이 발표하는 섬과 해양 문화의 종합 학술잔치마당을 개최. 2010년 섬과 바다 관련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학술 난장을 기획. 1회 대회는 도서문화연구원 주도로 '항구도시 목포와 다도해'를 주제로 개최. 이후 강원대(울릉도·독도), 전남대(여수 금오도와 개도), 동국대(경주), 세한대(당진), 군산대(새만금), 안산연수원(시화호), 제주대(태평양시대 제주해양경제와 생태문화), 조선대(신지도) 등을 순회. 2024년 제14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해남대회를 7월 4~6일 국립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와 남악캠퍼스 및 전남 해남과 영암 일원에서 '살고 싶은 연안, 유동하는 바다'라는 주제로 개최함.

- **섬과 바다 관련 DB구축을 통한 자료센터**

* 섬과 바다 관련 문자자료 온라인 서비스 : 도서문화연구원 소장 섬과 바다 관련 문헌자료는 국립목포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서 바코드 시스템으로 등록하여 실시간 검색·이용이 가능. 2024년 8월 현재 도서문화연구원 소장도서는 기증도서를 포함하여 약 3만 권이 비치되어 있음.
* 연구자료 DB구축을 통한 비문자자료 기본정보 서비스 : 우리 연구원은 1983년에 개소한 이래로 섬 연구자 및 섬 주민들의 기증자료 10,000건, 섬 답사에서 수집한 생활도구 1,500여 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 자료는 섬 연구의 장기 지속을 가능케 하는 동력으로 작동함

• 도서문화연구원 구성원

직 책	이 름	소속	전공	비고
연구원장	홍석준	도서문화연구원/인문콘텐츠학부	문화인류학	원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최정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부원장
	고두갑	경제무역학부	경제학	
	김경옥	도서문화연구원	역사학	
	김병록	행정언론미디어학부	행정학	
	김선태	국어국문문예창장학부	국어국문학	
	김정목	식품제약공학부	식품공학	
	김종욱	식품제약공학부	식품공학	
	류동영	식품제약공학부	식품공학	
	박성현	도서문화연구원	도시개발학	
	송기태	도서문화연구원	민속학	
	오창현	인문콘텐츠학부	인류학	
	이경엽	국어국문문예창장학부	민속학	
	최성환	도서문화연구원	역사학	
	홍선기	도서문화연구원	생태학	
교수 (전임교원)	김경옥	도서문화연구원	역사학	
	박성현	도서문화연구원	정책과학	
	송기태	도서문화연구원	고전·민속문학	
	최성환	도서문화연구원	한국지방사	
	홍선기	도서문화연구원	환경계획학	
HK연구교수 (학술연구교수)	김재은	도서문화연구원	개발과학	
	이경아	도서문화연구원	문화인류학	
도서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김동일	도서문화연구원	고고학	
	선곡유화	도서문화연구원	다문화교육	
HK일반연구원	김개영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국문학	
	김치완	제주대학교 철학과	철학	
	문경연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국제지역전공	문화인류학	
	임한규	수산생명의학과	수산학	
	정법모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문화인류학	
	최정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한정훈	인문콘텐츠학부	역사학	
	정남식	도시계획및조경학부	관광자원학	
신안군소속 파견 공무원	추양지	신안군 지방전산주사		

• 도서문화연구원 대표 성과

＊ 학술지

구분	학술지명	비고
국내학술지	도서문화	-1983 창간 / 2007 KCI등재후보 / 2010 KCI등재 -연 2회 발간(6월, 12월)
국제학술지	Journal of Marine and Island Cultures	-2012 창간 / 2020 SCOPUS 등재 -2022 JCR(Journal Citation Reports) Q1저널(인류학 분야), Q2저널(문화연구 분야) 등급 획득 -연 3회 발간(4월. 8월, 12월)

• 학술총서(최근 5년)

번호	구분	저서명	저자	발행일자	출판사
1	학술총서	해양강국 고려와 전남	강봉룡 외 11명	2019.03.30	민속원
2	학술총서	섬과 바다의 민속연구, 그 행로와 전망	나승만 외 34명	2019.04.19	민속원
3	학술총서	도서학	홍선기	2019.05.25	민속원
4	학술총서	수군진, 물고기 비늘처럼 설치하다	김경옥	2019.05.25	민속원
5	학술총서	청산도 사람들의 삶과 문화	김경옥 외 7명	2019.05.30	민속원
6	학술총서	도서연안의 생물문화다양성과 생태가치-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언-	홍선기	2019.05.30	민속원
7	학술총서	『조선다도해여행각서』의 길을 따라	이혜연, 고광민	2019.06.12	민속원
8	학술총서	섬 경관론-도서연안의 경관과 생태계 서비스-	김재은	2019.06.25	민속원
9	해양문화 연구총서	해신과 바다의례	강성복 외 18명	2019.12.31	민속원
10	해양문화 연구총서	동아시아의 표류	김강식 외 14명	2019.12.31	민속원
11	기타	섬을 읽는 15가지 열쇠말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20.08.27	도서출판 남도
12	해양문화 연구총서	섬과 바다의 전통지식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20.10.20	민속원
13	해양문화 연구총서	어촌사람들의 삶과 생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20.10.20	민속원
14	학술총서	남도의 섬과 바다 이야기	고석규	2021.03.30	민속원
15	학술총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10년, 진단과 전망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21.07.20	민속원
16	해양문화 연구총서	갯바위를 둘러싼 공동체와 어업기술	고광민 외 14명	2021.10.08	㈜크레펀
17	해양문화 연구총서	갯벌의 어민생활과 어로활동	고광민 외 12명	2021.10.08	㈜크레펀
18	학술총서	섬, 위기의 바람과 변화의 물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23.05.30	민속원
19	학술총서	섬의 변화와 혼돈, 적응과 지속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23.05.30	민속원
20	교양문고	수선화의 섬 선도	최성환 외 5명	2023.05.29	민속원
21	교양문고	섬 인문학 산책 1 섬과 바다 유산의 다양성과 풍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23.05.30	민속원
22	교양문고	섬 인문학 산책 2 섬과 바다 문화의 변화와 지속성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23.05.30	민속원

MEMO

기관소개7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1. 설립목적

남도문화연구소를 비롯한 5개 연구소 및 연구센터를 산하기구로 둔 연구원으로서, 섬진강과 남강 권역을 포함한 지리산권의 역사, 문화, 사상, 생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밝히고, 그러한 결과물을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화함으로써 포괄적인 남도 인문학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2. 연구소 연혁

번호	년 월	연 혁
1	1999년 8월	순천대·경상대 '지리산권 문화연구센터 설립·운영 협약' 체결
2	2002년 1월	연구원 건립 사업 국회에서 확정
3	2003년 1월	연구원 건립 설계비 확보
4	2005년 1월	연구원 건물 시공
5	2007년 1월	초대 연구원장 사학과 홍영기 교수 임명
6	2007년 3월	연구원 건물 완공
7	2007년 4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 및 지리산북부사무소와 MOU체결
8	2007년 4월	연구원 개원, 남도문화연구소를 산하 연구소로 귀속시킴
9	2007년 8월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MOU체결
10	2007년 9월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 사업 수주
11	2009년 5월	중국 운남대학교 민족연구원 MOU체결
12	2010년 9월	제2대 연구원장 국어교육과 최현주 교수 임명
13	2013년 2월	제3대 연구원장 사학과 강성호 교수 임명
14	2014년 2월	지리산권 문화원장협의회 MOU체결
15	2014년 4월	문화다양성 정책개발을 위한 공동협약
16	2014년 5월	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MOU체결
17	2014년 6월	남원문화대학 MOU체결
18	2014년 6월	여순연구센터 설립
19	2014년 8월	청암대 재일코리아연구소 MOU체결
20	2014년 9월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수행(2년간)
21	2014년 9월	시민교육연구센터 설립
22	2014년 10월	불교문화연구센터 설립
23	2014년 12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MOU체결
24	2015년 1월	생태문화연구센터 설립
25	2015년 10월	인문학대전 토대연구 10권 발간

번호	년 월	연 혁
26	2015년 11월	중국 구강학원 여산문화연구중심 MOU체결
27	2015년 11월	동아시아산악문화연구회 국제 학술대회 개최 - 중국, 일본, 베트남 참가
28	2015년 11월	제4대 연구원장 건축학부 남호현 교수 임명
29	2018년 3월	제5대 연구원장 사학과 이 욱 교수 임명
30	2021년 9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수주
31	2022년 3월	매거진차와문화 MOU 체결
32	2022년 3월	(재)하동녹차연구소 MOU 체결
33	2022년 4월	매암차문화박물관 MOU 체결
34	2022년 9월	보성군 MOU체결

3. 연구원 및 임원현황

번호	성명	직위	이메일
1	이 욱	원장	lwwsh@sunchon.ac.kr
2	이종수	조교수	su5589@sunchon.ac.kr
3	소병철	부교수	oeros10@hanmail.net
5	양정현	학술연구교수	yachagye@naver.com
6	박미경	전임연구원	corsorl@naver.com
7	정영식	전임연구원	doit3030@hanmail.net
8	박찬모	HK 연구교수	zhanmo@hanmail.net

4. 운영위원회

번호	성명	소속	직위	임기	비고
1	이 욱	인문예술대학 사학과	원장	-	당연직
2	이종수	인문예술대학 사학과	교수	2023.3.16.~ 2025.3.15.(2년)	임명직
3	소병철	인문예술대학 철학과	교수	2023.3.16.~ 2025.3.15.(2년)	
4	최수임	생명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전공	교수	2023.3.16.~ 2025.3.15.(2년)	
5	천지연	생명산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교수	2023.3.16.~ 2025.3.15.(2년)	
6	장동식	경제무역학부 무역학 전공	교수	2023.3.16.~ 2025.3.15.(2년)	

5. 연구소 수행 현황

(원: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책임자	공동 연구원수	연구기간	연구비	지원기관
1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하동선언] 기본계획수립	이욱	5명	2022.06.07. -2022.07.08	6,200	민간
2	한국 전통 제다 기법의 역사적 원형 복원과 현대적 계승을 위한 DB구축	이욱	14명	2021.09.01. -2027.08.31	1,918,488	한국연구재단
3	순천 정유재란 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학술대회 용역	이욱	7명	2021.07.05. -2022.09.12	14,250	순천시청
4	지리산권 차문화의 역사적 원형 복원과 현대적 계승 연구	이욱	3명	2020.09.01. -2021.01.31	8,000	순천대학교
5	광의면지 편찬 용역 사업	홍영기 최현주	14명	2009.05.01. -2011.06.30	151,000	광의면지 편찬위원회
6	화순군지 발간 용역 사업	홍영기	45명	2008.04.09. -2010.07.08	430,000	화순군청
7	인문한국지원사업(지리산권 문화 연구)	홍영기	12명	2007.11.01. -2017.10.31	4,500,000	한국연구재단

6. 연구소 주요 사업

번호	주요 사업명 / 주요 사업내용
1	지리산권 문화 연구
	‘지리산권 문화 연구’는 지리산권 역사.문화.생태에 관한 총체적이고 통섭적인 연구 활동이다. 이 연구는 지리산권의 문화와 생태에 나타난 지역성과 역사성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생산적 활동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리산권 문화를 통해 이상사회와 지식인상을 집중적으로 조망함으로써 한국의 이상사회 .지식인상 담론이 추구해 온 인문학적 가치를 성찰하고, 그 미래상을 모색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2	한국 전통 제다 및 차 문화 연구
	지리산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차를 재배한 곳이며, 그 주변의 시군은 지금도 한국을 대표하는 차 산지이다. 차는 처음에는 약으로 사용되다가 점차 기호 음료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나아가서는 차를 마시는 과정이 다양한 의례들과 결부되면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차는 단순한 기호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를 음용하는 과정에서 심신의 안정을 부여하는 이른바 웰니스(wellness) 음료로서 각광받고 있다. 제국주의 시대에 서양에 소개되어 수요가 급증한 이래, 최근 들어 건강기호 식품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못지 않은 역사와 전통, 가치를 지닌 한국 전통차와 차문화의 복원, 계승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7. 단행본 발간자료

번호	발간자료명	ISBN번호	발간년월
1	선인들의 지리산 기행시2	979-11-55165-28-7	2016년 02월
2	선인들의 지리산 기행시3	979-11-55165-29-4	2016년 02월
3	순천 양천허씨의 임란기 구국활동과 충렬사	978-89-59339-37-2	2015년 10월
4	지리산과 이상향	978-89-59339-30-3	2015년 10월
5	지리산권 불교의 사상과 문화	978-89-59339-31-0	2015년 10월
6	지리산권의 생태적 가치	978-89-59339-34-1	2015년 10월
7	지리산의 문화와 장소 정체성	978-89-59339-34-1	2015년 10월
8	지리산의 신앙과 풍수	978-89-59339-32-7	2015년 10월
9	지리산의 저항운동	978-89-59339-33-4	2015년 10월
10	선인들의 지리산 기행시1	979-11-55164-52-5	2015년 08월
11	여순사건자료집 Ⅱ	978-89-59338-80-1	2015년 07월
12	여순사건자료집 Ⅲ	978-89-59339-18-1	2015년 07월
13	여순사건자료집 Ⅳ	978-89-59339-19-8	2015년 07월
14	여순사건자료집 Ⅰ	978-89-59338-79-5	2015년 07월
15	지리산권 유학의 학맥과 사상	978-89-59339-20-4	2015년 06월
16	지리산권 인물의 삶과 정신	978-89-59338-96-2	2015년 06월
17	지리산문학의 새로운 지평	978-89-59338-97-9	2015년 06월
18	지리산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한중일 명산문화	978-89-59338-98-6	2015년 06월
19	지리산권 동학농민혁명	978-89-59337-54-5	2014년 08월
20	구례향토문화의 길잡이 , 문승이	979-11-55220-26-9	2013년 11월
21	남원 호경마을의 역사와 문화	979-11-55160-16-9	2013년 05월
22	지리산권 문화와 인물	978-89-27902-60-7	2013년 05월
23	지리산의 장소와 경관	978-89-27902-59-1	2013년 05월
24	지리산과 한국문학	979-11-55160-17-6	2013년 04월
25	지리산의 종교와 문화	979-11-55160-15-2	2013년 04월
26	지리산과 유람문학	978-89-84339-72-9	2013년 03월
27	지리산 유람록5	978-89-84336-96-4	2013년 01월
28	지리산 유람록6	978-89-84337-22-0	2013년 01월
29	지리산 자연경관	978-89-97565-06-1	2012년 04월
30	섬진강 누정 산책	978-89-97565-13-9	2012년 02월
31	지리산의 전통사찰	978-89-97565-00-9	2012년 02월

번호	발간자료명	ISBN번호	발간년월
32	머무르고 싶은 지리산의 명소 100선	978-89-95957-98-1	2011년 11월
33	지리산 , 바람은 풍경으로	978-89-93003-95-6	2011년 09월
34	지식인과 인문학	978-89-84339-41-5	2011년 08월
35	지리산 누정기 선집	978-89-81074-52-4	2010년 10월
36	지리산권 풍수자료집	978-89-81074-53-1	2010년 10월
37	지리산권의 큰 나무	978-89-93003-82-6	2010년 10월
38	남원노봉서원고문서	978-89-93003-74-1	2010년 08월
39	백발의 소년 빨치산	978-89-93003-73-4	2010년 08월
40	지리산 유람록4	978-89-84338-29-6	2010년 08월
41	지리산과 명산문화	978-89-93003-71-0	2010년 08월
42	지리산권 서원자료 선집 2	978-89-93003-75-8	2010년 08월
43	지리산 한시 선집: 덕산 산청 함양 운봉	978-89-81074-49-4	2010년 06월
44	남명학파 잠명류 집성	978-89-96151-54-8	2009년 10월
45	지리산 한시 선집. 청학동	978-89-81074-42-5	2009년 10월
46	지리산 한시 선집 , 천왕봉	978-89-81074-41-8	2009년 10월
47	지리산권 고지도 선집	978-89-96151-53-1	2009년 10월
48	지리산권 사찰 제영시	978-89-90605-89-4	2009년 10월
49	지리산권 서원자료 선집1	978-89-90605-91-7	2009년 10월
50	지리산권 영호남지식인의 수기 자료선집	978-89-81074-39-5	2009년 10월
51	지리산권의 금석문	978-89-90605-90-0	2009년 10월
52	지리산권의 섭생식물	978-89-90605-92-4	2009년 10월
53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공부	978-89-84337-69-5	2009년 09월
54	지리산 유람록3	978-89-84337-65-7	2009년 09월
55	지리산권 불교문헌 해제	978-89-91329-98-0	2009년 02월
56	지리산권 불교설화	978-89-91329-97-3	2009년 02월
57	지리산권 불교자료1: 간기편	978-89-91329-99-7	2009년 02월
58	전통시대 공부론 자료선집	978-89-81073-96-1	2008년 10월
59	청량산산지	978-89-81073-99-2	2008년 10월
60	한국오악자료선집	978-89-81073-97-8	2008년 10월
61	지리산권 지리지 선집	978-89-96150-81-7	2008년 09월
62	지리산 유산기 선집	978-89-96151-52-4	2008년 08월

MEMO

기관소개8

원광대학교 학문번역연구소

▢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

• 설립

* 한문이라는 특수한 전공 역량을 발휘하여 한문 문헌의 번역과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인문학적 가치 창출,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 지방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

• 조직현황

* 연구소장 : 이군선(한문교육과)
* 연구 및 운영 위원 : 이의강(한문교육과), 김창호(한문교육과), 최성엽(융합교육대학),임홍락(前익산고등학교장), 채갑병(응용수학부)
* 감사 : 김석우(역사교육과)
* 간사 : 정경훈(융합교육대학)
* 연구교수(전임연구인력) : 김보성, 김인규, 정도원

• 주요 연구과제

* 간재 자료 소장처별 정리 : 표제, 저자, 편자, 판형, 발행사항, 현소장처, 청구기호 등을 정리
* 수집한 자료의 이미지 편집 및 간략 해제 : 디지털 이미지 확보 및 문집 자료들의 차이 정리
* 중심이 되는 판본들의 내용 비교 및 글자 교감 : 용동본 · 진주본 · 화도수정본 및 원고본 비교 대조
* 『정본 간재집』 표점 및 태깅 : 범례에 따라 표점을 추가, 인명 · 지명 · 서명 · 작품명에 태깅
* DB 구축 : 간재 자료 목록, 중심 판본들 목차, 『정본 간재집』 목록(이상 EXCEL), 간략 해제, 용동본·진주본·화도수정본 텍스트, 표점·태깅·교감이 반영된 정본 파일(이상 HWP), 디지털이미지(PDF 혹은 JPG)

• **주요 연구과제 성과**

* 한문번역연구소·남명학연구소 공동학술회(간재 전우와 영남 유학) 개최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된 원광대와 경상대의 연구소가 2023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간재 및 간재 학파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함
– 『남명학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지) 80집(2024년 4월 호)에 성과물 모두 수록

* 원광대에 본 연구소 사업과 밀접한 강좌 개설
– 2022년도에'근대 호남의 한문학' 강좌 개설(2024년도에 '근대 호남의 정신과 문화'로 개명)
* 익산 고문헌 역주학술사업 수행
– 익산시청으로부터 2021~2023년 각각 4천만 원을 수주 받아 『금마일기』(1896년 익산군수 정규혁의 기록)와 『총쇄록』(1901년 익산군수 오횡묵의 기록) 번역
* 간재문고(艮齋文庫) 설치 예정
– 앞으로 발굴·매입·기증되는 간재 자료를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호남지역의 문헌자료를 수집·정리하는 작업의 밑거름을 마련
* 일본 동아시아한학연구회와 학술교류, 상해도서관 및 상해고적출판사 관계자와 성과교류
– 2024년 6월 12일 일본 統一日報, 2024년 7월 상해도서관 소식란에 소개됨

• **국책사업 수행**

* 2021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1단계 2021.9~2023.6 / 2단계 2024.6~2027.6) '간재 전우의 『간재집』 정본화와 DB구축' 수행.
* 2022년 문화재청의 '기록유산 DB 구축' 용역 참여.
* 국립안동대학교 글로컬 대학 사업단의 'K-인문 프런티어 공동 연구지원사업' 선정.

• **지방자치단체 사업 수행**

* 2019년부터 익산시청의 '익산 고문헌 역주학술사업' 수행하여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금마지(金馬志)』(익산문헌자료총서1), 대한제국기 익산 군수를 지낸 오횡묵(吳宖默)의『익산 총쇄록(益山叢瑣錄)』상편(익산문헌자료총서4) 등 출간.
* 2022년 부안문화원의 '반계 유형원 탄생 400주년 기념 기획 사업'을 수행하여 유형원을 배향한 유일한 서원이었던 동림서원(東林書院)에 관한 기록인『동림서원지(東林書院誌)』출간.

• **번역총서 출간 및 기획논문 등재**

* 간재 전우가 1877년에 지은『검본(檢本)』을 교감하고 국역하여 '교감국역『검본』: 간재 전우, 근본을 검토하다' 출간 예정.

* 『동방한문학』제91집(2022년 6월 30일 발간 호)에 연구·운영위원 1인과 연구교수2인의 논문이 기획 특집으로 등재. 정경훈,「간재 전우의 저서 간행 상황과 문제점 / 김보성,「간재 전우의『구산선생풍아』의 체재와 구성」/ 정도원,「『구산지결』과 경재 김영섭의 간재학 계승」.

* 『동방한문학』제94집(2023년 3월 31일 발간 호)에 연구·운영위원 3인의 논문이 기획 특집으로 등재. 정경훈,「간재 전우의 항일의식」/ 이의강,「간재 전우의『간재사고습유』소재 한시 일고」/ 이군선,「간재 전우의 증서류 산문 일고」.

한문번역연구소 구성원

직 책	이 름	소속	전공	이메일
연구소장	이군선	한문교육과		skklgs@hanmail.net
연구위원	이의강	한문교육과		leeyikang@daum.net
	김창호	한문교육과		kch411@wku.ac.kr
	임홍락	前익산고등학교 교장		
	최성엽	융합교양대학		csy4177@wku.ac.kr
운영위원	이의강	한문교육과		leeyikang@daum.net
	김창호	한문교육과		kch411@wku.ac.kr
	임홍락	前익산고등학교 교장		
	최성엽	융합교양대학		csy4177@wku.ac.kr
	채갑병	자연과학대학 응용수학부		rivendell@wku.ac.kr
감사	김석우	역사교육과		ksrain@wku.ac.kr
간사	정경훈	융합교양대학		juilam@hanmail.net
연구원 (연구교수)	정도원	한문번역연구소		jdwso1@naver.com
	김인규	한문번역연구소		gyu0053@hanmail.net
	김보성	한문번역연구소		creison@hanmail.net

한문번역연구소 대표 성과

구분	단행본명	저자/역자/주최자	발행/시행 일자	출판사
번역총서	금마지	남태보/이의강 외	2019.4.1	익산시
	여산·함열·용안 읍지	이의강 외	2020.8.31	익산시
	금마일기·유금마성기·금마별가	정규혁·강후진·신광수/이의강 외	2021.10.30	익산시
	총쇄록	오횡묵/이의강 외	2022.11.21	익산시
	동림서원지	김승대·이의강 공역	2022.12.30	부안문화원
학술대회 및 전문가 특강	간재 문집의 문헌적 모색	한문번역연구소·동방한문학회 공동학술대회	2022.4.22	
	간재 전우의 사상과 문학 재조명	간재 서거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22.10.15	
	『간재집』 간행과정과 영인본 간행현황	신요한(충남대학교도서관 고서실)	2021.10.7	
	고적의 표점·태깅 지침	박은희(한국고전번역원)	2022.3.19	
	전적(典籍) 문화재 조사정리 방법	배현숙(계명문화대학교)	2022.7.11	
	규장각에 기증된 간재 자료	우정훈(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관리부)	2023.1.6	

기관소개9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 설립

*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한국문화 창달과 발전을 위해 1963년 설립된 '호남문화연구소'에 뿌리를 두고, 2008년에 호남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호남학연구단'을 통합하여 설립한 종합연구기관

• 조직현황

* 연구원장 : 정명중
* 운영위원회 : 6명
* 일반연구원 : 8명
* 연구원 소속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 7명
* 한국연구재단 HK연구교수 및 학술연구교수: 10명
*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연구원 : 14명

• 국내외 학술교류

* 지역내 유관 기관 협력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5·18기념재단, 광주문화재단, 서암문화재단, 광주불교연합회 등.
  호남학의 발전 그리고 거점 국립대학 지역학 연구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지역 내의 지역학 관련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 사업 진행.

* 국내 학술연구 기관 교류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타지역의 대학 내 연구기관과 정기적인 학술교류 및 공동의 연구를 통해 국내의 지역학 연구의 지평 확장.

* 국외 기관 교류 : 중국 안휘대학 휘학연구센터, 일본 오키나와국제대학 남도문화연구소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제를 넘나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 활동.

• **다양한 연구성과의 발간**

* 지역학 전문 학술지인 『호남학』(2024년 8월 현재 75집 발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과 국내 유일의 감성인문학 전문 학술지인 『감성연구』(2024년 8월 현재 29집 발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를 매년 2회 발간.

* 지역학에 대한 연구총서 발간 : 호남문화에 대한 기층탐구에서부터 일상적인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가 호남문화연구총서와 호남학자료총서(총 100여권) 등 발간.

• **국책사업 수행 및 시민강좌 운영**

* 2008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지원사업(2008~2018)과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2018~2025)을 수행. 한국인의 보편적인 감성과 분권시대 횡단적 보편학으로서 감성인문학의 연구를 통해 『감성총서』 30권과 『트랜스로컬 감성총서』 5권 등 감성인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성과 발간.

* 시민강좌 운영 : 연구와 사업의 결과물을 학교와 연구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간 마련.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감성인문학교실(2013년~현재, 광주 운남고등학교)과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전강독반(2020년~현재)을 개설하여 강의.

*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하며 지역 내의 갈등 해결과 소통을 위한 '인문마을프로젝트'를 통해 마을공동체 삶에 대한 성찰과 지역 상생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

•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 지역학의 연구기관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지역학 연구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일반대학원 '호남학과' 개설

* 2020년 개설한 호남학과는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지역학 전문가 양성 대학원'을 기치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지역문화와 문화자원, 문학과 지역서사, 분권과 공동체 등 다양한 지역학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학문후속세대를 양성.

* 호남학과는 2024년 8월 현재 45명의 석·박사 연구자가 학업을 매진하고 있으며,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석사 6명, 박사 3명을 배출. 이들은 나주천연염색박물관, 나주학연구소, 5.18기념재단, 광산구 문화예술과,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국립순천대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양성사업단 등에서 근무.

호남학연구원 구성원

직 책	이 름	소속	전공	이메일
연구원장	정명중	호남학연구원	현대문학비평	molecula@jnu.ac.kr
운영위원	김병인	사학과	한국중세사	kimbi36@hanmail.net
	김용의	일어일문과	일본문화학	yukim@jnu.ac.kr
	이성원	사학과	동양고대사	luxlee68@jnu.ac.kr
	이주노	중어중문과	중국문학	zhongljn@jnu.ac.kr
	정경운	문화전문대학원	문화예술기획	kw518@jnu.ac.kr
	조윤호	철학과	불교철학	choyh@jnu.ac.kr
교수	정명중	호남학연구원	현대문학비평	molecula@jnu.ac.kr
	김창규	호남학연구원	중국사, 지역교류사	kimcg@jnu.ac.kr
	최유준	호남학연구원	문화학, 음악학	hoggenug@naver.com
	김경호	호남학연구원	한국철학	KH-KIM@jnu.ac.kr
	조태성	호남학연구원	한국고전문학	sijogasa@jnu.ac.kr
	김기성	호남학연구원	사회철학	philoseminar@jnu.ac.kr
	김봉국	호남학연구원	한국현대사	ssolbong@hanmail.net
참여교수 (일반연구원)	김창수	사학과	한국근세사	hangul47@jnu.ac.kr
	이희경	중어중문과	중국문화학	bokdan@daum.net
	한정훈	국어국문학과	민속학	thunderh@hanmail.net
HK연구교수	최혜경	호남학연구원	한국현대문학(시)	98-kyung@hanmail.net
	최원종	호남학연구원	문화재학	culturecnu@hanmail.net
	최창근	호남학연구원	한국현대문학(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강회진	호남학연구원	문예창작	sprain74@hanmail.net

직 책	이 름	소속	전공	이메일
	김 준	호남학연구원	사회학, 어촌사회학	joonkim100@gmail.com
	김허경	호남학연구원	한국현대미술사	nowandher@hanmail.net
	박정애	호남학연구원	미술사, 회화사	sane66@hanmail.net
	박종오	호남학연구원	민속학	kfolk@naver.com
	위경혜	호남학연구원	영화사, 극장문화사	ghwee@hanmail.net
	정혜정	호남학연구원	구비문학, 판소리	pullipari@naver.com
호남학연구원 특별연구원	기우식	광산구 마을플랫폼		woosikki0309@gmail.com
	김태완	현자의마을		youngok0215@hanmail.net
	서금석	옛돌답사		maan6767@naver.com
	장현규	마을발전소		lifepoli@hanmail.net
	장화선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chs30@naver.com
	강선화	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		kangsunhaw@hanmail.net
	김재희	백천서당(한학)		-
	박성천	광주일보		gangmul1000@hanmail.net
	박상은	그린에너지기술		nokde@naver.com
	박형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ollze@samdi.or.kr
	윤수안	필름에이지		che2003@hanmail.net
	윤영주	전남개발공사		yyjyy1@naver.com
	위평량	지역어 전문학자		pryang@hanmail.net
	한재섭	광주독립영화관		badland69@hanmail.net

호남학연구원 대표 성과

구분	단행본명	저자	발행일자	출판사
호남문화 연구총서	호남전통문화론	나경수·박만규 편	1999. 09. 30	전남대출판부
	백제계석탑연구	천득염	2000. 03. 10	전남대출판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나주	고석규 외	2001. 03. 31	경인문화사
	구림연구-마을공동체의 구조와 변동	정근식 외	2003. 02. 25	경인문화사
	남도전통주거론	천득염 외	2004. 05. 20	경인문화사
	지역전통과 정체성의 문화정치	정근식 외	2004. 11. 25	경인문화사
	호남절의록	김동수 역	2010. 02. 12	경인문화사
	국역 간재집 분언	김재희·박미향·이대연	2016. 10. 15	전남대출판부
감성연구 총서	우리 시대의 슬픔	정명중 외	2013. 03. 20	전남대출판부
	우리 시대의 분노	정명중 외	2013. 10. 30	전남대출판부
	우리 시대의 사랑	정명중 외	2014. 02. 28	전남대출판부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감성인문학연구단	2017. 05 20	도서출판 길
	애도의 정치학	정명중 외	2017. 04. 25	도서출판 길
	감성적 근대와 한국인의 정체성	김기성 외	2018. 06. 05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트랜스로컬 감성총서	감성탐사로봇 K800518호의 영화언어기록지	최혜경	2021. 05. 18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전남대 비나리패의 문예운동	정명중	2021. 05. 25	문학들
	모모는 철부지-전일방송 대학가요제의 기억	최유준·장상은	2021. 05. 31	책과 생활
	전남대 삶과마당의 문화운동	조태성	2023. 05. 30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기타 발간총서	전남향토문화백과사전	호남문화연구소	2002. 07. 30	태학사
	호남연표 1 :광주·전라남도	김동수 엮음	2006. 11. 10	전남대학교출판부
	호남인물기초자료	호남학연구단	2006. 11. 10	전남대학교출판부
	호남시단의 연구	박준규	2007. 03. 30	호남대학교출판부
	호남유학의 탐구	안진오	2007. 06. 11	심미안
	식민지 조선과 일본, 일본인	이규수	2007. 08. 30	ㅎ할미디어
	조선시대 호남의 회계문화	전성호	2007. 08. 30	ㅎ할미디어
	소쇄원 사람들	김덕진	2007. 08. 30	ㅎ할미디어
	호남의 극장문화사	위경혜	2007. 08. 30	ㅎ할미디어
	박정희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저항담론	호남학연구원	2009. 06. 18	엔터
	원로명사에게 듣는 호남이야기	호남학연구원 엮음	2013. 07. 17	전남대학교출판부
	오래된 상생의 미래	호남학연구원	2016. 05. 30	전남대학교출판부
	국역 쌍계루 시・서	호남학연구원 편	2017. 11. 17	국립공원관리공단

기관소개10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 연혁

* 본 연구소는 2007년 7월 조선후기 호남의 대표적 실학자인 이재 황윤석의 학문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부설연구소로 설립되었다. 1·2대 소장은 철학과 최영찬 교수가, 3·4·5대 소장은 한국실학학회 회장을 지냈던 사학과 하우봉 교수가 역임하였다. 2017년 9월부터 사학과 한문종 교수가 연구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 본 연구소는 호남실학에 관한 국내 유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창립 후 현재까지 호남지역에서 활동했던 실학자들의 문집을 역주(譯註)하는 한편 학술회의 개최, 연구총서 간행 등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개인의 저작으로는 가장 방대한 분량으로 문화콘텐츠의 보물창고라 할 수 있는 『이재난고』에 번역과 연구를 비롯하여 이재 황윤석의 학문과 사상을 정립하고, 호남실학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소는 언어분과, 역사분과, 사상분과, 예술분과, 과학분과, 번역분과 등 6개 분과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조직현황

* 연구소장 : 한문종
* 운영위원회 : 9명
* 일반연구원 : 6명
* 연구원 소속 전북대학교 전임교원 : 3명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장 : 6명

• 학술대회 개최 및 다양한 연구성과의 발간

* 2010년부터 고창군의 지원을 받아 『이재난고』 번역사업과 이재 황윤석과 관련한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사업을 수행. 이를 통하여 이재 황윤석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전공자 및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학술총서와 번역총서의 지속적 발간.
*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인 '조선시대 과거연보 DB구축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정리'를 수행하면서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진행과 자료 수집 및 정리.
* 이외에도 전북지역의 서원·사우에 관련된 연구, 황윤석 외에도 호남실학과 관련된 인물들을 탐구하는 등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관련 연구총서를 발간.

* 학술대회 개최 현황

No.	학술대회명	주최(주관)	개최장소	발표 논문수	개최기간
1	제 1회 이재 황윤석 학술대회 <이재 황윤석의 학문과 사상(1)>	이재연구소	전북대학교	5	2007. 12. 18.
2	제 2회 이재 황윤석 학술대회 <이재 황윤석의 학문과 사상(2)>	이재연구소	전북대학교	5	2008. 05. 30.
3	제 3회 이재 황윤석 학술대회 <이재 황윤석 학문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이재연구소	전북대학교	4	2010. 07. 02.
4	제 4회 이재 황윤석 학술대회 <이재 황윤석의 박물학적 학문세계>	이재연구소	전북대학교	4	2011. 07. 16.
5	2012년도 이재연구소 학술대회 <東-Asia 文化交流의 諸樣相>	이재연구소	전북대학교 인문대 1호관 2층 교수회의실	14	2012. 02. 07.~ 2012. 02. 08.
6	제 5회 이재 황윤석 학술대회 <이재 황윤석의 학문과 사상(3)>	이재연구소	전북대학교	5	2012. 06. 28.
7	제 6회 이재 황윤석 학술대회 <이재 황윤석의 학문과 사상(4)>	이재연구소	전북대학교	5	2013. 06. 14.
8	제 7회 이재 황윤석 학술대회 <이재학의 제 양상>	이재연구소	전북대학교	5	2014. 06. 13.
9	제 8회 이재 황윤석 학술대회 <이재 황윤석의 사상 재조명>	이재연구소	전북대학교	5	2015. 06. 12.
10	<반계 유형원과 호남실학 - 교류와 전승>	이재연구소	부안읍사무소	6	2015. 11. 13.~ 2015. 11. 14.
11	제9회 이재 황윤석 학술대회 <문·사·철을 통해 본 이재 황윤석의 학문세계>	이재연구소	전북대학교 인문대 1호관 2층 교수회의실	5	2016. 06. 10.
12	국제적 시각에서 본 반계 유형원의 실학사상	이재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대강당 세미나실	5	2016. 11. 25.
13	제10회 이재 황윤석 학술대회 <'이재학' 연구의 새로운 모색>	이재연구소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8호	8	2017. 06. 09.
14	고문서와 기록문화	이재연구소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8호	6	2017. 10. 20.
15	제11회 이재 황윤석 학술대회 < 『이재난고』 를 통해 살펴본 다양한 학문세계>	이재연구소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8호	7	2018. 06. 22.
16	2018년도 이재연구소 학술대회 <일기류를 통해 본 호남지역의 사회상>	이재연구소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8호	4	2018. 12. 01.
17	제12회 이재 황윤석 학술대회 <조선후기 박학지사 이재 황윤석의 학문과 사상>	이재연구소	고창 청소년수련관 1층 청소년극장	8	2019. 06. 21. ~ 2019. 06. 22.
18	2020년도 이재연구소 학술대회 <조선후기 호남의 역사와 문화>	이재연구소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5호	4	2020. 01. 17.
19	제 13회 이재 황윤석 학술대회 <동아시아 백과전서파 실학 -이재 황윤석을 중심으로->	이재연구소	코리아나 호텔 로얄룸	7	2020. 11. 06.
20	제 14회 이재 황윤석 학술대회 <이재 황윤석의 西行日曆과 科擧>	이재연구소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8호	10	2021. 06. 25

No.	학술대회명	주최(주관)	개최장소	발표 논문수	개최기간
21	2021년도 이재연구소 호남학 학술대회 <전북지방의 향교와 서원 사우 연구 -무진장지역을 중심으로->	이재연구소	전북대학교 인문대 2호관 402호 세미나실	5	2021. 10. 12.
22	2022년도 이재연구소 호남학 학술대회 <조선후기 호남실학자의 경제인식>	이재연구소	전북대학교 인문대 2호관 407호	6	2022. 04. 20.~ 2022. 04. 21.
23	제 15회 이재 황윤석 학술대회 < 『이재난고』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활용방안>	이재연구소	고창 고인돌박물관 입체영상실	9	2022. 07. 22.
24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방향 국회 토론회	이재연구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3	2023. 03. 03.
25	제 16회 이재 황윤석 학술대회 < 『이재난고』를 통해 본 호남의 역사와 문화>	이재연구소	고창 고인돌박물관 입체영상실	8	2023. 09. 08.
26	2023년도 이재연구소 호남학 학술대회 <정읍 태산선비문화권의 위상과 발전>	이재연구소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5호	5	2024. 01. 25.

* 단행본 발간 현황

No.	구 분	발간 목록	발간년월
1	국역총서	국역 이재유고 I	2011년 02월
2		국역 이재만록(상)	2012년 02월
3		국역 이재만록(중)	2012년 12월
4		국역 이재만록(하)	2013년 03월
5		이재국역총서 - 이재선생문집 <I>	2014년 12월
6		이재국역총서 - 이재난고 상 <II>	2015년 02월
7		이재국역총서 - 이재난고 하 <III>	2015년 02월
8		이재국역총서 - 이재난고 IV	2016년 01월
9		이재국역총서 - 이재난고 V	2017년 12월
10		이재국역총서 - 이재난고 VI	2018년 12월
11		이재국역총서 - 이재난고 VII	2019년 12월
12		이재국역총서 - 이재난고 VIII	2020년 12월
13		이재국역총서 - 이재난고 IX	2021년 12월
14	연구총서	이재 황윤석의 학문과 사상	2009년 01월
15		이재 황윤석 학문과 박학의 세계	2013년 02월
16		이재연구총서 - 이재학의 제양상	2015년 04월
17		이재연구총서 - 백과전서파 실학의 거목 이재 황윤석	2016년 08월
18		이재연구총서 - 문·사·철을 통해 본 이재 황윤석의 학문세계	2017년 01월
19		국제적 시각에서 본 반계 유형원의 실학사상	2017년 02월
20		이재연구총서 - 조선후기 박학지사 이재 황윤석의 생애와 학문	2019년 12월
21		이재연구총서 - 이재 황윤석 연구의 새로운 모색	2020년 02월
22		이재연구총서 - 동아시아의 백과전서파 실학	2020년 12월
23		이재연구총서 - 이재 황윤석의 서행일력과 과거	2021년 12월
24		이재연구총서 - 『이재난고』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활용방안	2022년 12월
25		이재연구총서 - 『이재난고』를 통해 본 호남의 역사와 문화	2023년 12월
26	기타	무주·진안·장수 지역의 향교와 서원	2021년 10월

- **학생들을 위한 지역학 학술 세미나 운영**

* 학술세미나 운영 : 지속적으로 이재 황윤석과 호남실학, 호남학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부 및 대학원생들을 위한 강의 개최.

* 학술세미나 개최 현황

No.	세미나명	주최(주관)기관	개최일시
1	이재연구소 호남실학 강좌 <호남실학과 반계 유형원> 전북대학교 하우봉 교수	이재연구소	2017. 10. 30.
2	이재연구소 호남실학 강좌 <호남실학과 존재 위백규> 전주대학교 김건우 교수	이재연구소	2017. 11. 31.
3	이재연구소 호남실학 강좌 <호남실학과 여암 신경준> 부산대학교 류명환 교수	이재연구소	2017. 12. 22.
4	이재연구소 호남실학 강좌 <호남실학과 석당 나경적> 조선대학교 안동교 교수	이재연구소	2018. 01. 18.
5	이재연구소 학술세미나 <호남의 선비문화와 공동체 의식> 한국학호남진흥원 이종범 원장	이재연구소	2019. 11. 19.
6	이재연구소 학술세미나 <조선후기 민촌서당의 무능한 훈장과 불온한 학동, 전라도의 서당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전경목 교수	이재연구소	2019. 12. 06.
7	이재연구소 학술세미나 <전북의 역사 문화적 특질>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관장	이재연구소	2020. 02. 05.
8	이재연구소 학술세미나 <조선시대 전북지방의 서당 교육> 한국학중앙연구원 전경목 명예교수	이재연구소	2021. 04. 21.
9	이재연구소 학술세미나 <대곡 김석구의 노사학 계승과 수양론> 전남대학교 이형성 연구교수	이재연구소	2021. 06. 10.

No.	세미나명	주최(주관)기관	개최일시
10	이재연구소 학술세미나 <호남유학의 태산북두, 하서 김인후> 원광대학교 김봉곤 연구교수	이재연구소	2021. 09. 28.
11	이재연구소 학술세미나 <황윤석을 통해서 보는 18세기 호남선비의 일생> 부산대학교 이상봉 연구교수	이재연구소	2021. 11. 30.
12	이재연구소 학술세미나 <반계 유형원, 새로운 조선을 꿈꾸다> 문화재청 김승대 학예연구사	이재연구소	2021. 12. 15.
13	이재연구소 학술세미나 <반계수록의 전승과 위상> 경상대학교 함영대 교수	이재연구소	2022. 01. 19.
14	이재연구소 학술세미나 <이재학 정립을 위한 모색> 오래된미래연구소 전경목 소장	이재연구소	2022. 02. 18.
15	이재연구소 학술세미나 <호남지역의 고서 및 고문서 현황과 변역의 필요성> 한국학호남진흥원 조광현 연구원	이재연구소	2023. 11. 29.
16	이재연구소 학술세미나 <지역학과 지역대학의 역할> 전북연구원 장충희 연구원	이재연구소	2023. 12. 20.
17	이재연구소 학술세미나 <디지털문화대전의 구성과 활용 가능성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진광 책임연구원	이재연구소	2024. 01. 11.

• 호남학 연구실적

번호	책임자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총 연구기간
1	한문종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구축사업 (3단계 1~4차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07. ~ 2018. 06.
2	한문종	디지털무주문화대전 기초조사연구 및 원고집필 사업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06. ~ 2017. 02.
3	한문종	디지털완주문화대전 기초조사연구 및 원고집필 사업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10. ~ 2018. 09.
4	한문종	임실군지 원고집필 학술용역	임실군	2017. 07. ~ 2018. 12.
5	한문종	2018년도 호남실학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고창군	2018. 03. ~ 2018. 12.
6	한문종	전북권 기초자료 조사 수집 및 DB화 사업	한국학호남진흥원	2018. 10. ~ 2018. 12.
7	한문종	2019년도 호남실학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고창군	2019. 03. ~ 2019. 12.
8	한문종	2019년도 이재 황윤석의 학문과 사상 학술대회	고창군	2019. 05. ~ 2019. 12.
9	한문종	조선시대 문과 複本試券의 수집 및 정리(2019~202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06. ~ 2021. 05.
10	한문종	문화재안내판 문안 및 집필 용역	전주시	2019. 08. ~ 2019. 10.
11	한문종	디지털부안문화대전 기초조사연구 및 원고집필 사업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11. ~ 2020. 11.
12	한문종	문화재안내판 문안 및 집필 용역	전주시	2020. 03. ~ 2020. 06.
13	한문종	2020년 <동아시아의 백과전서파실학 -이재황윤석을 중심으로-> 국제학술대회	고창군	2020. 03. ~ 2020. 12.
14	한문종	2020년도 호남실학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고창군	2020. 03. ~ 2020. 12.
15	한문종	홍재일기 국역 및 학술연구 1차년도	부안군	2020. 05. ~ 2020. 12.
16	한문종	문화재안내판 문안 집필 용역	전주시	2021. 02. ~ 2021. 05.
17	한문종	2021년 <이재 황윤석의 서행일력과 과학> 학술대회	고창군	2021. 04. ~ 2021. 12.
18	한문종	2021년도 호남실학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고창군	2021. 04. ~ 2021. 12.
19	한문종	홍재일기 국역 및 학술연구 2차년도	부안군	2020. 05. ~ 2020. 12.
20	한문종	호남의 사상과 문화 연구	전북대	2021. 09. ~ 2023. 02.
21	한문종	홍재일기 국역 및 학술연구	부안군	2022. 03. ~ 2022. 11.
22	한문종	이재난고 보물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	고창군	2022. 05. ~ 2022. 12.
23	한문종	2022년 전북권 고문헌 조사 및 DB화 사업	한국학호남진흥원	2022. 07. ~ 2022. 11.
24	한문종	디지털정읍문화대전 기초조사연구 및 원고집필 사업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08. ~ 2023. 09.
25	박정민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방향 국회토론회	전주시	2023. 02. ~ 2023. 06.
26	한문종	이재난고를 통해 본 호남의 역사와 문화	고창군	2023. 05. ~ 2023. 12.
27	박정민	동암문고 현황조사 및 활용계획 수립	전주시, 전북도청	2023. 06. ~ 2023. 12.
28	한문종	남원시 고서, 고문서 현황조사 용역	남원시	2023. 07. ~ 2023. 12.
29	한문종	조선시대 과거역보 DB구축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정리(1차년도)	한국연구재단	2023. 09. ~ 현재

• 연구소 구성인원

직 책	성 명	소 속	전 공	이메일
연구소장	한문종	이재연구소/사학과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mjhan@jbnu.ac.kr
운영위원	박준호	철학과	형이상학	
	김병남	전라문화연구소/사학과	한국고대사	
	조대연	고고문화인류학과	고고학과 자연과학, 토기분석	
	하우봉	전 전북대학교	조선시대사	
	황병무	전 국방대학교	국방사	
	유기상	전 고창군	조선시대사	
	이연재	전 현대중공업	-	
	이동희	예원예술대학교	조선시대사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사	
교수	박순철	중어중문학과	중국문학, 한국유학, 중국경학	unshan@hanmail.net
	박정민	사학과	조선시대 외교사, 향촌사	parkjm@jbnu.ac.kr
연구원	이선아	이재연구소	조선후기 사회사	jumilcho@hanmail.net
	김 영	이재연구소	중국경학 및 번역	yyy5000@hanmail.net
	송만오	이재연구소	조선시대 과거제도	songcop@hanmail.net
	류호석	이재연구소	한국사	hsyoo62@hanmail.net
	김영준	이재연구소	조선시대사	dharma0421@daum.net
	김봉곤	이재연구소	조선유학	kimbong21@hanmail.net
분과장	김기종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고전시가	wkiji@jbnu.ac.kr
	하태규	인문대학 사학과	고려시대사, 지역사	htkyu@jbnu.ac.kr
	황갑연	인문대학 철학과	중국철학	hky0753@jbnu.ac.kr
	김원선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한국음악	piri3189@hanmail.net
	문만용	한국과학문명연구소	과학학	mymoon@jbnu.ac.kr
	박순철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중국문학, 한국유학, 중국경학	unshan@hanmail.net

제3차 호남학 연구포럼
우리가 가꾸는 지역학 풍경

MEMO

기관소개11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 설립

* 2002년 ‘『여지도서』 번역 및 색인’ 사업과 2004년 ‘『추안급국안』 번역 및 역주’ 사업 등 지속적인 고전 자료 번역 사업을 기반으로, 2011년 국학고전 및 한국사를 특성화 분야로 설정하여 국학고전 번역 및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된 대학 특화연구소.

• 조직현황

* 연구소장 : 변주승
* 운영위원회 : 10명(연구소장 포함)
* 일반연구원 : 9명
* 연구원 소속 전주대학교 전임교원 : 3명(HK교수)
* 한국연구재단 HK연구교수 및 학술연구교수 : 12명
*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연구원 : 4명

• 국내외 학술교류

* 지역 내 유관 기관 협력: 호남지역의 역사문화 위상 제고 및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진행 및 상호간 학술 정보 교류를 위해 호남 내 사학 관련 전문 기관들과 협력 체계 구축.

지역 내 유관 기관 협력	(사)전주문화사랑회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
	(사)호남고전문화연구원
	5.18 기념 재단
	효자청소년문화의집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
	광복회 전북지부
	무주지역자활센터
	시립 정읍사국악단

* 국내 학술연구 기관 교류: 호남권 및 타지역 학술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학 학술 정보 공유 및 연구 방안 모색.

국내 학술연구기관 교류	군산대학교 전북역사문화교육연구소/인문도시센터
	동국대학교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도서출판 민속원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서울역사편찬원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인문학술원
	안양대학교 강화역사문화연구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항일영상역사재단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이재연구소/고려인연구센터/동남아연구
	경북대학교 역사문화아카이브연구센터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유학연구소
	건양대학교 충남지역문화연구소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구소

* 국외 기관 교류 : 국외 대학과의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각 국가 전문가들과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한국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

국외 기관 교류	UC Berkeley East Asian Library
	一橋大學 韓國學研究センター
	立命館大學 東アジア研究所
	立命館大學 東洋文字文化研究所
	立命館大學 白川靜記念東洋文字文化研究所
	中國海洋大學 韓國研究中心
	靑島大學 中韓中心
	연변대학교 조선력사연구소
	대만 국립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

• 다양한 연구성과의 발간

◆ 학술지 발간

* 학술지 발간 : 연구소 자체 학술지인 『공존의 인간학』(2024년 8월 현재 12집 발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을 연 2회 발간.

◆ 연구 성과(도서 및 논문)

* 인문학 담론 관련 자료 발간 : HK+사업단의 아젠다인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와 모색에 관련한 번역총서, 연구총서, 자료총서, 교양총서, 기타 도서 등 각종 도서를 간행함.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편에 달하는 학술 논문 제출.

* 근현대 유학 관련 자료 발간: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으로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분석 및 자료수집 연구를 통한 『근현대 유학 관련 신문기사 목록집』 및 『호남삼재 문인록』을 발간함. 또 한국연구재단 지원 대학중점연구소 선정으로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총 4권)를 발간.

◆ 번역 성과

* 조선후기 관찬 사료 국역본 발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여지도서』(국역본 전 50권 발간) 및 중죄인 심문기록인 『추안급국안』(국역본 전 90권 발간) 등 거질의 번역 결과물 발간.

* 지역 연관 조선시대 국역 한문 문집 발간: 한국고전번역원 지원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의 일환으로 중부호남권에 속한 미번역 고전 자료를 번역하고 고전의 대중화를 위해 조선시대 문집 번역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총 81책(2023년 기준)의 국역본 및 교감·표점본 발간.

* 개인 편찬 사료 국역본 발간: 임진왜란 자료인 『쇄미록』의 기존 국역본의 가독성 문제 및 기존 연구 성과의 축적으로 재번역을 진행하여 국역본 발간(국립진주박물관 지원).

◆ 기타 성과

* 지역 문화유산 사업 관련 성과물 제출: 『전북유학 근원 찾기 도내 현판·편액 전수조사』 보고서(전라북도 지원), 『동국사 소장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학술조사』 보고서(전라북도·군산시 지원), 『국역 무성서원』 자료집(정읍시 지원) 등 도내 연계 사업 성과물 제출

● 국책사업 수행 및 지역인문학센터 운영

* 한국연구재단 지원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 수행(2018~2025): 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담론을 해체하고 공동체로서의 인간학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성과 발간 중.
*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시민강좌 운영 : 지역사회에 인문학 유입 및 인문복지 구현을 위해 전북의 인문 자산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 지역 내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을 통해 인문학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중. 주요 프로그램으로 「꽃 청춘」, 「인문 클래스」, 「걸어서 유교문화 속으로」, 「소담소담(小談笑談)」 등이 있으며 인문 강좌 및 교양 답사를 진행 중.

* 한국고전번역원 지원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수행(2010~2040): 2010년에 호남권 최초 중형거점연구소(2010.05.~2013.04.)로 선정되었고, 2018년에 전국 유일 대형거점연구소(2018.01.~현재)로 승격되어 현재까지, 연간 9책의 번역본을 발간 중. 아울러 지역 연계 번역 결과물을 활용한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논문 제출.

*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지원 인공지능 기반 한문고서 번역 사업 수행(2021~2023): 5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협동하여 AI기술을 활용한 한문 고서 자동번역 서비스를 개발 함. 한국고전학연구소 인공지능사업팀의 과업은 고서 지리지를 대상으로 번역 결과물을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제출하여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로 활용.

◆ 한국고전학연구소 구성원

직책	이름	소속	전공
연구소장	변주승	전주대학교	조선후기사
한국고전학연구소 운영위원회	변주승	전주대학교	조선후기사
	고준석	전주대학교	법학과
	권수태	전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건우	전주대학교	고문서학
	박균철	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서정화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한문산문
	소현성	전주대학교	한문교육
	이정상	전주대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이정욱	전주대학교	일제강점기 지역사
	홍성덕	전주대학교	한일관계사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유지복	한국고전학연구소	미술사학
	조윤선		조선후기 법제사
한국고전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이주형	한국고전학연구소	한국사
	장성덕		한문학
	전형윤		한문학
	이신경		한문학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원	유정란	전주대학교	국어국문학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조원	정국현	한국고전학연구소	철학
	손민국		한국사
	박성우		중문학
	김기완		기계공학
	선종애		문화교양학
	이가희		한국사

◆ 한국고전학연구소 HK+사업단 구성원

직책	이름	소속	전공
HK연구단장	변주승	전주대학교	조선후기사
HK연구부단장	전종윤	한국고전학연구소	교육철학/프랑스철학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장	서정화	한국고전학연구소	한문산문
일반연구원	김건우	전주대학교	고문서학
	홍성덕	전주대학교	한일관계사
	이용욱	전주대학교	디지털스토리텔링
	백진우	서강대학교	조선후기 한문산문
	박균섭	경북대학교	한국교육사상
	손윤락	동국대학교	서양철학사
	조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천주교사
	신상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유가철학
	윤상원	전북대학교 사학과	독립운동사
HK교수	전종윤	한국고전학연구소	교육철학/프랑스철학
	서정화		한문산문
	변은진		한국근대사
HK연구교수	장순순	한국고전학연구소	한일관계사
	이경배		서양철학
	김정화		사회사
	문경득		조선후기사
	김동희		한국유가철학
	이대승		중국도가철학
	김명희		중국 현·당대문학
	송정현		한국현대사
	박선영		한국근대사
	진서금		한중고전문화학

◆ 한국고전학연구소 대표 성과

구분	서명	저자/역자	발행연도	출판사/발행처
번역총서	국역『여지도서』(총 50권)	변주승 외 옮김	2009	흐름출판사
	국역『추안급국안』(총 90권)	변주승 외 옮김	2014	
	국역 구한국외교문서 법안『전라도 교안』	변주승 외 옮김	2017	
	국역『조센징에게 그러지마!』	이정욱, 변주승 옮김	2017	
	국역『존재집』(6책)	강동석 외 옮김	2013, 2015	
	국역『문곡집』(6책)	유영봉 외 옮김	2014, 2015	
	국역『노봉집』(3책)	유영봉 외 옮김	2015	
	국역『병산집』(4책)	유영봉 외 옮김	2015, 2016	
	국역『한포재집』(3책)	전형윤 외 옮김	2016	
	국역『손재집』(3책)	유영봉 외 옮김	2018	
	국역『서하집』(5책)	유영봉 외 옮김	2018	
	국역『성재유고』(6책)	유영봉 외 옮김	2018, 2019	
	국역『연석』(4책)	오항녕 외 옮김	2019	
	국역『송사집』(18책)	장성덕 외 옮김	2020, 2021	
	국역『백강집』(5책)	유영봉 외 옮김	2022	
	국역『연재집』(5책)	장성덕 외 옮김	2022, 2023	
	국역『쇄미록』(6책)	황교은 외 옮김	2018	국립진주박물관
	국역『무성서원』	홍성덕 외 옮김	2021	정읍시·무성서원

자료총서	근현대 유학관련 신문기사 목록집: 1880-1900년	홍성덕, 임숙정 편	2015	근현대유학연구단
	근현대 유학관련 신문기사 목록집: 1901-1920년	홍성덕, 이혜령 편	2015	
	근현대 유학관련 신문기사 목록집: 1921-1930년	홍성덕, 박선영 편	2015	
	근현대 유학관련 신문기사 목록집: 1931-1945년	홍성덕, 설주희 편	2015	
	근현대 유학관련 신문기사 목록집: 색인	홍성덕, 임숙정, 이혜령, 박선영, 설주희 편	2015	
	호남삼재 문인록	홍성덕, 임숙정, 이혜령 편	2015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	변은진 외 편	2020	도서출판 선인
	전라남도유도창명회『彰明』	변은진 외 편	2020	
	일제강점기 중앙기관의 향교관계 문서·기사목록	장순순 외 편	2020	
	일제강점기 향교관계 목록과 주요 자료	장순순 외 편	2020	
	『경학원잡지』색인1 -인명(상)-	변은진 외 편	2020	
	『경학원잡지』색인2 -인명(하)-	변은진 외 편	2020	
	『경학원잡지』의 주요 講說	변은진 외 편	2021	
	근현대 유림 문집 해제1-영남편	서정화 외 편	2021	
	근현대 유림 문집 해제2-호남편	서정화 외 편	2021	
	일본 유교잡지『斯文』기사 상세목록(1919~1945)	장순순 외 편	2022	
	『경학원잡지』색인3 -지명·단체-	변은진 외 편	2022	
	일본 유교잡지『斯文』주요 기사 1	장순순 외 편	2022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색인1 인명(상)	문경득 외 편	2023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색인2 인명(하)	문경득 외 편	2023	
	근현대 유림 문집 해제3-호서·기타편	김정화 외 편	2023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색인3 지명·단체(상)	문경득 외 편	2024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색인4 지명·단체(하)	문경득 외 편	2024	
교양총서	문화와 함께하는 공존의 인문학	최기우 외 저	2020	신아출판사
	옛글로 읽는 공존의 인문학	김형술, 김승우, 백진우 공저	2021	온다라지역인문학센터
	동서양 문화로 읽는 공존의 인문학	장순순 외 저	2021	
	(전북의 유교문화로 읽는) 공존의 인문학	서정화 외 저	2024	
	(전북의 이모저모로 읽는) 공존의 인문학	서정화 외 저	2024	
	(전북의 천주교로 읽는) 공존의 인문학	서정화 외 저	2024	

기관소개12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설립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은 언어학, 문학, 역사학, 철학 등 인문학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인문 정신의 확산 및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됨.
* 1998년 2월, 기존의 인문과학연구소, 외국문화연구소, 전통문화연구소를 통합하여 인문학연구소가 설립되었고, 2008년 3월에 다시 인문학연구소와 부속기관 인문학진흥원이 인문학연구원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름.
* 산하 연구소로 이미지연구소, 우리철학연구소, 공공역사연구소, 언어융합연구소, 고전번역연구소, 인문데이터과학연구소가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과 고전번역원 권역별거점연구소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조직현황

* 연구원장 : 강희숙
* 사무국장 : 이정선
* 산하 연구소장 겸 운영위원회 : 7명
* 산하 연구소 소속 전임연구원 : 8명
* 산하 연구소 소속 객원연구원 : 1명
* 한국연구재단 HK교수 및 HK연구교수 : 7명
*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 7명
* 연구원 소속 조선대학교 전임교원(겸임연구원) : 59명

• 국내외 학술교류

*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광역시동구청, 광주평생교육진흥원, 5·18기념재단,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지방문헌연구소, 은암미술관, 목포문화원, 보성군청, 장흥문화공작소 등.
  – 인문학 제 분야에 관한 조사와 연구, 학문후속세대 및 일반인 대상 인문학 교육 등을 위해 지역 내 지역학 관련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함.

* 국내 학술연구 기관 교류 :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경북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단, 고려대학교 글로벌인문연구원, 서강대학교 디지털역사연구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중국사학회, 한국생태환경사학회, 한국언어문학회, 한국중국현대철학연구회, 고령사회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사)나란히 희망철학연구소 등.
  – 국내 소재 대학 연구기관, 인문학 전문 학회, 재난인문학 관련 연구기관 등과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인문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함.

* 국외 기관 교류 : 미국 스토니브룩대학교 한국학센터, 중국 남창대학 강우철학연구중심, 중국 연변대학 동방철학연구소, 중국 인민대학 청사연구소, 중국 주자서원, 중국 하문대학교 인문대학 등.
  – 국외 소재 대학 연구기관, 지역 연구센터와 인문학 관련 연구성과 및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교류함.

• 다양한 연구성과 발간

* 인문학 전문 학술지인『인문학연구』(2024년 8월 말 68집 발간 예정,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를 연 2회(2월 말, 8월 말) 발간함.
* 인문학연구원 산하 언어융합연구소에서 2024년 6월 정기 학술지『수어학과 언어융합연구』(연 2회/ 6월 말, 12월 말)를 창간함.

* 인문학 총서 발간 : 산하 연구소의 연구성과 공유 및 인문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인문학연구총서』, 『인문학자료총서』 등 단행본을 발간함.

• 국책사업 수행 및 시민강좌 운영

* 인문학연구원은 2019년부터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2019~2026)에 선정되었고,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을 구성해 '동아시아 재난의 기억, 서사, 치유 - 재난인문학의 정립'을 아젠다로 공동연구를 수행 중임.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은 재난에 관한 인문학적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동아시아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재난 연구 허브기관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함.『재난인문학연구총서』,『재난인문학번역총서』,『재난인문학교양총서』등 연구성과를 발간함.

* 인문학연구원 산하 언어융합연구소는 2020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2020~2026)에 선정되어, '코퍼스와 증강현실(AR) 기반 농인 초·중등 언어 교과목 교재 개발'을 주제로 공동 연구를 수행 중임.

* 인문학연구원 산하 고전번역연구소는 2020년 한국고전번역원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의 호남권 거점연구소로 선정되어, 현재 2단계 2기(2023~2025) 공동 번역 사업을 수행 중임.

* 시민강좌 운영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은 연구와 사업의 결과물을 지역민 또는 국내외 일반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강좌를 운영함.
  - 인문학연구원은 2004년부터 학문후속세대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컬로퀴엄을 매년 운영함. 2024년 8월 현재 117회 진행됨.
  -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은 지역인문학센터를 설치하여 HK+인문학강좌, 재난인문학강좌, CSU인문학 아카데미, 재난인문학 아카데미, 생태·환경 문화답사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강좌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
  - 인문학연구원 산하 공공역사연구소는 매년 상반기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을 위해 '공공역사, 영화를 만나다'라는 이름의 영화상영회를 개최함.

• **학문후속세대 및 지역 활동가 양성**

*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은 학문후속세대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 2024년 8월 CSU 기후 위기 아카데미 7기, 마을 기록 전문가 양성 과정 2기,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전문가 양성 과정 1기 교육 과정을 완료함.

인문학연구원 구성원

직 책	이 름	소속	전공	이메일
연구원장	강희숙	국어국문학부	한국어사회언어학	hskang@chosun.ac.kr
운영위원	고언숙	영어영문학과	음성학, 언어습득	eonsukko@chosun.ac.kr
	이상원	국어국문학부	고전시가	sanje2@chosun.ac.kr
	이정선	역사문화학과	한국근현대사	js-lee@chosun.ac.kr
	이철승	아시아언어문화학부	동양철학	cheols@chosun.ac.kr
	차승기	국어국문학부	현대소설 및 문화연구	avantra@chosun.ac.kr
	차희정	영어영문학과	영미문학	chahj226@chosun.ac.kr
	최영주	영어영문학과	영어학통사론	ychoi1@chosun.ac.kr
HK교수	박정현	인문학연구원	중국근현대사	jhpiao@chosun.ac.kr
	심정명	인문학연구원	일본문학	alcibiades@chosun.ac.kr
	한순미	인문학연구원	한국현대문학	specialcloud@chosun.ac.kr
HK연구교수	김나영	인문학연구원	일본사	kimnoangs@chosun.ac.kr
	김주선	인문학연구원	한국문학	rang9908@chosun.ac.kr
	박승현	인문학연구원	동양철학	psh310@chosun.ac.kr
	이석현	인문학연구원	중국근세사	coconaru21@chosun.ac.kr
인문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김성현	인문학연구원	인문지리학	fruitrue@naver.com
	김정주	인문학연구원	서양철학	doct66466@nate.com
	신소정	인문학연구원	일본문학	hayarobi83@gmail.com
	엄기석	인문학연구원	한국근세사	uhistory0925@naver.com
	이화진	인문학연구원	한국현대문학	mysleepwalk@naver.com
	정종민	인문학연구원	언어병리학	jongminjung169@gmail.com
	한지선	인문학연구원	중국명대사	hjs0321@hanmail.net
산하 연구소 전임연구원	유종수	고전번역연구소	법학, 고전번역	wunlujumgy885@daum.net
	이민호	고전번역연구소	한문교육, 고전번역	ghig0125@hanmail.net
	최이호	고전번역연구소	한문교육, 고전번역	choieho25@hanmail.net
	배성훈	언어융합연구소	한국어문정보학	hwasumok85@gmail.com
	윤병천	언어융합연구소	언어청각장애교육, 수어학	ybch5778@kornu.ac.kr
	이유정	언어융합연구소	한국현대문학	0166291094@hanmail.net
	이정아	언어융합연구소	동양어문학	Jungahlee27@gmail.com
	채준호	인문데이터과학연구소	인지/언어심리학	junhoc94@gmail.com
산하 연구소 객원연구원	구화영	우리철학연구소	동양철학	521qhy@163.com

인문학연구원 대표 성과

구분	단행본명	저자	발행일자	출판사
인문학 연구총서	조선시대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김두헌	2013. 2. 15.	경인문화사
	호남 구석기문화의 탐구	이기길	2018. 8. 24.	혜안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총서	기암집 3	고전번역연구소 역	2022. 8. 8.	심미안
	죽음집 1	고전번역연구소 역	2022. 12. 16.	심미안
	죽음집 2	고전번역연구소 역	2023. 12. 16.	심미안
	죽음집 3	고전번역연구소 역	2023. 12. 16.	심미안
이미지 연구총서	이미지 테크놀로지 생명정치	이미지연구소 편	2016. 2. 28.	앨피
	민주주의 증언 인문학	이미지연구소 편	2018. 2. 25.	앨피
우리철학총서	오늘의 한국철학, 그리고 우리철학	우리철학연구소 지음	2019. 2. 28.	힉고방
	우리철학, 어떻게 할 것인가	이철승	2020. 9. 15.	학고방
	민종종교와 민의 철학	이종란 외	2020. 12. 30.	학고방
재난인문학 연구총서	왜 재난인문학인가?	강희숙 외	2021. 12. 31.	도서출판 역락
	재난인문학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린메이마오 외	2021. 12. 31.	도서출판 역락
	재난 시대의 철학	김성훈 외	2022. 1. 21.	도서출판 역락
	국가폭력과 정체성	김요섭 외	2022. 1. 24.	도서출판 역락
	동아시아 재난의 근현대사	고태우 외	2022. 1. 28.	도서출판 역락
	'경계'에서 본 재난의 경험	가게모토 츠요시 외	2023. 2. 24.	도서출판 역락
	국가폭력과 공동체	정영수 외	2023. 2. 24.	도서출판 역락
	재난공동체의 사회적 연대와 실천	강희숙 외	2023. 2. 24.	도서출판 역락
	재난 시대의 언어와 담론	강희숙 외	2023. 2. 24.	도서출판 역락
	재난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및 사회 변화	강희숙 외	2024. 2. 29.	도서출판 역락
재난인문학 번역총서	일본 지진 재해사	김성현·이석현	2022. 1. 24.	도서출판 역락
	공해원론1-3	김경인·임미선	2022. 1. 24.	도서출판 역락
	천재지변으로 비춰본 일본의 역사	강희숙·이덕배	2022. 1. 28.	도서출판 역락
	왜 현장재난인문학인가	김경인·임미선	2023. 5. 25.	도서출판 역락
	중국의 재난문화 - 사회·역사·문예	강희숙 외	2023. 2. 24.	도서출판 역락
재난인문학 자료총서	코로나19가 남긴 것들	정영수·김주선	2022. 1. 24.	도서출판 역락
	자료로 보는 일본 감염병의 역사	강희숙·김경인	2022. 1. 24.	도서출판 역락
	다이쇼9년(1920) 콜레라병 방역지	김나영	2022. 1. 24.	도서출판 역락
	조선후기 일기를 통해 본 재난	도주경·예지숙	2022. 1. 24.	도서출판 역락
	개항기 자료를 통해 본 재난	예지숙·홍문기	2022. 1. 24.	도서출판 역락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해 본 재난	김명재·예지숙	2022. 1. 24.	도서출판 역락
재난인문학 교양총서	재난과 여성	김기림 외	2021. 5. 24.	도서출판 역락
	재난과 소문	김영미 외	2022. 1. 10.	도서출판 역락
	재난과 난민	김명재 외	2022. 1. 12.	도서출판 역락
	재난과 영화	김소미 외	2022. 1. 24.	도서출판 역락

MEMO

기관소개13

남도민속학회

남도민속학회

1. 설립 목적

- 본 학회는 남도민속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지역문화와 민족문화의 올바른 계승에 기여하고자 한다.
- 잊혀지고 소멸되어 가는 전남의 전통 민속 문화를 발굴, 계승하여 우리 민속 문화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확보한다.
- 학계는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 사라져 가는 우리의 민속 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사, 발굴하여 알림으로써 자국의 민속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2. 일반 현황

■ 설립연도 : 1991	■ 누리집 : http://www.namdofolk.net
■ 조직 구성 : 회장1, 부회장2, 이사12, 평의원7, 감사2, 간사2	

3. 주요 활동

가. 학술발표회 개최(춘계, 추계)
나. 민속 현장 조사 실시
다. 학회지 발간(한국연구재단 학술등재지)
라. 민속관련 사업 추진

4. 주요 활동

연 도	학술대회 및 논문집 발간	장소
2024	“지역 민속 연구의 현황과 과제” (춘계학술대회)	전남대학교
2023	“남도 문화 ‘맛과 멋’, 그 전통의 향방” (추계학술대회)	전남대학교
2023	“민속, 지속과 변화의 현장 속으로” (춘계학술대회)	전남대학교
2022	“호남문화의 다양한 지층과 변화” (추계학술대회)	전남대학교
2022	“광양용지큰줄다리기의 지속과 변화” (학술대회)	광양시
2022	“광주전통문화관 발전 방안 모색” (학술대회)	광주전통문화관
2022	“지역서사와 생업 문화유산” (춘계학술대회)	전남대학교
1991~현재	『남도민속연구』 제47권 발행(반년간)	

5. 학회 역할

본 학회는 광주·전남지역의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전국 단위 학회로 전국 주요 대학 교수 및 연구자, 민속학 관련 대학원생 등 3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학술연구단체이다. 南道 민속과 관련된 연구발표 및 논문 발간을 통해 우리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발굴, 소개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6. 구성원

직책	성명	소속	이메일
회장	박종오	전남대학교	kfolk@hanmail.net
부회장	송기태	목포대학교	csptop@hanmail.net
〃	한정훈	전남대학교	thunderh@hanmail.net
기획이사	송기태	목포대학교	csptop@hanmail.net
연구이사	한정훈	전남대학교	thunderh@hanmail.net
총무이사	부유진	광주역사민속박물관	mybooyou@korea.kr
총무간사	이시흔	전남대학교	ribbon228@naver.com
편집이사	유형동	한신대학교	micmchd@naver.com
홍보이사	최명림	국립민속박물관	y970909@korea.kr
협력이사	박희순	광주문화재단	smile160@nate.com
〃	임준성	광주여자대학교	teapoem@kwu.ac.kr
지역이사	서종원	한국민속예술연구원	gut111@hanmail.net
〃	오세정	충북대학교	ohsj@chungbuk.ac.kr
〃	서유석	경상국립대	anywhereman@gnu.ac.kr
〃	권혁희	강원대학교	real2020@kangwon.ac.kr
〃	오창현	목포대학교	hayfever@hanmail.net
〃	강소전	제주대학교	islandnine@daum.net
평의원	나경수	전남대학교	ksna@chonnam.ac.kr
〃	나승만	목포대학교	yellowsea4@hanmail.net
〃	이경엽	목포대학교	lky3528@hanmail.net
〃	김은정	전남대학교	kimej0234@hanmail.net
〃	김성식	조선이공대학교	chosunkim@hanmail.net
〃	이윤선	목포대학교	seaculture@hanmail.net
〃	서해숙	전남대학교	shscan@hanmail.net
감사	양향진	(사)광양버꾸놀이보존협회	dosuin@hanmail.net
〃	이옥희	전남대학교	okee30@hanmail.net
편집위원장	이경엽	목포대학교(전라)	lky3528@hanmail.net
편집위원	강석민	안동대학교(경상)	seokminism@naver.com
〃	권혁희	강원대학교(강원)	real2020@kangwon.ac.kr
〃	김혜정	경인교대(경기)	kukak@ginue.ac.kr
〃	류진옥	제주학연구소(제주)	jo-ryu@hanmail.net
〃	박채린	세계김치연구소(전라)	cherrypark@wikim.re.kr
〃	오창현	목포대(전라)	hayfever@hanmail.net
〃	유형동	한신대(경기)	micmchd@naver.com
〃	이영배	안동대(경상)	lyb70@anu.ac.kr
〃	최원오	광주교대(전라)	kols415@hanmail.net
〃	최진아	한양대학교(경기)	julia73@hanyang.ac.kr
〃	최혜진	목원대학교(충청)	sori0619@hanmail.net
〃	홍태한	전북대학교(전라)	k910405@daum.net
연구윤리위원장	나경수	전남대학교	ksna@chonnam.ac.kr
〃	나승만	목포대학교	yellowsea4@hanmail.net
〃	이경엽	목포대학교	lky3528@hanmail.net
〃	김은정	전남대학교	kimej0234@hanmail.net
〃	이윤선	목포대학교	seaculture@hanmail.net
〃	서해숙	전남대학교	shscan@hanmail.net

기관소개14

역사문화학회

▢ 역사문화학회

1. 설립

- 역사문화학회는 1998년 설립.
- 지방사와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전체 역사 및 문화의 연구를 심화하고 지역/지방에 대한 복원을 통해 그 동안 소외되어온 주제와 영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학/인문학의 균형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

2. 조직현황(2024~2025)

- 회장 : 김덕진
- 부회장 : 김경옥, 우승하, 김세건
- 총무, 연구, 편집, 섭외, 지역이사 : 18명
- 간사 : 2명
- 편집위원 : 10명
- 회원 : 370여 명

3. 국내외 학술교류

-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등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4. 연구 성과 발간

- 매년 KCI 등재학술지인『지방사와 지방문화』를 2회 간행(2024년 8월 기준 27권 1호 발간).
- local을 대상으로 한 지역학 연구(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고고학, 사회학 등 한국학)성과를 수렴.

5. 지역사 관련 협력 활동

- 전국 지역학 연구자의 학문 공동체로서 다양한 한국학 분야의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지역 현안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대응 및 관련 연구 진행

<로컬커뮤니티규약의 전통과 현대적 변용: 호남의 향약과 동계>(역사문화학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주관, 한국학호남진흥원 주최)

6. 학술대회 개최 및 연구성과 발간

<학술대회 개최 현황(1998년부터)>

1998년

06월 - 학회 창립 발기대회 겸 제1회 학술심포지움 개최

1999년

06월 - 제2회 학술심포지움 개최

2000년
09월 - 제1회 연구발표회 개최
06월 - 제3회 학술심포지움 개최
2001년
11월 - 제4회 학술심포지움
04월 - 제2회 연구발표회
02월 - 제1회 워크샵 개최
2002년
11월 - 2002년도 전국 학술대회 개최
10월 - 제5회 연구발표회 개최
06월 - 제4회 연구발표회
04월 - 제3회 연구발표회
2003년
11월 - 2003년 전국학술대회
10월 - 역사문화학회 , 목포대호남학 연구소 합동 심포지움
05월 - 제6회 연구발표회 개최
2004년
11월 - 2005년 학술대회 ― 동아시아 개항장 도시의 근대성과 식민성 (목포대)
04월 - 제 8차 연구발표회
03월 - 제 7차 연구발표회
2005년
10월 - 제11회 연구발표회(충남대)
03월 - 제10회 연구발표회 (충남대)
2006년
10월 - 2006년 2차 전국학술대회(충남대학교)
08월 -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공동 주최 학술대회(전남대학교)
08월 - 2006년 1차 전국학술대회(안동대학교)
06월 - 제13회 연구발표회(대전역청사 , 소회의실)
04월 - 제12회 연구발표회(대구 흥사단)
2007년
11월 - 지방사 , 지방문화와 문화원형(목포대학교)
11월 - 2007년 2차 전국학술대회 / 태안반도의 역사와 문화 , 그리고 해로(海路) (목포대학교)
04월 - 2007년 1차 전국학술대회(영남대학교)
2008년
11월 - 단행본 (지방사 연구입문) 발간
09월 - 2008년 1차 전국학술대회(공주대학교) / 조선시대 감영문화와 자원활용
05월 - 제16회 정기연구발표회 / 문화권역 논의의 현황과 과제(국립문화재연구소)
2009년
10월 - 제18회 정기학술발표회 / 가정신앙 조사와 문화권역(국립문화재연구소)
06월 - 2009년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전북대학교)

02월 - 2009 여름 역사문화학회 심포지엄 (한국학중앙연구원)
01월 - 2009년 제17차 정기학술발표회 / 한국 지역문화원형콘텐츠의 조사방법(공주대학교)
2010년
11월 - 공동학술대회 / “길 위에 펼쳐진 지방사”(목포대)
06월 - 공동학술대회 / 해항도시의 경계와 탈경계(한국해양대학)
2011년
05월 - 01월 정기학술발표회 “길과 공간의 지방사”(목포대)
04월 - 2012년 전국학술대회 “지방사와 지방문화의 재구성 방법: 기록과 구술의 이중주”(전북대)
2012년
05월 - 공동학술대회 / “섬의 인문학-섬 , 문명교류와 탈경계”
2013년
12월 - 2014년 전국학술대회 “한국 내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문화변동”(한국교원대학교)
06월 - 공동학술대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연구방법론(전남대)
2014년
12월 - 2015년 역사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역문화의 과거와 현재 -만외당 장경우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중심으로-“(영남대학교 박물관)
08월 - 2015년 역사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지역과 정체성”(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15년
11월 - 세계한센포럼 학술발표 특별세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 한센문화유적의 역사적 중요성” (COEX)
10월 - 역사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 “역사 속의 지방과 기록”(서울여대)
06월 - 공동학술대회 “지역학 연구와 역사문화자원 활용”(보은 속리산 레이크힐스 호텔)
2016년
6월 공동학술대회 “지역학 연구와 역사문화자원 활용”(보은 속리산 레이크힐스 호텔)
10월 추계학술대회 “역사 속의 지방과 기록”(서울여대)
11월 2016년 세계한센포럼 학술발표 특별세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 한센문화유적의 역사적 중요성” (COEX)
2017년
- 7월 춘계학술대회 “제주 역사문화자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방안”(제주대)
10월 추계학술대회 “역사상의 변혁을 꿈꿨던 인물”(고려대)
2018년
6월 공동학술대회 “남북한 경계의 역사문화사”(서울대)
10월 20주년 기념행사 및 추계학술대회 “지역문화와 지역사 연구의 생산과 소비”(서울대)
2019년
6월 춘계학술대회 “지역 체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방 사회의 재편”(순천향대)
10월 추계학술대회 “동북아 지방 공동체와 ‘현대’의 탄생”(고려대)
2020년
8월 춘계학술대회 “근현대 위생관념의 보급과 변화”(순천향대)
10월 추계학술대회 “역사 속 지방세력 간의 갈등과 해소”(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ZOOM)
2021년

6월 공동학술대회 “인산서원 및 배향인물 재조명 : 잠야 박지계를 중심으로”(온양제일호텔)
10월 추계학술대회 “역사 속 지방의 위기와 대응”(고려대)
2022년
6월 춘계학술대회 “지역 특산품의 전국 상품화-해산물을 중심으로”(국립민속박물관)
10월 추계학술대회 “환경과 삶의 변화”(연세대)
2023년
7월 춘계학술대회 “아시아 문화연구와 활용”(국립민속박물관)
10월 추계학술대회 “역사 속의 인구변동”(서강대학교)
2024년
6월 공동학술대회 “로컬커뮤니티규약의 전통과 현대적 변용: 호남의 향약과 동계”(광주교대)

<학술지 발간(1998년 이후)>
『지방사와 지방문화』 27권 1호까지 발행(2024년 8월 기준)

7. 역사문화학회 구성원(2024~2025)

회장		김덕진(광주교대, 역사학)	
부회장		김경옥(목포대, 역사학) 우승하(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 김세건(강원대, 인류학)	
감사		오아란(국립민속박물관, 역사학) 박종오(전남대, 민속학)	
이사	총무	박미선(전남대 교수, 역사학)	
	연구	한남수(선문대, 민속학)	
	편집	권기중(한성대 교수, 역사학)	
	섭외	박시언(건국대, 국문학)	
	지역	수도·강원권	최희수(상명대, 역사학) 최명환(강원대, 민속학) 강경표(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인류학)
		충청권	백종오(한국교통대, 역사고고학) 김영관(충북대, 역사학) 허 종(충남대, 역사학)
		경상권	태지호(안동대, 역사문화콘텐츠) 장희흥(대구대, 역사학) 안미정(한국해양대, 인류학) 구산우(창원대, 역사학)
		전라·제주권	김창민(전주대, 인류학) 하태규(전북대, 역사학) 이경엽(목포대, 민속학)
		해외	酒井裕美(大阪大, 역사학)
편집위원		위가야(동북아역사재단, 역사학) 김병인(전남대, 역사학) 이규철(성신여대, 역사학) 이정수(동서대, 역사학) 이왕무(경기대, 역사학) 남기현(방통대, 역사학) 염원희(경희대, 민속학) 서종원(한국민속예술연구원, 민속학) 오창현(목포대, 인류학) 이상균(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류학)	

MEMO

기관소개15

호남사학회

▢ 사단법인 호남사학회

• 설립

* 1987년 3월 14일 전남사학회로 창립된 호남사학회는 2005년 9월 10일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 동시에 발간 학술지 명칭도 『전남사학(全南史學)』에서 『역사학연구(歷史學硏究)』로 개칭. 현재 호남사학회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분야를 아우르는 전국적인 역사학회로 발전. 2015년 7월부로 사단법인으로 변경.

• 조직현황(2024~2025)

* 회장 : 강봉룡
* 부회장 : 한규무, 김병인, 이욱
* 총무·정보·편집·연구이사 : 23명
* 간사 : 2명
* 감사: 2명
* 편집의원 : 7명

• 학술교류

*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 순천대 인문학술원,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국립목포대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 등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 국내 학술연구 기관 교류 : 타 지역 역사학회와 정기적 교류를 통해 연구성과 공유 및 연구 교류망 확대 전북사학회와의 공동 학술대회 개최 및 5개 주요 지역학회(대구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호서사학회, 전북사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 **연구성과 발간**

* 전문 학술지 『역사학연구(歷史學硏究)』 발간(한국연구재단등재지, 2024년 8월 현재 95호 발간 예정) 매년 4회 발간

* 한국사·동양사·서양사 및 미술사, 고고학 포함,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중심으로 하면서, 전국 단위 역사학 연구성과 수렴

• **지역사 관련 협력 활동**

* 광주·전남의 역사문화 가치 제고 :
<손님이 오다 : 접대의 정치·문화> (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 호남사학회 공동 개최)
<지역 역사학계의 새로운 경향> (전북사학회, 호남사학회, 전남대학교 사학과 공동 주최)
<고려 '어향(御鄕)' 나주의 재조명과 영산강> (국립목포대학교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 한국중세사학회, 호남사학회 공동 주관)

* 광주·전남의 주요 역사 현안 관련 협력 활동 :
<신안군 항일농민운동사 학술세미나>, <5·18민중항쟁> 관련 포럼 등 공동주최
<영산강 문명('마한')의 탄생과 나주 영산강의 역사 전개> (국립목포대학교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 호남사학회 공동 주관, 10월 예정)

•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 매년 하계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신진연구자의 발표 기회 마련. 논문의 질적 제고 및 연구인력 간 교류 기반 형성

* <신진학자, 새로운 연구의 장을 열다> (호남사학회, 국립목포대학교 역사콘텐츠전공 공동 주최)
<신진교수, 새로운 연구를 개척하다> (호남사학회,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 공동 주최 및 주관)

호남사학회 구성원

직 책	이 름	소속	이메일
회장	강봉룡	목포대학교 역사콘텐츠전공	kangbr@mokpo.ac.kr
부회장	한규무	광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hkm@gwangju.ac.kr
	김병인	전남대학교 사학과	kimbi36@chonnam.ac.kr
	이 욱	순천대학교 사학과	Lwwsh@scnu.ac.kr
총무이사	유연실	목포대학교 역사콘텐츠전공	you2213@hanmail.net
	김한결	전남대학교 사학과	hangyul@jnu.ac.kr
	이정은	순천대학교 사학과	karenin012@scnu.ac.kr
	천선행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cjssh@chosun.ac.kr
정보이사	정재현	목포대학교 역사콘텐츠전공	jeoung.jaehyun@gmail.com
편집이사	김경태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kimkt@jnu.ac.kr
	조영광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joyk@jnu.ac.kr
	한정훈	목포대학교 역사콘텐츠전공	h313100@hanmail.net
	노영기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noeyoungi@hanmail.net
	김동혁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hdonghak@gist.ac.kr
	주의돈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donny@chosun.ac.kr
	강은영	전남대학교 사학과	kuare@jnu.ac.kr
	유채원	전남대학교 사학과	hlglory@hanmail.net
편집위원	심재훈	단국대학교 사학과	js527@dankook.ac.kr
	윤재운	대구대학교 역사교육학과	hiswoon@daegu.ac.kr
	윤 진	충북대학교 사학과	agis4@chungbuk.ac.kr
	이기훈	연세대학교 사학과	na6887@naver.com
	이정란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y8301422@gmail.com
	이정호	목원대학교 역사학과	jungho11@mokwon.ac.kr
	허영란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hurstory@gmail.com
연구이사	류시현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ryush@gnue.ac.kr
	이정선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arisumir@empal.com
	최성환	목포대학교 역사콘텐츠전공	baguni11@naver.com
	신진혜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jeanhaeshin@gist.ac.kr
	손성필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son@chosun.ac.kr
	신선혜	호남대학교 교양학부	2020023@honam.ac.kr
	김경옥	목포대학교 교양학부	gotomboy@naver.com
	김창규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kimcg@jnu.ac.kr
	신지혜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jhyshin@jnu.ac.kr
	조미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jsossos20@hiks.or.kr

직 책	이 름	소속	이메일
간사	강승재	목포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tmdwo2678@naver.com
	신봉현	전남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tim6290@naver.com
감사	김창수	전남대학교 사학과	hangul47@jnu.ac.kr
	박미선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erudite-pms@hanmail.net

제3차 호남학 연구포럼
우리가 가꾸는 지역학 풍경

발행일 2024년 8월 20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Tel. 062-603-9600, 062-603-9620
Fax. 062-941-6705
https://www.hiks.or.kr

본 책자는 2024년 호남학 연구기관 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제3차 호남학 연구포럼" 학술행사 자료집으로 여기에 실린 글과 도판은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